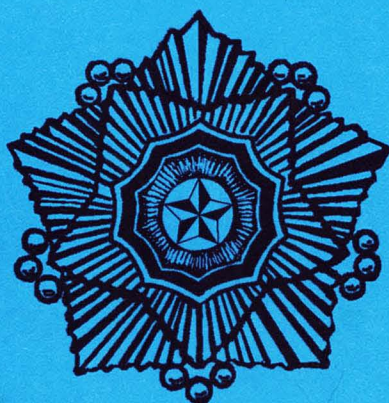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조선문학



4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4호

(루계 제 726 호)

◆◆◆◆◆◆◆◆◆◆

차 례

◆◆◆◆◆◆◆◆◆◆

아, 만경봉.....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수령님의 총대	5
웁트는 아침	6
가정의 화목속에	21
여운이 남는 시구들	22
오리알이야기.....	22
구호나무앞에서	23
주체문학의 대강	24
통쾌한 습격전투	24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빛나는 형상.....	25
동갑나이	30
가마마차에도 올라보시며.....	32

당의 품속에서 노래와 함께 산 시인(1).....	33
내 나라는 노래가 많은 나라	34
조선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께 경의를	35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녀사.....	36
새벽에 올리신 총성	37
강선의 노을	38
더 붉게 타오르라 강선의 노을이여	38
강선사람들	41
강선의 노을에 대한 철학적탐구와 심오한 현상	42
력사의 대하	45
나의 하늘-강선의 노을을 바라보며.....	46
청년전기로여.....	49
안해의 행복	49
내 터놓고싶은 고향자랑은... ..	50
화선병사의 이야기	50
적동색머리수건	51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태도	62
슬라크의 《복》	62
선군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서정세계.....	63
병 사 시 초	67
장거리선수	69
경구, 격언.....	73

나의 군인증 (외 2 편)	74
나무에 이름표를 달며	74
명령한 사람은 없었다	75
공군대좌	75
강경애와 그의 창작활동	76
고구려사람들의 고상한 결혼풍습	78
《재판받는 구렁이》	79
똑같은 규정	80

아, 만경봉

김영택

사시장철 솔푸른

유서깊은 만경봉마루에 오르니

내 가슴 가득히 안겨오는

아버이수령님

거룩하신 한평생이여

애국의 넋을 충충 고이고 솟은

너의 어느 굽이에 간직되어있느냐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 위한 큰 뜻 소중히 품으시고

눈보라 천리길 헤쳐오신 그 모습은

어느 굽이에 새겨져있느냐

이 땅에 드리운 수난의 아픔이

무겁게 얹히던 수령님마음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으리라

불타는 마음속 맹세가 스민 그곳은

백두광야 혈전의 나날에

정깊은 그리움을 《사향가》에 담으시던

달밝은 그밤의 사연이 흐르는 여기

조부모님들 기다리시는 고향집 지나

강선을 찾으시던 그 자욱을

오늘도 전하는 력사의 봉우리여

애국의 불타는 념원으로

해가 뜨고 달이 솟고 별이 빛나는곳

수천만 마음과 마음을 불러

언제나 열려있는 만경대고향집을 품에 안고

하늘가 높이 솟은 만경봉

일만경치 볼수 있어 불렀다는

그 옛날 이름으로야 어이 부를수 있으랴

찬란한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펼쳐준

태양의 위대한 년대를 충충 새겨안아

그 이름 빛나는 만경봉

오를수록

수령님력사우에 떠받들린

조국의 귀중함이 가슴가득 채워지고

올라도 끝이 없는 너의 봉우엔

장군님따라 이 땅에 강성대국 세워갈

억척같은 신념이 차넘치거니

세월은 가고 또 가도

진할줄 모르는 애국의 기상으로 푸르리

내 마음속에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애국의 크나큰 키를 자래워주는 만경봉

우리 장군님 빛내여주시는 이 강토우에

태양을 노래하며 솟은 봉우리

김일성민족의 룡성번영을 길이길이 전하며

만경봉은 정일봉과 더불어

위대함과 숭고함의 제일명산으로

아 천년만년 빛을 뿌리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1932년 4월 25일 아침

우리는 토기점골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식을 가지었다.》

《대원들의 생신하고 릉름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회억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 이 무장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길은 얼마나 걸었고 모임은 얼마나 가졌고 연설은 얼마나 하였고 준령은 얼마나 넘었으며 그 과정에 가슴아픈 희생은 얼마나 당하였던가. 반일인민유격대는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겨운 로고와 피어린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산아였다.》

수령님의 총대

김춘길

김형직선생님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에서부터
수령님의 총대력사가 시작되었다
안도의 푸른 밀림에서
일제와 결사항전을 선포하던 그날부터
수령님존함은 승리였다

아직은 연약하던 인민
일제의 발굽아래 수난을 당하던 인민이
총대를 틀어쥐면 어떻게 강한가를
자욱자욱 불변의 진리로 새겨주며
수령님 헤쳐오신 혈전만리

드넓은 만주광야
허리치는 눈을 헤쳐넘으며
강도 일제를 삼대베듯 쓸어넘히던
전설적장군의 멸적의 총소리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었다

그 승리를 떨치는 진두엔
수령님 계시었다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 무적의 장군
빨찌산사령관의 총대는
인민의 자유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멸적의 불을 뿜었거니

조국을 사랑하기에 인민을 사랑하기에
혁명의 총대를 더 높이 드신 수령님
그 총대로 당과 국가를 창건하시고

포악한 미제의 무력침공 짓부시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신
수령님의 존함은 우리의 승리였거니

수령님 한생이였고
수령님 언제나 사랑하신 총대
걸음마다 드리운
압살의 광풍을 짓부셔버리며
수령님 높이 드신 총대
그것은 조국이였고 인민이었다

우리 혁명의 진군로를 막아나서던
온갖 잡스런 낯은것을 쓸어버리며
붉은기 높이 든 우리의 진군길을 지켜주는
수령님의 총대 그것은
사회주의이고 인민의 행복이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총대력사
수령님총대로 무장한 천만의 대오
철벽의 성새를 이룬
이 무적의 힘을 꺾을자 이 세상에 없다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되리

영원하리라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역세계 틀어쥐신
수령님의 총대 백두산총대가 굳건하기에
조국은 인민은 우리의 찬란한 미래는
수령님의 총대와 더불어...
수령님의 한생과 더불어...

움트는 아침

박찬은

하늘을 치받듯 험준한 산봉우리들이 잔잔한 호수가에 거꾸로 비껴 그윽한 산천의 아름다움을 한껏 사랑하는듯싶었다.

거울같은 수면을 희롱하듯 긴 꼬리를 끌며 떠돌던 실안개가 부채살처럼 퍼져내린 아침해빛에 놀라 서둘러 울창한 계곡을 따라 자취를 감춘다.

우— 한점 바람이 청청한 수해를 흔들며 심산의 고요를 깨쳐보려는듯 자못 기승스레 불어왔다.

그것도 그때뿐 태고의 정적이 깃든 산중의 호수에는 더 무거운 침묵이 수면을 덮는듯 했다.

일명 해금강 총석정이라고도 부르는 물가녘의 우죽삐죽한 선바위돌밑에 걸터앉은 사람들이 저마다 낚시대를 드리우고 긴장한 눈길로 감부기를 지켜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느슨히 미소를 지으시었다. 서로 자기가 큰 잉어를 낚아낸다고 버르는 그들이었다. 이곳 서북지구 압록강가의 큰 호수에는 잉어, 메기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크고 맛있는 물고기가 잉어였다.

수령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저쪽에 자리를 잡은 리한무도 팔뚝같은 잉어를 세마리씩이나 낚아내고는 사기가 올라 더 큰것을 낚자고 아예 무릎을 꿇고 물가에 들어서서 낚시대를 드리우고있었다.

아까 결에서 낚시질하시는것을 구경만 하는 그에게 동무도 어서 가서 큰놈을 낚아보라고 일러서 보낸 그이이시었다. 그랬더니 저렇게 극성이다.

참으로 얼마만에 차례진 휴식일인가. 전쟁이 한창일 때 수원들이 수령님, 이번 일요일만은 하루 쉬셔야겠습니다, 너무 과로하시면건강이... 하고 안타까이 간청할 때마다 고맙소, 이제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우리 실컷 잠도 자고 휴식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던 수령님이시었다.

하지만 작년 7월말에 정전이 됐을 땐 또 재더미밖에 없는 조국을 안아일으켜야 할 거대한 국사로 하여 일신의 피로를 풀 겨를이 없으시었다. 다망한 일속에 묻혔어도 자나깨나 잊지 않은것이 산골사람들의 피이지 못한 생활이였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여서 그만큼 산골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의 생활을 추켜세울수 있는 방도만 찾으면 전쟁으로 하여 평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큰 문제가 해결될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정전이 된지 한해가 지난 이 삼복 무더위철에 여기 서북부의 천산군 산간오지로 들어오신것은 바로 그때문이시

였다. 오신 그날로부터 여러날이 지난 오늘까지 하루의 휴식도 없이 이곳 사람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었다. 산골사람들의 잘살 방도를 찾아담화도 하시고 협의회도 여시고 몸소 산에 올라 농사작황도 가늠해 보시었다. 밤에는 또 밤대로 중요한 문헌집필을 하시느라 새벽까지 꼬박기 새우셨다. 수령님을 따라와 보좌하는 일군들은 그의 건강이 넘려되어 걱정이 이만저만 크지 않았다. 오늘은 마침 일요일이면서 장날이였다.

마을사람들은 이미전에 뜬 말려두었던 산나물과 약초들을 지고 수시리가 되는 시장으로 떠나갔다. 이날은 리내 일군들도 배외가 아니라고 한다. 리한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오늘은 우리도 곁따라 하루 쉬면서 호수가에나가 낚시질을 해보자고 졸랐다.

수령님께서서는 피로가 몰려 입술에 팔알같은 딱지가 앉은 리한무의 얼굴을 사려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으시었다. 이렇게 되어 모처럼 차례진 휴식일이였다.

리한무를 비롯한 수원들은 오늘 수령님을 모시고 산중의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게 된것이 더없이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낚시터에 앉아계시는 수령님께서서는 앞뒤에 병풍처럼 둘러선 산발들과 우중충한 골짜기들을 자주 바라보시며 거기에만 마음을 쓰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한손을 등허리에 얹고 생각에 잠겨 호수기슭을 거니시었다. 물가에 그이의 젊고 풍채렘렘한 모습이 비껴 물결따라 가볍게 일렁이였다. 중북머리 뽕약별이 수면우에서 자글자글 뽀물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왕골로 엮은 전이 넓은 둥글모를 뒤로 제껴쓰시고 깎아지른 왼쪽의 아찔한 바위층령을 올려다보시었다. 거기에 칙렁쿨이 엉켜붙어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생명력이란 참...》

수령님께서서는 혼자말씀처럼 외우시며 물넋에 바투 나앉은 산기슭으로 걸어가시었다. 그이께서 숲에 들어서시였을 때 한여름의 청춘기를 맞이한 나무들은 한껏 푸르려져 기름진 잎새들을 흔들었다. 산자락을 따라 아름드리 참나무숲이 뽕뽕이 들어서서 하늘을 가리웠다. 숲속은 습윤하면서도 싱그러운 버섯냄새, 새큼달달한 산딸기 익는 냄새와 흐드러지게 피어난 산꽃들에서 풍기는 향기가 기류처럼 차올려 기분을 상쾌하게 했다.

쭙— 쪼르르...비요— 비요— 뽕...

못새들이 서로 짹을 부르며 화답한다. 사르르— 삭삭삭삭... 하고 검은 청서들과 알락달락한 다람쥐들이 이 나무, 저 나무로 오르내리며 부지

런히 무엇인가 맑은 소리가 어울려 들려오고 저쪽에서 메돼지가 새끼들을 끌고가는듯 와스락와스락 가랑이를 뒤지며 멀어진다.

수령님께서는 숲속의 음향에 귀를 기울이시며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었다. 몇걸음 옮기시던 그이께서 넓게 훑타기가 진 참나무밑으로 시선을 옮기시었다. 거기에는 작년 가을에 절로 떨어져 썩어진 도토리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삼태기로 퍼다가 쏟아버린것 같이 한벌 깔린것이 새까맣게 껍데기만 남았다.

그이께서는 그앞에 다가가 허리를 굽히시고 이윽히 들여다보시었다. 얼마나 귀한 산중의 보물이 썩고있는가, 볼수록 아까웠다. 이곳에 오시여 깊은 산에 한두번만 들어가보지 않은 그이이시였다. 그때마다 진귀한 약초와 산나물들이 썩고있는것을 보시고 가슴아픔을 금할수 없으시였었다.

등뒤에서 풀뼉발 밟는 소리가 났다. 리한무가 다가오고있었다. 얼굴이 기름하고 키가 후리후리한 일꾼이였다.

《수령님, 물고기가 낚시줄을 자꾸 찹니다.》

수령님께서는 리한무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해 부르시었다. 그이께서는 무릎을 굽히고 앉으며 리한무에게 썩은 도토리무지를 가리키시였다.

《이걸 좀 보우. 우리가 산에서 일제와 싸울 때 이런 도토리를 많이 먹었지.》

《예, 도토리로 별별 음식을 다 만들어먹었습니다. 우리 작식대원들의 숨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랬단 말이야. ... 도토리는 좋은 건강식품이요. 도토리가공을 공업화하면 여러가지 질 좋은 식료품을 많이 만들수 있소. 그런데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봐도 산중의 보물들이 이렇게 썩고있소. 그러니 이 산속에서 해마다 절로 자랐다가 절로 썩어 없어지는 산나물과 약초들이 얼마나 많겠소.》

《산골사람들이 손이 모자라 미처 다 따내리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손이 모자랄수도 있겠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게 아니요. 일욕심이요. 산중의 보물을 다 따내리겠다는 각오가 부족한데 있소. 어제 협의회에서 사람들은 허근세로인은 산골농사를 잘 지으면서도 이런 도토리를 비롯한 산열매들과 약초, 산나물들을 모조리 거두어 수입을 크게 높인다고 하지 않았소. 허근세로인네처럼 하면 못 할게 없을거요.》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한무동무, 우리가 해방직후 양덕군 은하리에서 모든 산을 황금산으로 만들어 수입을 높이라고 한것이 벌써 칠팔년전이었소. 그렇지만 아직 산골마을들에서 〈황금〉을 말끔히 거두지 못하고 있소. 물론 그 사이 전쟁을 겪은데도 있지만 보다 기본은 모든 산을 황금산으로 만들기 위한 주인이 없는것이요. 일을 조직할줄 알고 이끌고 나

갈줄 아는 기수가 있어야 하오.》

《수령님, 이제 조직될 농업협동조합의 첫 관리위원장들을 똑똑한 사람들로 골라앉히면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관철될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문득 어제 있던 협의회가 다시금 돌이켜지였다.

이곳에 들어와 협의회를 여러번 했지만 어제 오후에 한 회의가 제일 소득이 컸다고 생각되시였다. 이 회의에서 수령님께서는 산골사람들의 생활을 추켜세울데 대한 강령적인 말씀을 하시였다.

모든 산을 황금산으로 만든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산나물이나 약초, 산열매를 따는것으로 황금산이 될수 있는가. 아니다,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해야 그것이 곧 황금산으로 된다.

여기서 첫째가 산골농사를 잘 짓는것이다. 농사와 함께 축산도 잘하고 동시에 산중의 보물을 다 따서 현금수입을 높여야 잘살수 있다. 이렇게 산을 다각적으로 리용해야 모든 산이 황금산으로 될수 있다.

《산골농사에서 중요한것은 래년부터 곡종을 바꾸는것입니다. 지금 주작으로 심고있는 조는 너무도 수확이 적습니다. 정보당 몇백키로 정도이니 어떻게 식량을 자급자족할수 있겠습니까.》

강냉이는 적어도 2.5톤, 잘하면 3톤(당시)까지도 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냉이가 밭곡식에서는 제일 수확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조대신에 강냉이농사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산골짜기마다 송아지들을 들이밀어 방목하면 가을에 그것들이 증소같이 커서 나온다면 국가에서 양도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여기엔 산들이 높고 험해서 각종 산열매들과 귀한 산나물, 약초들이 많겠는데 이걸 다 따서 현금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이렇게 모든 산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면 애로되는것이 많겠는데 말씀들 해보십시오.》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산골농사와 축산은 자기들이 하겠다며 산중의 보물을 따는데서는 애로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중에서 제일 곤란한것이 판로문제였다. 산열매나 산나물, 약초를 지고 수십리가 넘는 시장에 가서 파는데 이렇게 해서는 수입도 크게 높지 않고 더구나 힘들게 따내린것을 썩이기 쉽다고들 했다.

수령님께서는 그것도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앞으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국가에서 다 사주겠습니다. 읍에 산과실들을 가공처리하는 지방산업공장들을 짓고 수매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힘들게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썩일 녀려도 없고.》

협의회참가자들은 다들 싱글벙글 웃으며 박수를 쳤다.

협의회에서 수령님께서서는 이 고장에서 특별히 잘되는 작물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었다.

한 농민이 소심하게 고추가 잘된다고 했다. 중방마을 옷끝에 사는 허근세로인네가 고추농사를 잘해서 《부자》가 됐다고 부러웁게 말했다.

집도 큼직하게 새로 짓고 다른 집들엔 한채도 없는 이불이 두채씩이나 있고 게다가 이곳에선 꿈조차 꾸지 못하는 장관까지 하여 방안이 번들 번들 한댔다. 전쟁전에 아들을 정림군에 보내서 농업전문학교까지 마치게 했다고 한다.

장관을 하고 이불 두자리 놓고사는것이 이 산골에선 부자로 된단 말이지. 자식을 농업전문학교까지 보낸것도 그렇게 큰거고...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이러랴. 집까지 새로 지었다는걸 보면 돈을 좀벌기는 번 모양이다. 고추농사를 잘해서 수입을 얻었다는게 사실일까?

산골사람들의 펴이지 못한 생활을 추켜세우려면 어떻게든 현금수입을 높일 방도를 찾아줘야 한다.

산나물이나 산열매를 따는것도 적은 수입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족할수 없다. 축산은 얼마쯤 기일이 지나야 그 덕을 볼수 있다. 정말 고추가 잘돼서 이곳 사람들의 수입을 높여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고추는 국내수요도 대단히 높고 좋은 수출원천으로도 된다.

하지만 허근세소리가 나오자 그를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묵묵하고 있는데 좀 안다는 몇몇 농민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들조차도 허근세와 직접 상대는 해본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듣고 허령감을 비난했다. 리기주의가 많고 성질이 피뻘하여 다들 대상하기를 꺼려한다고 했다.

다른 농민이 그에 대해 덧붙였다.

《허근세는 도토리, 잣을 비롯한 산열매를 말짱 따다가 별의별것을 다 만들어 비싼 값으로 파니다. 도토리로는 소주를 뽑아 고개너머에 있는 중방탄광에 넘겨서 수입을 크게 얻는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체대돼온 그 집 아들도 제 아버지를 닮아 무슨 일이나 이악하게 잘한답니다. 고추농사도 이제는 아들이 더 잘한다고 합니다.》

《농업전문학교를 나왔다는 그아들 말입니까?》

《예, 아버지보다 농업지식이 더 많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 아들이 강녕이농사를 아주 잘 했다고들 합니다. 도농산구 담당지도원(당시)이 심으라는 조는 안 심구 강녕이란 심었다고 요사이 되게 추궁하는 모양인데 좌우간 농사는 잘했다고 합니다.》

허령감은 공상스럽게 살면서도 뼈심들여 일할 생각을 앓는 농군들을 만날적마다 욕질하고 그들을 건달뱅이라고 거들떠보지조차 않는다는것이 다.

《허근세는 워낙 눈이 나쁩니다. 한쪽눈은 아예

못 보고 이쪽 눈마저도 나빠서 안경을 끼지 않고는 한동리사람도 잘 가려보지 못합니다. 온상모판에 고추씨를 뿌릴 땐 근시안경, 란시안경을 겹쳐서 두개씩이나 낄니다. 그러면서도 고추농사를 얼마나 악을 먹고 하는지 근처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그래야 돈이 불어나는 모양입니다.》

농민들의 말만 듣고는 뭐가 뭔지 대중할수가 없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뒤따라선 리한무를 돌아보시며 넋지시 물으시었다.

《어제 협의회에서 허근세로인과 그 아들이 고추농사를 잘한다고 했는데 동무는 귀맛이 동하지 않소? 이젠 아들이 더 잘한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 고추농사를 잘하는건 허로인네 뿐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민들은 고추로 크게 수입을 얻는다는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무슨 돈을 벌겠는가구 하면서, 고추는 그저 양념감, 밥찜게감으로만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농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허로인의 인간됨됨도 아름답지 못하구...》

《그렇다고 한쪽 말만 듣고 사람평가를 서뽈리 할수는 없지.》

수령님께서 리한무와 이야기를 나누며 잣나무 숲을 지나 얼마쯤 더 걸어가시였을 때였다. 저쪽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개울가에서 웬 청년이 푸푸 소리를 내며 세면을 하고있었다. 이무더위에 땀을 들이는것 같았다.

그 청년은 허리에 찻던 타올수건을 뽑아 얼굴을 훔치며 너럭바위우에 벗어놓은 보집앞으로 향했다. 수령님께서 오솔길을 따라 그쪽으로 가까이 가시였을 때 청년은 무심히 뒤돌아보았다.

순간 낮빛이 굳어지며 두눈이 커졌다. 분명 자기가 잘못보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하듯 잠깐 눈길을 허둥거리다가 얼른 자세를 바로했다.

벌어진 옷단추부터 분주히 채웠다. 이어 그는 이꼴리듯 몇걸음 마주 달려와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수령님!》

격동으로 북받쳐 오른 청년의 가슴은 세차게 오르내렸다. 수령님께서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인사를 받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청년에게 어디서 사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수령님, 저는 중방리 옷마을에 사는 농민입니다. 군대에서 체대된 후 아버지와 함께 금년 첫째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 체대군인이구만.》

그이께서는 체대군인이라는 말에 더 친근감을 느끼며 그의 앞으로 다가가시었다.

《그래 어느 부대에서 싸웠나?》

《수령님, 4사 18련대에서 싸웠습니다.》

《음— 4사 18련대라... 잘 싸운 부대지, 대전해방전투에서 용맹을 떨쳤어. 몸은 일없소? 부상당한데 없구?》

《크게 상하진 않았습시다.》

《다행이구만, 이름을 어떻게 부르오?》

《허동석이라고 합니다.》

《허동석?》

그이께서는 《중방마을에 허씨마을이 있는건 아닌가?》하고 혼자말씀처럼 되이시며 다시 물으시였다.

《같은 중방마을에 사는걸 봐서 혹시 허근세로인을 알지 않소? 성씨도 같은데...》

허동석은 싱긋 웃었다.

《수령님, 그 로인은 저의 아버지집니다.》

《허—그렇소?》

수령님께서는 어쩐지 구면처럼 반가와 제대군인청년의 끼끗한 모습을 다시 바라보시였다. 허동석은 둥그스름한 얼굴에 키가 늘씬했다. 두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썹이 짙은것이 남자답게 잘생겼다.

무게가 느껴지는데다 결괏있어보여 더 호감이 가는 청년이였다.

《동석동무, 우린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있소. 다른 집들에선 고추농사를 잘하지도 못하거니와 그것으로 무슨 현금수입을 얻겠는가 하고 해볼생각조차 안한다는데 유독 아버지만이 잘한다고 해서 이름을 머리에 새겼소. 동석동문 농업전문학교를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좋구만. 듣자니 이젠 동석동무가 아버지보다 고추농사를 더 잘하고 강녕이농사도 잘한다고 하더구만, 그게 사실이요?》

《뭐... 그저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을 아들이 따라배우는건 좋은 일이지.그래 어디로 가는 길이요?》

《오늘이 장날이여서 이걸 좀... 다른 일도 있어 겸사해서 떠난 길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상당히 큰 보침을 보시며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이게 뭘데 이렇게 짐이 크오?》

《마른 고추와 산나물들이여서 짐은 크지만 무게는 겁석합니다.》

《여기서 수십리를 걸어갈려면 먼길인데 좀 늦었구만, 일찍 떠났어야 했을걸...》

《저— 집에 일이 좀 생겨서...》

허동석은 고개를 숙여보이며 말소리를 얼버무렸다.

《일이 생겼다구? 무슨? ... 혹시 늙은 아버지가 앓는건 아니요?》

《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저— 도농산국 담당지도원이 리내 몇몇 일군들의 말만 듣고 우리 집에 무턱대고 문제를 세워서 그것때문에 좀...》

수령님께서는 한손을 등허리에 얹으며 신중한 낫빛을 지으시였다.

《도농산국 지도원이 동무네 집에 문제를 세운다구?》

아래입술을 깨물고있던 동석은 자기가 쓸데없는 말을 서뿔리 해서 그이께 근심을 드리지 않는가 하여 가슴이 한줄만 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어 아침에 있었던 일을 요약하여 알려드리였다.

그가 일찍 조반을 먹고 장에 가려고 하는데 리위원장이 낯선 사람을 데리고 안마당으로 들어왔다. 이 집 젊은 세대주가 시장에 떠나기 전에 만나야겠기에 서둘러 온다며 도농산국에서 주작물 면적에 대한 료해를 내려왔다고 했다.

같이 온 그 사람은 도농산국 이곳 군담당지도원이라고 소개했다. 쌀쌀한 어조로 이 집에서 금년농사의 주작물로 조는 한평도 안 심고 강녕이만 다 심은게 사실인가고 따졌다.

리적으로 허동석을 비롯하여 몇집이 조를 심으라는 농산국의 지시를 외면하고 강녕이만 심었다, 이건 우의 지시에 대한 도전행위다 하며 단단히 문제를 보겠다고 울려했다.

동석은 사리정연하게 맞섰다.

《여보시오. 농민으로서 수확이 적은 조대신에 소출이 높은 강녕이를 심었는데 그게 무슨 죄란 말이요.》

도농산국지도원과 한참 언쟁을 했다. 약이 오른 그 사람은 벌금을 약차하게 물리겠다고 군인민위원회 농산파에 도농산국 과장이 내려와 있으니 거기 가서 더 해보겠으면 해보라고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허동석은 장에 갔다오는길에 군에 들러 도농산국과장도 만나볼 결심이라고 했다.

동석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 가버이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동석동무도 산골농사에서 주작물은 조가 아니라 강녕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구만, 그래서 금년농사를 강녕이로 지었던 말이지?》

《예, 강녕이가 조보다 훨씬 수확이 높습시다. 그래서 우의 지시를 거역했다는 압력을 받을 각오를 하고 강녕이농사를 지었습니다.》

(겉불안이라더니 사람이 주견있구 똑똑하군.)

《그래 강녕이농사 작황은 어떻소?》

《예상수확이 평당 1.5키로그램이상 더 걸립니다. 이것은 정보당 4.5톤이 나는것으로 됩니다. 잘하면 5톤도 낼수 있습니다.》

《그건 대단하구만. 역시 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달라. 강녕이농사를 아주 잘했소.》

수령님께서는 몹시 만족하여 허동석의 실팍한 어깨를 두드려주시였다.

《동석동무, 주작물 곡종문제라면 더 룬합게 없소. 걱정말라구. 우리는 동무처럼 산골농사를 잘하는 농민들과 많이 담화해보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래년부터 주작물을 조대신 강녕이로 바꾸기로 결정했소. 바로 어제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 곧 도농산국에도 지시가 내려갈거요.》

《그렇습니까?!》

허동석은 너무 기뻐 두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추고 했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장을 잘 보아오라고 하시였다. 동석은 그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벼운 걸음으로 나는듯이 산길을 달렸다.

허동석은 천만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는 영광을 지닌데다 강냉이농사를 잘했다는 칭찬까지 받은 무상의 행복감으로 하여 온몸이 뚝뚝 뜨는듯 했다. 내가 이런 행운을 지니다니... 어느것이 길이고 풀밭인지 가려지지 않아 무작정 덤불숲을 헤쳐나갔다.

수령님께서는 동석의 뒤모습을 바라보시며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동석동무를 보니 허근세로인도 자기만 아는 <리기주의령감> 일것 같지 않구만. 동무보기엔 어평소?》

리한무도 허동석이가 똑똑한것 같다고 했다.

《첫뉘인데도 그 청년이 눈에 듭니다. 생기기도 잘하고...》

《눈에 든다는건 마음에 든다는 소리인데... 나도 같은 생각이요. 아들을 먼저 봐서인지 아버지도 만나보고싶구만. 우리 오후에 허근세로인을 찾아가 보자구.》

《예? 그 로인까지 말입니까? ... 이곳 사람들이 허로인은 만나봐야 큰 소득이 없을거라고들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소. 사람평가는 꼭 체눈으로 보고 해야 하오.》

수령님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의 뒤를 따라가는 리한무의 생각은 깊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수령님께서 쉬시도록 하자고 낚시터에까지 모시고 나왔지만 그이께서는 지금껏 물고기를 낚은게 아니라 산골사람들의 생활을 껴이게 할 하많은 방도를 찾는데만 더 마음쓰고계셨다는것을 이제야 알게 되였다.

이날도 수령님께서는 휴식일이 아니였다.

×

승용차는 우둘투둘한 돌길을 따라 차체를 흔들며 소리없이 달리였다. 열어놓은 차창밖으로 무성한 수림들과 천길 절벽들, 계곡을 씻으며 주알 주알 구울러내리는 벽계수들이 엇바꾸어 흘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방금 들리셨던 곳에서 있는 일들을 되새겨보고 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늦은 점심을 치르신 후 허근세로인을 만나러 떠나시였다.

가시는 길에 이곳 마을 중학교에 들려 산골학교의 교육실태도 알아보시고 풀먹는 집짐승들인 토끼와 염소를 많이 기르고있는 젊은 농민의 집

에도 들리시여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 벌써 해는 서산너머로 사라지고 저녁노을마저 스러져갔다.

차가 잣나무 우거진 고개길을 넘어 내려갔을 때였다. 골바닥의 길가너를 따라 몇채의 살림집들이 장기쭈처럼 널려있었다. 방금이라도 쓰러질것 같은 집들이였다. 지지리 가난한 산골촌때가 그슬음처럼 찌들대로 찌들은 고장이였다.

집들을 아픈 눈길로 내다보시던 수령님께서 곧 차를 멈추시였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리한무는 얼핏 손목시계를 보았다. 저녁노을도 꺼지고 땅거미가 기여드는데 또 이곳까지 들리면 너무 늦을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수령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길가집들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였다. 리한무는 서둘러 그이의 뒤를 따랐다.

그이께서 가까운 첫집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시였다. 안뜨락에 락엽과 검부레기가 널리고 문짝들이 떨어져나간 빈집이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텅빈 집은 전쟁때 폭격으로 이렇게 찌그러진것 같았다.

수령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뒤집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낮빛은 무거우셨다. 그이께서 대문안으로 들어서시자 부엌앞의 판가마 아궁이에 얼굴을 박고 불을 후후 불던 어린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일어덥살쭈 된 단발머리소녀애가 울통해진 눈길로 대문가를 내다보았다. 몹시 놀란듯 한 낮빛이였다. 잠시 죽었던 장작불이 다시 살아올라 활활 타오르자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새별눈을 빗내이며 얼른 한발 나섰다. 허리를 깊숙이 숙여 그이께 얄전스레 인사를 드리였다. 목소리도 또랑또랑했다.

《아버지원수님!》

수령님의 눈길은 소녀의 맨발부터 먼저 쓰다듬으시였다.

《오, 네가 발을 벗고도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소녀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신 그이께서는 다정히 키를 낮추시고 물으시였다.

《우린 지나가다 들렀다. 아버지 계시냐?》

《아버지, 어머니 시장에 갔습니다.》

소녀는 활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장에... 시장엔 뭘 사러갔냐?》

《말린 송이버섯이랑 도라지랑 팔아서 비누랑 고무신이랑 사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수령님께서 소녀의 맨발을 또 내려다보시였다.

어린것은 부끄러운듯 발을 모아짚고 서서 발가락을 오무작거리였다. 그이의 낮빛은 흐려지셨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거미줄이 걸린 처마밑으로 어둡시그레한 부엌안을 들여다보시였다. 흙으로 쌓은 부뚜막에 작은 쇠가마가 두개 걸려있고 뒤벽에는 바가지가 서너개 오롱조롱 매달려있었다.

이쪽 벽에 못을 박아 고정시킨 선반우에 이빠

진 사발이 몇개 포개엿혀있었다. 그밑의 웅배기에 담겨져있는 데친 산나물은 저녁에 먹을것인듯 싶었다.

무더운 때라 열려져있는 출입문으로 방안도 살펴보시였다. 흙벽에 종이 한장 바르지 못했고 바닥에는 군데군데 판이 나 맨구들이 보이는 흰 멍석이 깔려있었다. 뒤바람벽밑에 시령을 매고 그 위에 크지 않은 껌짜이 하나 땡그라니 놓여있었다. 이게 가장집물의 전부였다.

주인이 담배를 좋아하는듯 한켠구석에 나무껍질로 엮은 동그란 바구니에 잎담배만이 수북했다.

마당에는 집짐승 한마리 보이지 않았다. 개라도 한마리 있음직한데 그마저 없다.

돌러볼수록 한숨이 나가는 집이었다.

수령님께서는 판가마앞에 이르시여 술이 벌렁 벌렁 끓는것을 굽어보시였다.

《저녁을 짓나?》

《예—》

《용쿠만, 어린게... 어디 좀 열어볼가?》

소녀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이였다.

그이께서는 뜨거운 술꼭지를 행주로 감싸쥐고 들어보시였다. 김이 확 풍겨올랐다. 가마안에서는 썰어넣은 감자와 시꺼먼 가루같은것이 익어가고 있었다.무슨 가루인지 보시고도 가늠이 가지 않았다.

《범벅을 끓이냐?》

《피범벅입니다.》

《피? 피쌀은 하얀데.》

소녀는 피를 껌데기채 가루낸것이여서 이렇게 껌다고 했다. 껌질채 가루를 냈단 말이지, 그 맛이 얼마나 깔그러울가, 그러니 썰어넣은 감자에 버무려 먹겠구나.

수령님께서는 침중한 낮빛을 짓고 이 산골에서 피는 어디서 나는가고 물으시였다.

소녀는 한손을 들어 집아래쪽을 가리켰다.

《저기 개울창 기슭밭에 물이 자꾸 차서 아버지가 거기에 피를 심었답니다.》

《응, 그랬었구나.》

가난이 아이를 어른 만든다더니 어린 소녀가 부모의 세간살이 내막을 말짱 알고있었다.

《애야, 이 앞집은 언제부터 사람이 살지 않나?》

《봄에 운상군이라는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별방지대로 떠나갔구만.)

《이제 봉남의(이사간 집 아이)아버지가 금년 겨울 지나서 우리도 운상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친척이냐?》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러는데 봉남이네와 우리 저기 산너머에서 살 때두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왜놈들이 발전소를 앗히면서 이리루 다 내쫓았답니다. 우리 집이랑 봉남이네 집이랑 지금도 물속에 잠겨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들은 수물구역에서 쫓겨난 피난민들이었다.

《애야, 늘 이런 피범벅으로 살아가냐?》

《아닙니다. 대여곡이 떨어져서...》

《대여곡을 내주지 않냐?》

《리에서 미처 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교통이 불편하니 주는 쌀도 실어다 먹기 힘든 모양이다. 대여곡이란 국가에서 절량농민들에게 선대해주는 식량이다. 알아보니 이곳에서 대여곡을 타먹지 않은 집은 불과 몇 안되었다.

식량을 자급자족 못하는 군이다나니 어쩔수없이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했다.

그이께서는 달리는 차안에서도 맨발 벗은 소년의 두발이 자꾸 눈앞에 밟혀와 가슴이 저리였다.

그 애의 조갑지만 한 발에 꽃신발 한켠레 신겨주지 못하다니.

옛날부터 이곳 천산군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메산골이여서 사람들은 대를 두고 힘겨운 가난과 싸워야 했었지. 천대와 멸시를 숙명처럼 감수했다.

팔자타령으로 한숨을 쉬고 이곳에 와서 첫 울장을 박은 조상들을 원망하며 눈물을 밥먹듯 하며 살아왔다. 게다가 왜놈들이 발전소를 앗힌다고 돌레의 거리 400리안에 들어있는 술한 사람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내쫓아 생활의 터전들을 잃고말았다. 다들 감자와 도토리, 풀뿌리를 캐먹으며 죽지 못해 살아왔다.

해방후에야 이곳 사람들의 생활도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산골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현물세마저도 면제해주었다. 생활의 꽃이 피여날만 할 때 미제침략자들이 침략전쟁을 일으켜 밀천발은 이들의 살림살이를 또 짓밟개놓았다. 하여 어느 집에 가보아도 생활의 기쁨기는 고사하고 호구지책마저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다 큰문제가 아니다. 경제로대가 빈약하고 생활이 어려운것은 타개해나가면 된다.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속에서 빨리 벗어나는가 못 나는가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사람이 문제다.

경제생활의 락후성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와도련관이 있는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보고 제일 안타까운것이 산골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정신세계의 락후성이었다.

화전민 근성으로 하여 되는데로 살아가는데 습관되어있었다.

자기 손으로 살길을 개척하자는 생각보다 땅이나쁘고 조건이 나빠 국가에서 도와줘야만 살수 있다는 의존심이 더 많아 할수 있는것도 안하는 것이 태반이었다. 이것을 없애야 산촌에 기적이 일어날수 있을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점도록이런 생각에 잠겨계시였

다.

오시는 도중 여러곳에 들리다나니 그이께서 허근세로인네 집에 당도했을 때는 마당가에 어둡이 깃들고있었다.

집뒤의 풀밭에 차를 세우신 그이께서 허근세의 집주위를 둘러보시었다. 《리기주의자》령감이 돈을 벌어 새집까지 지었다더니 정말 덩실한 3칸 돌기와집이었다. 이 고장 사람들이 다들 이만 한 집이라도 쓰고살면 얼마나 좋을가.

수령님께서 리한무와 함께 집대문앞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리한무가 주인을 찾자고 하는데 이 집에서는 깔개를 깔아놓은 안마당에 밥상을 펴놓고 앉아 저녁을 먹는중이었다. 허, 이런... 실례를 할번 했군. 그이께서 발길을 돌리려 하실 때 인적기를 느낀 주인이 어두워오는 대문가를 내다보았다. 허로인은 웬 간부들이 온것 같은 짐작이 들어 술갈을 놓고 대문밖으로 나왔다. 그는 허리 굽혀 인사하기 바쁘게 수령님의 한팔을 이끌었다.

《어서 들어가십시다. 보아하니 우리 집에 오신 높은 간부어른 같은데 저녁을 먹으론 뭐랍네까.

오늘따라 로친이 저녁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허근세로인택이 옳지요?》

《예, 예— 제가 허근세외다. 근데 어데서들 오셨는지?...》

《평양에서 왔습니다.》

《어이구, 평양에서 이 벽촌에 수고로이 오셨습시다.》

《로인님이 이렇게 집도 잘 짓고 더구나 고추농사를 잘한다고 해서 그 비결을 좀 알자고 왔습시다.》

《저런! ... 산골령감의 고추농사경험을 알자고 오셨다니 이런 희한한 일도 있소이까. 한동네에 사는 농사군들도 그걸 알자구 우정 찾아오는이가 없는데 큰 도시에 사는 간부님께서 오히려 고추농사에 관심이 크신걸 보니 이것참, 이만저만한 귀빈이 아닌가 봅시다. 자, 어서 들어가십시다.》

허근세는 앞장서 대문안으로 들어가며 로친에게 평양에서 귀한 어르신이 왔다고 떠들었다. 안 늙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감히 마주보지도 못한채 이마가 발끝에 닿도록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얼른 물러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허근세는 키가 자그마하고 몸집이 팍팍 여무진 알차게 생긴 늙은이었다. 허연 머리가 반나마 벗어져 이마가 반들반들 빛이 났다.

아래턱과 코끝이 뾰죽한것이 정말 성미가 록록치 않음을 엿보이게 했다. 아직 젊은이들 같이 청높은 목소리에는 마디마디 기백이 있었다.

《평양손님들이 때때추운것 갈수다. 오늘 저녁 로친이 터발에 심은 꽃강냉이를 삶았는데 맛 좀보시우.》

수령님께서 웃으시며 우연히 왔다가 주인택 저녁까지 나누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었다.

《원, 무슨 말씀을... 조금도 미안해할게 없수다. 꽃강냉이가 별것은 아니래두 도시에선 그것두 귀물일텐데... 이곳 꽃강냉인 별나게 더 달구 향기로워서 이 아근에 소문이 났수다.》

《그건 참 좋은거군요.》

《왔던 길에 실컷 잡수시우. 자— 어서 나왔으라구요.》

허근세는 손세를 쓰며 자리를 권하고는 부엌으로 달려간다. 그 가분가분하고 날랜 거동이 재미있어 수령님께서 시종 웃으시었다.

한편 리한무는 딱한 정황에 부딪쳐 기름한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띄웠다. 좀더 빨리 왔더라면 일없었을걸... 이 집에서 오늘따라 저녁을 늦게 지을건 뭐람.

이 집 주인인 허로인이 저리도 극성이니 이런 야단이 어데 있는가. 억지로 말릴수도 없고... 아니, 만류해야 한다.

결심을 다잡은 리한무가 로인의 뒤를 따라 부엌으로 가려는것을 수령님께서 얼른 붙잡았다.

그이께서 가만히 일러주시었다.

《그러지 마오, 로인이 우리가 왔다고 저리도 기뻐서 오금에 바람이 들었는데 그걸 마다하면 얼마나 섭섭해하겠소. 왔던 길에 꽃강냉이나 한이삭씩 먹고 가자구.그래야 로인이 기뻐하오. 자, 앉소.》

수령님께서 멍석깔개에 먼저 앉으시었다. 리한무도 할수없이 따라앉았다.

《이 집에 와보니 동석동무가 어머니쪽으로 앉은것 같습니다.》

《그런것 같소. 틀은 어머니가 더 좋구만.》

《동석동문 아직 시장에서 돌아온것 같지 않습니다.》

《그 먼길에 늦어 떠났으니 웬걸 벌써 오겠소.》

허로인이 껌질을 말끔히 벗겨서 결은 정갈한 짜리채롱에 시장에서 사온듯싶은 백로지를 깔고 그안에 탐스럽게 큰 황색마치종 꽃강냉이들을 그득히 담아왔다. 거기서는 구수하면서도 달달한 김이 풍겼다. 아구리 넓은 백자기 그릇에 따끈한 호박장을 담아 곁들여 내왔다.

상앞에 마주앉은 허로인이 수선스레 권했다.

《식기 전에 어서들 들어보시우.》

《거 강냉이가 실하게 잘됐습시다.》

《땅은 속이지 못합네다. 거름을 듬뿍이 깔구 심으면 산장밭이라도 이렇게 잘 되는구먼요.》

팔뚝처럼 큰 강냉이이삭들을 보시니 문득 아침에 만났던 허동석의 말이 떠올랐다. 정당 4.5톤을 넘게 낼수 있다고 했지. 강냉이농사를 이렇게 잘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택에선 금년에 조대신 강냉이농사를 지었다던데 다 이렇게 잘됐습니까?》

《그러므요. 그런데두 글썽 수확이 적은 조대신 강냉이를 심었다구 해서 도농산국 담당지도원이 벌금을 물리겠다구 욱욱 하질 않습네까.》

《우리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는 허동석동무를 먼저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벌써 만났다고요? 허허, 동석일 앞서 만났더니 더 반갑습네다.》

《로인님, 어떻게 돼서 조농사대신 강녕이농사로 넘어가게 됐습니까?》

《이 늙은건 그런 용단을 못 내렸습니다. 또 강녕이농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요. 동석이가 한 3년동안 미국놈들과 싸우느라구넵은 전장을 밟아보고 오더니 속통이 여간만 커지지 않았수다. 그 사람이 소출높은 작물을 심는건 농민의 응당한 본분이라구 하면서 누가 뭐라건 곳곳이 강녕이농사를 고집합디다. 농전을 나왔으니까 기술농사물게두 환하구요.》

《잘했습니다. 아들을 공부시킨 보람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매년부턴 주작물 곡종을 강녕이로 바꾼다는것을 말씀해주시였다. 로인은 더없이 기뻐했다.

《그것 참 속이 후련한 소식이외다. 이젠 도농산국 담당지도원이 홍야봉야 못하겠군. ... 자—어서 식기 전에들 드시우. 참, 이 호박장도 좀 들어보시우. 얼룩얼룩한 맥장구(개구리)호박인데 애호박이 돼서 맛이 유별합네다.》

《거 참 호박장이 먹음직스럽군요. 여기에 탕쳐넣은게 됩니까? 가져갈은데...》

《예 예, 워낙 호박장엔 별방에 있는 참게를 넣어야 별맛입네다. 여기엔 그런게 없어서 썩대신 닭이라고 가재를 탕쳐넣었지요. 우리 고장 왕가재는 지스토마가 없구 맛이 좋아서 옛날부터 이름높아 궁성안에서두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 왕가재를 <진상품> 으루 올려갔습니다.》

왕가재를 탕친데다 풋고추를 승덩승덩 썰어넣고 산마늘을 찢어넣은 애호박장은 구수하면서도 맵짭하고 달콤한 맛을 돋구어 이 지방 토색음식의 별미를 손색없이 갖추고있었다.

수령님께서 맛이 좋다고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 리한무를 던지시 보시며 무엇인가 아쉬워하는듯 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수령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한무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이께서 분명 허로인한테 한잔 대접하고싶어하신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다. 아까 수령님께서서 허로인을 찾아 떠나실 때 혹시 필요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예견성있게 한병 건사해두었던 한무였다.

한무가 대문밖으로나가 차에서 술병과 사기잔을 가지고 들어오는것을 보신 수령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흔자말씀처럼 뇌이시였다.

《그런것까지 미리 준비해뒀됐구만. 다행이요.》

수령님께서 늙은이에게 손수 술을 부으시였다.

《로인님, 우리가 저녁을 거저 얻어먹을수야 있습니까. 애호박장이 맛있으니 한잔 받쳐서 하십시오.》

순간 허근세는 놀라다 못해 당황하기까지 했

다.

《하— 이거... 인사불성이로군. 집주인이 먼저 내왔어야 하는건데... 주인이 손님것을 얻어먹다니요, 산골내기라는게 내남없이 눈치가 발바닥이외다.》

로인은 두손바닥을 누런 베등거리 자락에 쓱쓱 문대고나서 황공스레 잔을 받았다. 잔을 들면서도 미안함을 이기지 못해 몸돌바를 몰라했다.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예로부터 늙은이에게 술 한잔 부어드리는건례의가 아닙니까.》

《그렇게 여겨주시니 촌놈은이 마음두 좀 가라앉는것 같습네다.》

이어 허근세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주르르 달려갔다. 내외간이 뭐라뭐라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로인이 그런 촌스러운것을 어떻게 평양어르신께 대접하는가고 하며 말리는것 같았다. 그래도 령감이 우기자 어쩔수없이 수그러드는듯했다.

허로인이 술병과 사기주전자를 량손에 갈라쥐고 급히 안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수령님과 리한무앞에 잔을 놓고 술을 부었다.

《이것참, 대접할만 한것이 못돼서... 숭보지 말구 한잔 들어보시우.》

《그게 무슨 술입니까?》

《이 산골에 흔한게 도토리넵네다. 우리 로친이 그걸루 소주를 담갔는데 어르신께서야 이게 뭐입에 붙겠소이까.》

《그렇습니까.》

수령님께서 로인이 부은 잔을 받아 맛을 보시였다. 그이께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였다.

《로인님, 도토리술을 참 잘 뽑았군요. 술맛이 아주 좋습니다.》 허근세는 기뻐하며 더 들라고 권했다.

《술맛이 좋으니까 가까운 중방탄광에서도 이 집술을 가져가는 모양이군요.》

《허허, 그런것까지 다 아시누만요. 탄광에서 로보물자로 쓰느라고 좀 가져갑네다. 아직 읍에 술을 뽑는 공장이 없으니까요.》

어느덧 안마당은 더 질게 어두워졌다. 이때 안로인이 유리등피를 썩은 남포등에 불을 켜가지고 마당가로 나왔다. 허로인이 그것을 받아 밥상 한쪽에 올려놓았다. 사위가 환하게 밝아졌다.

그 순간 아버지수령님의 빛나는 모습을 마주보던 허근세는 갑자기 얼굴빛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자기가 무슨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예감이 번개처럼 뇌리를 치는듯 눈길을 허둥거렸다.

어허! 년중에 군인민위원장도 한번 찾아오지않는 이런 빨빠진 벽촌에 우리 수령님께서 소문도 없이 몸소 오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두번 세번 다시 우러르고난 허로인은 별안간 두손을 모아잡고 그 자리에 꿇어엎디였다. 부복

하고 아토피는 그의 목소리는 무량한 감개에 젖어 흐느낌처럼 떨리었다.

《수령님!... 이 미련한 촌백성을 용서해주십시오. 아무리 날이 어둡고 눈이 나빠도 제 집까지 찾아주신 수령님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한 촌바우가 무슨 백성구실을 하겠습니까. 수령님이신줄도 모르고 무엄스레 아무 말이나 탕탕해서 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주름진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수령님께서서는 허로인의 두손을 잡아일으켜주시며 혼연히 미소를 지으시었다.

《로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이께서는 허근세의 손을 따듯이 감싸주시며 하던 말이나 계속하자고 친절하게 말씀을 이으신다.

《그래 로인님, 이 주전자의것은 또 무엇입니까?》

로인은 그이의 소탈한 풍모에 감복하여 마음을 인차 진정했다. 이어가라앉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씀올렸다.

《이건 산딸기를 따다 담근 딸기즙인데... 꽤 잡술만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새크무레하면서도 달달하고 감칠맛 있는 딸기즙은 발그스름한것이 색깔까지 고와 눈맛부터 돋구었다. 맛을 보신 그이께서 참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시었다.

《로인님, 이곳에 산딸기도 많이 납니까?》

《그런건 무진장합니다. 도토리, 잣, 머루, 다래, 짙광이, 오미자 등 산열매 같은건 디디구 쌓였습니다. 거기다 갖가지 산나물, 약초... 그런것만 다 따내려두 수입이 대단합니다.》

《로인님넌 산열매를 많이 따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토리술도 만들고 딸기시럽까지 뽑는걸 보니 아주 잘하십니다. 다들 산열매를 따는데 욕심을 냅니까?》

《예— 잘하는집들이 많은데 게으르구 등한한 집들도 있습니다. 어떤 집들에선 지내 많이 따서 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은 멀구 파는건 더디여서 까딱하단 썩입네다.》

《앞으로는 썩일 일이 없을겁니다. 읍에 산열매 가공공장들을 지어힘들게 따내린 아까운것들을 다 국가에서 사주겠습니다. 팔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로인은 몹시 기뻐했다.

《그렇게만 되면야 마음놓고 더 많이 딸수 있습니다. 멀리 시장에 가지 앓구 앓은 자리에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국가에서 사주도록 하겠노라고 다시한번 더 확인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 고추에 대해 물으시었다.

《로인님, 이 지방에 고추가 그렇게 잘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천산고추는 당당히 큰소리

칠만 합니다.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니꺼니요.》

수령님께서서는 어떤것이 좋은가고 각근히 물으시었다. 로인은 고추소리가 나오자 절로 신명이 나서 마디진 손가락을 꼬아 내려가며 력설했다.

《우선 좋은게 고투리가 큰겁니다. 다른 고장것보다 두세배는 큼니다. 어른 한뼘이 보통 20센치 메터인데 그 이상 큼니다. 외할머니 떡두 커야 사먹는다는데 덮어놓고 크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그 고추가 살이 두텁구 기름기가 많아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영양가가 높아 약효두 크구요. 그다음엔 수확이 많습니다. 생육조건대루만 만족시켜주면 뎡가지(고추)나무 하나에 고투리가 수백개씩 달립니다. 뎡가지대 키가 앞가슴까지 올라옵니다.》

《그렇습니까?》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었다. 리한무도 먹던 이삭강냉이를 든채 로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로인님,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럼 그 고추의 결함은 무엇입니까?》

《사실 결함은 없습니다. 다른 고장 사람들이 비하해서 하는 말이 우리 천산고추가 맵기가 좀 덜하다는겁니다. 꽃당추처럼 폭폭 찌르지 않는다구 허는 소린데 그렇게 허뿌리를 뽑을 정도로 매운건 건강에두 해롭다고 합니다.》

《이 호박장에 넣은 꽃고추가 바로 그 고추겠지요?》

《그러므로. 그건 그중에서두 제일 맵지 않은걸루 골라서 넣은겁니다.》

《그렇다면 맵기에서두 손색이 없겠습니까. 이 천산고추가 수확이 높다고 했는데 평당 얼마나 납니까?》

《대체루 800그람은 넉근히 납니다.》

수령님의 얼굴에 저으기 놀라움이 어리시었다. 흥분으로 하여 웅글은 목소리가 더 폭넓게 울리였다.

《그럼 정보당 고추가 2톤 400키로그램이나 난다는 소리인데 그건 대단한 수확이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잠간 말씀을 끊고 혼사소리로 《바로 이것이구만.》하고 못내 기뻐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었다. 이어 고추 한키로그램값과 버 한키로그램값을 대비해보시고 힘주어 말씀을 이으시었다.

《별방지대의 논에서도 아직은 정보당 버를 4~5톤밖에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2톤 400키로그램이나 납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현금수입면에서 고추는 버에 비해 3배나 더 높습니다. 강냉이와는 아예 대비할바도 못되게 높습니다.》

허근세는 별안간 춤추듯이 무르팍을 들썩이였다.

이어 열싸게 말씀올린다.

《웁습네다, 웁습니다. 어찌면 그리도 농사물계

가 환하십니까?)

《로인님, 참말 기쁩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런것을 찾지 못해 애썼는데 오늘에야 찾았습니다. 고추를 많이 심으면 수입이 높아져 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을 훨씬 개선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이 아무리 궁벽한 산골이라든 고추만은 큰소리칠수 있습니다.》

《로인님은 고추농사를 잘해서 새집도 짓고 이부자리도 장만하고 아들을 정림군에 보내서 농업전문학교까지 마치게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들은 못하는 고추농사를 로인님만 그렇게 잘합니까?》

《무슨 일이나 직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아야 하구요. 고추농사는 워낙 우리 부친때부터 잘해왔습네다. 제가 젊어서 국한문을 조금 깨친덕에 그 밑천을 가지구 정림군 같은 큰 읍거리에 나가 농업부문 책들을 사다가 부지런히 읽구 연구를 했습니다. 그 덕에 묘리를 알아가지구 더 수확을 높일수 있었습니다.》

공부도 애써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걸 보니 보통로인이 아닌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로인의 얼굴을 한번 더 일별해보시였다.

《그럼, 거 혼자만 하지 말고 로인님이 마을사람들한테도 다 배워줬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배워준단 말씀입니까?》

허로인은 잠간 무엇인가 결심하는듯 하더니 서슴없이 솔직한 말을 털어놓았다.

《제 수령님께 사실대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나를 보고 <리기주의령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밭농사, 고추농사, 짐승기르기, 산열매따기 등 제 오륜을 깎아 밤낮 일한덕에 가세가 얼마간 퍼졌는데 그걸 혼자만 잘살겠다고 하는 리기주의라는겁네다. 누가 저들더러 돈을 벌지 말라고 손목을 붙잡았게 그런 시비들을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당에서는 농사도 잘하고 짐승도 많이 기르고 산열매도 기껏 따서 수입을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잘살라고 하는데 몇몇 건달군들이 제 일하기는 싫구 남 잘 버는건 배아프구 허니까 괜히 심술을 떨지요. 게으른 주제에 소갈머리란...》

수령님께서 너그러이 웃으시며 허를 차는 허근세를 따듯이 위로해주시였다.

《로인님, 고정하십시오. 아마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겠지요.》

그래서야 허근세는 낯색을 고치며 수령님앞에서 버릇없이 그런것 같아 면구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안늬은이가 부역문으로령감을 내다보며 아무데서나 성깔을 부린다고 안달아하다가 돌아섰다.

안로인은 령감과는 대조되게 키가 크고 몸도 뚱뚱하고 얼굴이 둥실한것이 대범스러워 보였다.

《그래 로인님, 마을사람들한테 고추농사의 비결을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말이지요?》

허근세는 자세를 바로하고 앉아 입을 열었다.

《수령님, 산골사람들속엔 저같은 놈을 포함해서 아직 화전민근성이 남아있습니다. ...》

로인은 긴긴 겨울동안에 사냥이나 다니고 마을돌이를 하며 놀음놀이에 술이나 마시다가 늦은봄이 돼야 산에 불을 지르고 곡식을 심어먹던 버릇이 일부 사람들속에서 없어지지 않아 꾸준히 고추농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추농사를 하려면 땅얼기전에 고추심을 온상 자리를 양지바른 곳에 닦아놓고 숯광기름을 짜서 종이를 사다 유지를 만들어써워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얼지 않게했다가 몇절기를 앞당겨 고추씨를 뿌려야 한댔다. 모든 공정을 기술규정의 엄격한 요구대로 한다는게 말이 쉽지 더구나 개인들이 한다는건 보통 일욕심과 끈덕진 연구심이 없이는 못한댔다.

《아직 눈이 강산같이 쌓여있을 때 고추씨를 뿌린다고 하면 어떤이들은 미친 지랄을 한다고 비웃지요. 겨울부터 온상을 해야 고추수확을 제때루 낼수 있다는건 모르구 말입니다.》

이렇게 힘든것을 저들은 하지 않으면서도 남이 힘들게 해서 수입을 크게 얻는걸보면 일부 건달군들이 심술이 나서 개인리기주의를 한다고 뒤소리를 한댔다. 같이 따라할 생각은 않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선진고추농사방법을 알려줘도 그런걸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 해볼념두 안합니다. 글썄...》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들어보니 로인님의 고추농사방법이 옳습니다. 그렇게 온실화해서 절기를 두석달 앞당기지 않으면 높은 수확을 낼수 없습니다. 로인님, 그 고추농사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다 따라할수는 없겠으니 할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정해서 하나 둘 따라나서게 하십시오.》

《예, 해보려구 애쓰는 사람들이 여럿 있기는 합니다. 현대 따라할 궁리도 안하는 게으름뱅이들은 뒤에서 흥흥 코웃음만 친단 말입니다. 내성미가 끊지 않구 참을성이 없어 그런것들은 이 마맞대구 욕합니다. 밥그릇보고도 굶어죽을 놈들,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손목쟁이를 잘라버려라, 나라에서두 뭇이 많아 뉘같은 놈들을 맥여살리겠냐허구 욕질을 자꾸 허니꺼니 그것들이 저를 못된령감이라구 별 뒤소릴 다 합네다.》

허근세는 어처구니 없다는듯 허구프게 웃었다.

수령님께서는 로인의 진정이 이해되어 그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손이 몹시 험하군요.》

《농민의 손이 아닙니까. 손이 거름이라고 자꾸 땅을 주물려야 곡식도 잘되고 집짐승도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의 손이 고우면 밥을 굶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 집구경을 좀 하자고 말씀하시자 허로인은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리한무도 감

동된 얼굴로 뒤따라 일어섰다.

안로인은 수령님께서 자기 집을 찾아주신 크나큰 기쁨에 싸여 부엌과 방들에 초불들을 환하게 켜놓아 안팎을 대낮처럼 밝게 했다.

수령님께서 집앞으로 다가가 활짝 열어놓은 부엌과 방안들을 들여다보시었다. 부엌에는 큼직한 찬장이 있고 그안에 그릇들도 그득했다. 양은 버치, 크고작은 쟁개비들, 낫양푼도 보이였다.

그것들은 불빛을 받아 번들번들 빛이 났다.

방안에는 이미 들은바대로 장판도배를 알뜰하게 했고 각종문양의 백동장식을 박은 반짝반짝한 장농 두개가 키맞추어 앉았다. 그우에 정말 두툼한 초록색비단이불 두채가 보기 좋게 얹혀있었다.

수령님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비졌다. 얼마나 좋은가. 제 아글타글 일한 덕에 수입을 얻어 이만큼이라도 장만해놓고 사니 너무 기뻐 허로인을 목마라도 태우고싶으시였다. 그럴수록 아까 이리로 오던 길에 들렸던 그 소녀네의 한심한 집모양이 떠올랐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허로인넌 집짐승도 많았다. 황소같은 돼지가 세마리씩이나 되고 새끼달린 염소가 두쌍, 토끼가 여라문마리되고 닭도 우리에게 가득했다.

수령님께서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이때 허동석이가 대문안으로 달려들어와 수령님앞에 굽석 인사를 드리였다. 그이께서 반가이 웃으시며 먼길 다녀오느라 수고 많았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자기 집까지 찾아주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허동석이여서 그의 감격은 물떨기처럼 솟구쳤다. 동석은 눈시울이 붉어져 말을 자꾸 더듬었다.

《수령님, 저희들이 무슨... 큰일을 했다고... 집까지 찾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정말 이 경사를 어떻게 다...》

《우린 이런 집에 찾아올 때가 제일 기쁘오. 동석동무가 아버지와 함께 강냉이농사도 잘하고 고추농사도 잘해서 팬치 않게 사는걸 보니 매일이라도 와보고싶소. 그래 시장에 갔던 일은 잘 됐나?》

《다 잘됐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잘하라구. 체대군인들이 할 일이 참 많소. 동석동문 이미 공부를 해서 전문지식도 가졌으니만큼 할 일이 더 많소.》《수령님, 말씀의 뜻을 명심하구 체대군인답게 산골의 모든 일에서 앞장서겠습니다.》

허동석은 수령님의 믿음에 격동되어 힘있게 말 씀을렸다. 그이께서는 일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일러주시며 고추밭을 보시기 위해 대문밖을 나서시였다.

리한무가 먼저 승용차로 다가가 전조등으로 고추밭을 비치도록 했다.

바깥 터밭 한쪽에 스무나문평 잘되는 넓은 고추밭이 펼쳐졌다. 하얀 불빛에 개미새끼 한마리 기여가는것조차 다 보일상싶었다. 정말 놀라왔다.

시꺼멓게 거름독이 오른 고추대들에 한뼘이 넘게 긴 꽃고추들이 수백개씩이나 달려 발고랑이 안보이게 늘어졌다. 꼬투리들은 하나같이 거름처럼 번들번들했다. 허동석이 그이께 설명해드리였다.

《모든 남새가 거름을 많이 받지만 고추는 좀더한 다비성식물입니다. 거름을 많이 받는 작물이지만 힘들게 없습디다. 오줌을 받아 거기에 뜨물을 한절반씩 섞어 고추대밑에 부어주면 이렇게 잘됩니다.》

수령님께서는 허동석과 늙은 아버지의 근면성은 물론 깊은 탐구심에 대해 높이 치하하시였다.

돌아가시는길에 차안에서 리한무가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올렸다.

《수령님, 오늘 허동석동무와 그 아버지까지 만나고보니 저의 소견머리가 바로 서있지 못했습니다. 하마트면 좋은 사람들을 농칠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오?》

리한무는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허동석의 집을 찾아가는것을 만류했던 자신이 돌이켜져 민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령님께서 의사증받이에 몸을 기대시며 만족한 어조로 뇌이시였다.

《이곳에 들어온 후 오늘이 제일 기분좋은 날이요. 허동석과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요. 황금산의 주인이 될 귀중한 싸들이요. 좋은 싸를 더 많이 찾아 무성하게 자래울 때 황금산의 보물이 그대로 인민의 재부로 될것이요. 아무리 보아도 체대군인 허동석이 믿음에 가오. 사람이 듚적하면서도 결쾌있게 생겼거든. 전쟁마당에서 단련됐겠다, 전문학교 공부도 했겠다, 한몫 말아할 재목감이요.》

하늘에는 못별이 유난스레 총총했다.

×

이듬해 마가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무실을 조용히 거닐고계시였다. 창가에 저녁어스름이 비졌어도 그이께서는 조명등을 켜 생각도 잊으신듯 묵묵히 걸으시였다.

복구건설로 들끓는 수도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간단없이 이어졌다. 건설자재들을 싣고 달리는 크고작은 자동차소리들, 목도군들이 발을 맞추는 선소리와 건설기계 돌아가는 갖가지 소리들로 수도의 거리는 밤을 잊은듯 했다.

그이께서 문득 창가에 멈추어 서시였다. 가두의 고성기에서 우렁찬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터전을 다진다 힘차게 다져라

원썩들이 불사른 내 고향 폐허에

...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생각에만 잠겨계시였다.

조금전에 서북지구 도에서 올라온 문건을 보신 그이이시였다.

순기척소리와 함께 리한무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 새 문건이 들려있었다. 그는 방안이 어두워 서둘러 불부터 켜드리었다.

그때에야 수령님께서 이쪽으로 돌아서시었다. 리한무는 그이의 집무탁우에 문건을 놓으며 중공업성에서 올라온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 가버이 고개를 끄덕여보이시며 자신께서 방금 도에서 올라온 문건을 봤다고 하시었다. 천산군 중방협동조합 관리위원장 허동석이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리한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한해농사를 지어보니 동석동무가 관리위원장감으로서의 부족하다는겁니까?》

《그런것 같소. 금년도 강냉이농사를 잘 짓지 못했다는거요. 게다가 사업작품까지 걸려 관료주의자가 됐다고 하오. 허근세로인의 고추농사도 시원치 않고, 좌우간 문건에는 허동석이 관리위원장자격을 갖추지 못한것으로 패있소.》

《전 어찌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동석동무에게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소.》

수령님의 어성은 무겁게 울리었다.

이어 리한무에게 파업을 주시었다.

《아무래도 동무가 현지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소. 문건에 반영된 내용이 옳으면 허동석일 공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줘서 구실을 잘하도록 해야겠소.》

《곧 떠나겠습니다.》

《난 예정대로 비군으로 가겠소. 료해사업이 끝나면 그리로 오오.》

리한무를 떠나보내고도 수령님께서 마음이가라왔지 않아 한동안 창가에 서계시었다.

수령님께서 천산군을 다녀오신 후인 작년말에 그곳에도 농업협동조합들이 무어졌다. 중방협동조합의 첫 관리위원장으로서는 허동석이가 임명되었다. 조합에서는 고추생산반을 따로 내오고 그 기술고문격으로 허근세로인을 앉혔다.

지난 여름 어느날 수령님께서 중방협동조합에 전화를 걸어 관리위원장을 찾으시었다. 일하기가 힘들지 않는가고 물으셨을 때 허동석은 괜치 않다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간봄에 보내준 200마리의 양이 잘 자라는가도 알아보셨다. 허동석은 두마리가 벼랑에 떨어져 죽은대신 열마리가 새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들이 산판에서 너무 헤쳐돌아가며 《자유주의》를 부러 방목공처녀들이 속을 좀 태운다고 했다. 수령님께서 크게 웃으시었다.

《그거 야단났구만. 그놈들을 몽땅 비끄러매서 기를수도 없구... 이보라구, 관리위원장.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양무리에 염소를 몇마리 섞어넣으라구. 그러면 그 염소들이 길잡이를 하면서 양들의 대오관리를 괜치 않게 잘하오.》

그때 허동석은 어쩌면 수령님께서 저희들도 모르는 집집승사양관리방법까지 다 아시는가고

하며 몹시 감동했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도 일을 잘하지 못했단 말인가.

수령님께서 얼마후에야 집무탁앞에 가앉아 문건을 펴놓으시었다.

며칠후.

중간지대의 농촌들을 거쳐 산간지대인 비군까지 가신 수령님께서 그날 현지지도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시었을 때는 밤이 어지간히 깊었을 때였다.

평양을 떠날 때부터 부실부실 내리던 비는 며칠째 끊임없이 쏟아졌다. 산간지대에 들어오니 비가 더 많이 왔다면서 마가을비가 장마비 째떡하게 온다고들 했다.

수령님께서 저녁수저를 놓으시었을 때는 비가 더 채국받듯 쏟아졌다. 이때 리한무가 도착했다.

수령님께서 리한무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수고했소. 어서 저녁식사부터 하오.》

《수령님, 저녁을 먹고 떠나왔습니다.》

리한무는 자기의 흥분을 녹찾히느라고 잠깐 입을 다물었다. 수령님께서 그의 얼굴을 넋지시 살펴보시며 조용히 물으시었다.

《허동석동무넨 다 잘 있소?》

《예... 수령님, 제가 현지에 가보길 잘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수령님께서 애써 찾아내신 황금산의 주인이 될 새싹들이 찬바람을 맞을뻔했습니다.》

《그래?...》

리한무는 자초지종을 침착하게 보고드렸다.

...중방마을조합의 첫 관리위원장이 된 허동석은 제대군인다운 패기와 농업전문학교 출신다운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에 달라붙었다.

그는 수령님께서 자기네 리에 오시여 주신 현지교시관철에로 조합원들을 이끌었다. 첫째로 집행해야 할것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첫 공정으로 주작물의 곡종을 완전히 바꾸는것이였다. 조대신에 강냉이를 100프로 심자고 달라붙었다.

그런데 도농산국 담당지도원이 강냉이를 50프로만 심으라고 했다. 종자가 부족하여 첫째부터 곡종을 다 바꿀수는 없으니 점차적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허동석은 종자가 모자랄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저앉을수는 없었다. 그러는 그를 보고 도농산국 담당지도원은 타일렸다. 한해 농사에서 주작물곡종을 바꾸는 일은 간단치 않다고 하였다. 오랜 세월 조를 기본곡종으로 심어오던 산골농민들더러 갑자기 강냉이농사로 넘어가라면 여러가지 걸리는 일들이 적지않다며 금년 첫째는 종자도 부족하니 시험적으로 절반만 심자고 했다.

《처음 해보는 강냉이농사인데 타산없이 전면적에 다 심었다가 랑패라도 보면 어쩔려고 그러오. 농사는 한번 망치면 한해를 굶어야 하오. 그것처럼 큰 죄악이 어데 있소.》

금년엔 결정적으로 걸리는것이 종자라고 또 강

조했다. 어데 가서 그 술한 강녕이종자를 구해 오겠는가. 실지 조합들마다 강녕이종자를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다.

다른 조합들은 강녕이를 절반밖에 못 심는다해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직접 받은 중방조합에서는 무조건 100프로 심어야 한다고 결심한 허동석은 타군, 타도로 뛰어다니며 종자강녕이를 기어이 다 구해들었다.

군인민위원회 농산파에 나와와야 군내 영농사업을 보던 도농산국 담당지도원은 린접 조합에서 강녕이종자를 30프로밖에 확보 못했으니 좀 돌려주라고 했다. 허동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같은 보신주의자와는 상대하지 않겠소.)

동석은 일을 억척같이 내밀었다. 그러나 욕망 하나만 가지고는 일이 얼음에 박밀듯 되지 않았다. 강녕이농사의 첫째 비결은 퇴비를 많이 내야 하는데 농민들은 오래동안 돌밭에 백파로 조를 심어먹던 타성이 있어 관리위원장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동조합이라는 큰 세간살이를 맡은 허동석은 제 결심대로 일이 되지 않아 걸음걸음 짜증이 앞섰다. 얼마 못 가서 그한테 관료주의자딱지가 붙었다. 그럴수록 퇴비생산은 더 굼뜨게 진척됐다.

하여 해밭고가 높은 산장밭에도 퇴비를 넣지 못한채 강녕이를 심어 농사가 되지 않았다.

허근세로인의 고추농사도 말할 형편이 못되었다.

도농산국지도원과 고추필지를 놓고도 허동석은 육신각신했었다. 좋은 땅엔 다 주작물을 심어야 한다며 고추밭들을 산기슭의 메마른 땅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지도원은 엄하게 꾸짖었다.

《식량이 모자라 국가대여곡을 먹으면서도 좋은 땅에만 고추를 심겠다는게 말이 되요? 고추가 식량이요? 그러지 마오. 현금수입을 높이겠다는 욕심만 부리다가 기본농사에 지장을 줄수 있소. 난 처음 해보는 강녕이농사를 망칠가봐 마음이 놓이지 않소. 겁이 난단 말이요.》

하여 끝내 적지가 못되는 땅에 고추를 심어 리득을 크게 보지 못했다.

허동석은 이해 알곡생산총화를 위한 군내 일군들의 모임에 참가하여 비판무대에 나섰다. 강녕이농사, 고추생산 등 수령님의 교시를 집행하지 못한 그에게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그에게 내리건 결론은 능력이 걸려 중방조합과 같은 중요한 현지교시마을의 관리위원장 자격이 부족하므로 이웃농장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옮겨놓겠다는 것이었다.

리한무는 웅글은 목소리로 조용히 뒤말을 이었다.

《허동석동무는 관리위원장으로서는 결함은 나라냈지만 당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열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남들은 강녕이종자가 부족하여 절반밖에 못 심었지만 동석동문 기어이 100프로 강녕이농사로 넘어갔습니다. 비록 농사를 잘 짓지 못하고

관료주의자감투까지 쓰긴 했으나 교시관철에서는 무조건적이었습니다. 허근세로인도 적지가 못되는 땅을 받아 고추농사에서 술한 고생을 했습니다.

하도 고추농사에 밝은 로인이 달라붙었으니 그만큼이라도 냈지 다른 사람이 말았다면 무수확할 뻔 했습니다. 허동석이 자기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도농산국 담당지도원이 감정을 앞세운것도 적지 않습니다. 동석동문 맞대놓고 그를 보신주의자라고 비난해서 더 감정이 좋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도농산국 일부 동무들이 동석동무를 잘 도와주지 못한것 같소. 허동석인 조합의 큰 농사를 처음 해보다나니 조직수완이 미숙할수 있소. 그러니까... 하겠다는 열성과 욕망은 앞서고 일은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으니 큰소리밖에 나갈게 없지. 누구나 관료주의를 부리기는 쉽소.》

《제가 동석동무네 집에 찾아갔을때 그와 그의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수령님의 믿음에 보답을 못할바엔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피로우면 그런 말을 했겠소.》

이윽고 수령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한무동무, 이제 곧 허동석동무한테로 갑시다. 진짜 관리위원장을 할 능력이 없는가를 내가 다시 확인해봐야겠소.》

《수령님, 밤이 깊었는데...》

《일없소. 나는 그를 만나기 전엔 오늘 밤 잠들 것 같지 못하오.》

리한무가 수령님을모시고 밖을 나섰을 때는 억수로 내리던 비도 멎고 하늘엔 못별이 총총했다. 곧 승용차는 어둠을 헤가르며 산기슭의 비탈진 길을 따라 달리였다. 차가 우중충한 골짜기들과 아득한 고개들을 넘어 80여리나마 달리였을 때 앞에 넓은 강줄기가 나타났다.

차는 자갈밭기슭을 뚝뚝하며 흐르는 물가에 멈추어섰다. 소연한 강물소리가 이곳의 교요를 더 무겁게 누르는듯 했다.

리한무가 먼저 차에서 내려 강심을 들여다보았다. 운전사가 물가에 전조등을 켜놓아 강반은 대낮처럼 환했다. 한무의 낮빛은 어두워졌다. 아무리 보아도 승용차는 건너갈것 같지 못했다.

수령님께서 다가오시며 물으시었다.

《어떻소, 꽤 건너갈것 같은가?》

《안되겠습니다.》

《동무차는 아가 어디로 왔나?》

《이리로 건너왔습니다. 그때도 가까스로 건넜는데 그사이 물이 더 불어났습니다.》

산골의 여원 강들은 비가 많이 오면 순간에 물이 차올라 교통을 마비시킨다. 이 강도 어느때는 가운데로만 얇은 물이 흘러 차들이 지장없이 다녔었다. 그러다가도 폭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범람하여 이렇게 물살이 빠르고 깊어진다.

리한무는 할수없이 그에게 다시 되돌아가자고

말씀드렸다.

《수령님, 이 일대는 에돌아가는 길도 없으니 숙소에 가 쉬고 래일 아침 가십시오. 아침엔 물이 꼭 줄 겁니다.》

수령님께서 가벼이 머리를 저으시었다.

《아니요, 우린 혁명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껏 동지를 위해 떠났던 길이 험난하다 해서 되돌아선적이 없었소. 동석동무와 허로인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요. 부두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소. 산에 아무리 보물이 가득차어도 그걸 다각적으로 리용할줄 모르면 우리의 산들은 언제까지나 쓸모없는 산으로만 남아있을거요. 그때 황금산의 주인들을 찾아가는 길에 이만 한 난관도 없겠소.》

수령님께서 손수 무릎을 걸어올리고 먼저 물가에 들어서시며 현현하게 뇌이시었다.

《자, 우린 걸어서 건느겠소. 운전사동문 래일 아침 물이 좀 쥔 다음 건너오라구.》

리한무는 더 무슨 말을 못하고 무릎을 걷기 바쁘게 수령님곁으로 바싹 붙어섰다. 그이의 한팔을 옆에 끼고는 서로 몸을 의지하고 물살을 서서히 헤갈랐다. 마가을 산골물은 오싹하도록 찼다.

《시원한게 정신이 펴져 드누만.》

《시원할게 뭇니까. 막 발이 시린데...》

리한무가 우정 투정을 부리자 수령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 순간엔 강물도 흐름을 멈추고 어리광치며 빙글빙글 원무를 하는듯만 싶었다.

《동지들을 위해 가는 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운 법이요. 난 허동석이와 허로인이 금년 농사를 잘 짓지 못한건 일시적인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들은 앞으로 우리들의 의도대로 해낼것이요. 두고보오. 그 사람들이 꼭 황금산의 진짜 주인으로 되는걸... 첫썩은 연약한 법이요. 그래서 잘 도와줘야 하오.》

《수령님!》

리한무는 불시에 눈곱이 화끈하니 달아올라 절로 속눈썹이 젖어들었다. 우리 수령님 백두광야의 눈보라속을 헤치신 길이 인민을 키우고 이끌어주기 위한 길이였고 그 길이 이밤, 이 길과 맥맥히 이어져있는게 아닌가. 이 길에 어떤 가시덤불인들 없었던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사령관 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싸워온 리한무여서 수령님 헤쳐가신 자욱자욱에 곁여있는 수고를 뼈속까지 감수하고있었다.

강을 건느신 수령님께서 보폭을 넓게 짚으며 씨엇씨엇 고개길을 걸으시었다. 리한무는 자기 불찰로 하여 수령님께서 밤길을 걸으시게 하는것만 같아 가슴이 오그라드는것 같았다.

《한무, 우리가 37년 6월초에 조국진군을 할 땐 누구도 힘든줄을 몰랐겠지.》

그이께서 항일전의 나날들을 회고하시었다.

《정말 그땐 발에 날개들이 돋혔답니다.》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걷는 길이어서 한결

힘이 덜 드는것 같았다. 하지만 이마와 등에 땀줄기가 흥건했다. 수령님께서도 자주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시었다. 갈구랑달이 늦게 뜬것이 부끄러운듯 이마를 다소곳이 숙이고 부지런히 따라왔다.

새벽녘에야 낮익은 허동석의 집앞에 다달았다.

그이께서 리한무의 기름한 얼굴을 마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저 나무단에 가았아 좀 쉬자구. 집주인이 아직 단잠을 자고있을거요.》

리한무는 새벽날씨가 쌀쌀한데 수령님을 이런 바깥에 그냥 계시게 하는것이 죄스러워 낮빛이 무거웠다. 밤도와 걸어오시느라 얼마나 지치셨으랴만 그이를 모실 따뜻한 방 한칸 없는것이 몹시도 아속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 집뒤에 우렁이 솟아오른 언덕 같은것을 가리키시었다.

《한무동무, 저게 무엇이요? 전엔 없던건데...》

그쪽에는 수령이 우거져서인지어둠이 더 짙어 형체가 분간되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갔다. 거름더미가 그토록 집채보다 더 높았다. 수령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이것 보오. 벌써 래년농사차비를 이렇게 착실히 하누만. 교훈을 찾았다는거지. 관리위원장자신이 앞장에 서서 거름산을 높이 쌓고있구만.》

《각오를 굳게 한것 같습니다.》

바깥마당가를 잠간 거니시던 수령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집앞으로 흘러간 개울가 저쪽을 가리키시었다.

《저길 좀 보오. 벌써 두사람이나와 개울가에서 일을 하고있구만.》

리한무도 그쪽을 내려다보았다. 흰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안고 두사람이 열심히 삽질을 하고있는것이 보였다. 그는 그들이 다름아닌 동석이와 그의 아버지 허로인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수령님, 동석동무와 허근세로인입니다.》

《웁구만. 그런데 새벽부터 무얼 저렇게 파고있을가. 우리 가보지요.》

수령님께서 먼저 앞개울과 잇닿은 오솔길을 따라 걸으시었다. 리한무도 뒤따랐다.

잠시후 그들가까이로 내려간 수령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가보니 개울기슭에 오랜 늪이 있었다. 해마다 잡풀이 엉키어 썩은것이 덧쌓여 기막히게 좋은 부식토가 되었다. 파울린 시꺼먼 흙더미에서는 해감내와 풀뿌리, 나무뿌리 썩은 냄새가 확풍기었다.

수령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리한무의 얼굴에도 감심의 빛이 어렸다.

《수고들 합니다.》

수령님께서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먼저 그들한테 인사를 하시었다.

순간 두사람은 깜짝 놀라 뒤돌아다보았다.

허동석이 먼저 흙구덩이에서 와락 뛰쳐나왔다.

그는 수령님가까이 와서는 더 움직이지 못했다. 우뚝 선채 흙발이 묻은 얼굴을 푹 펴구었다.

《수령님!... 면목이 없습니다. ...》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쏟아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다.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뒤따라 허근세가 황황히 달려나와 수령님의 손을 부여잡고 와들와들 떨었다.

《이것이 꿈은 아닙니까? 수령님께서 최많은 저희들을 또 찾아주시다니요. 때아닌 새벽까지...》

그이를 다시 뵈옵게 된 반가움과 그리고 한해 동안 조합고추농사를 맡아 속썩여온 설음이 한꺼번에 차올라 목소리가 꼭꼭 잠기었다.

수령님께서 로인의 초들초들 마른 손을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며 위로하시었다.

《로인님, 사연을 다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일이 잘 될겁니다. 새해부터는 마음놓고 고추농사를 잘해보십시오.》

《수령님께서 그토록 믿어주셨는데 그 은덕에 보답은 고사하고 고추농사를 변변히 못했으니 그 죄 막중합니다. 정말 수령님 뵈옵 면목이 없소이다.》

《그건 로인님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게 아니지 않습니다. 다음해엔 가슴 쪽 찢고 봉창을 하십시오.》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내 죽어두 고추밭에서 숨지겠습니다.》

《그런 각오면 못할 일이 없을겁니다. 벌써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질 좋은 부식토를 파올리는걸 보니 결심이 이만저만 아닌것 같습니다. 집뒤에 쌓아놓은 두엄산도 여간 크지 않더군요.》

《조합농사를 한해 해보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단단히 깨달았습니다.》

동석이 다시 그이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다가가 떠듬떠듬거렸다.

《수령님, 구실 못하는 저를... 저를 처벌해주시십시오.》 눈물이 발등우에 푹푹 떨어졌다.

《내 정말 동석동무한테 좋아릴 치자고 이렇게 왔소.》

수령님께서 짐짓 엄하게 말씀하시었다.

《관리위원장이 되기 바쁘게 관료주의자가 됐다면? 욕설하고 큰소리치고... 그러면 대중이 자기 주위에서 떨어져나간다는것을 몰랐소? 관리위원장이라는 직권으로 내물기만 하면 일이 될줄 알았겠지. 대중이 따라서지 않으면 만사는 백패하오. 지도일군이 가져야 할 기본사업원칙은 이 신작책이요. 말없이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없소. 그래 사업에서 교훈을 찾은게 있소?》

허동석은 두손을 배허벅에 모아잡고 머리를 더 깊이 떨어뜨렸다.

《수령님, 강녕이농사를 잘 해보겠다는 주관적 욕망만 앞세우고 세밀하게 작전할줄 몰랐습니다. 강녕이농사의 비결은 많은 부식퇴비를 내야 한다

는데로부터 조합원들의 열의를 발동시킬대신 우격다짐으로만 몰아댔습니다. 두엄을 별로 내지 않고 백파로 조농사를 해먹던 화전민근성이 남아 있는 사람들더러 억지로 새 곡종 농사를 짓게 했으니 잘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찾고 이제는 저부터 퇴비생산에 앞장서자고 결심했습니다.》

《음— 잘하는 일이요. 그렇게 무슨 일이나 관리위원장이 앞장에 서야 하오. 강녕이는 퇴비를 넣은것만큼 쏟아지오. 첫술에 배부를수 없으니 교훈을 살려서 초급일군들부터 앞장서게 하라구. 처음으로 해보는 관리위원장사업인데다가 누구도 해보지 않은 100프로 강녕이농사로 넘어간 허동무를 웃기관일군들이 잘 도와주지 못한 결함도 크오.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 하여 두 고보자는 식으로 버르다가 결함을 범하니까 내리 패는 행위는 옳지 않소. 도와주지는 않고 감정부터 앞세운 도농산국의 일부 일군들을 비판취서 고치게 해야겠소. 그리고 산나물과 산과일을 수확하는것도 개별적으로, 부업식이 아니라 조합적인 사업으로 집단의 힘을 잘 발동시켜 제철에 와 딱딱 끝내도록 하오. 지금 군소재지들에서 건설하는 가공공장과 지방산업공장들이 조만간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 허동석을 다시 일별하신 그이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으신다.

《동무를 이웃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옮겨놓자는 의견에 나는 동의하지 않았소. 허동무를 끝까지 믿고싶기때문이요. 동석동무와 로인님은 이 고장, 이 산촌의 주인들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이 산촌을 지키고 가꾸어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허로인이 감개무량하여 목소리를 떨었다.

《수령님,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리를 뜨는건 고목의 뿌리를 뽑는거나 같습니다. 그러든 다시는 모살이를 못해 죽고 맙네다.》

《옳은 말씀입니다. 로인님은 이 고장 본토에서 오래오래 살며 조합고추생산을 떠메고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젊은 사람들한테 기술을 잘 배워주어 고추생산을 대를 두고 잘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그 말씀을 뼈속깊이 새기구 강소년하여 그 은덕에 보답하겠습니다.》

허동석이 한말 나서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수령님, 더는 저희들때문에 마음쓰지 마십시오. 강녕이농사는 물론 축산도잘하고 고추생산도 장훈을 불러 이 두메산촌을 벌방부럽지 않게 꾸려놓겠습니다. 산은 산마다 황금산으로 만들어 우리의 재부, 나라의 재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 만족하여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고맙소. 동무의 결심을 들으니 물렸던 피곤이

한순간에 풀리는것 같구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큰 걸음을 내짚으라구. 동문 중방조합의 관리위원장으로 계속 일해야겠소. 대중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면 안되는 일이 없을거요.》《명심하겠습니다.》

허동석의 동식한 얼굴에 굳은 각오가 비끼었다.

날이 활짝 밝았다.

동녘에 부채살 같은 해살이 하늘 가득히 퍼져 올랐다. 집쪽에서 승용차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도착하는 모양이었다.

산봉우리에서 뻗어내린 첫 해살이 수령님의 만면에 빛살치듯 했다.

그이의 앞으로 련연히 뻗어내린 산발들이 오늘에야 자기들의 진짜 주인을 안겨주신 고마움에 감사하듯 춤을 추며 다가드는듯만 싶었다. 멀지 않아 저 산들이 그 이름도 빛나는 황금산들로 불리울 때 이 나라 산촌은 세기의 변혁으로 또 한 페이지의 역사를 기록할것이다.

걸음걸음 힘을 들어 황금산의 새 주인들을 찾아 그 싹을 움틔우고 가꾸어가시는 수령님의령도로 이 나라의 하많은 산들이 말그대로 《황금산》으로 변모되리니 우리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사람들은 대를 두고 잊지 않으리라!

승용차는 허로인네 집을 조용히 떠나갔다. 차가 산굽이를 돌아갈 때에야 동석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승용차가 수령님보다 뒤로 왔다는건 그이께서 몸소 걸어오셨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옳구나, 수령님께서 지난 밤 험한 산골길을 걸어오시다니, 골짜기 길은 얼마나 사납고 벼랑길, 고개길은 얼마나 높은가.

우리 산골사람들조차도 고추가 이 지방의 특산이라는것을 전혀 모르고있었는데 그것을 애써 찾

아 잘살 방도를 열어주시고도 아버지와 나를 황금산의 주인으로 내세워주려 밤도와 걸어까지 오시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신 수령님!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한사람한사람 안아키워 나라의 주인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령도가 또 있을가. 아, 수령님, 어쩌면... 어쩌면...

허동석은 멀어져가는 수령님의 차를 바라보며 후더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었다. 아들한테서 사연을 들은 허근세로인도 자기가 망녕이 들어 그런것도 가려보지 못했노라고 풀발에 풀썩 주저앉아 앞가슴을 쿵쿵 두드리었다.

눈물은 줄줄이 내리고 총의는 맥맥히 오르는 티없이 맑은 아침, 새싹이 우줄우줄 움트고 솟구치는 뜨거운 아침이었다.

...세월은 흘렀다.

력사적인 지방 당 및 경제일군련석회의 연단에서 한 젊은 관리위원장의 경험토론이 참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어떻게 해마다 산골농사에서 장훈을 부르고 축산과 고추생산에서 기적을 냈고 산중의 재부를 잘 리용하여 두메산간 사람들의 생활을 도시, 벌방 부럽지 않게 높였는가를 생동한 사실을 들어 토론했다.

그는 중방농장 관리위원장 허동석이었다.

농장의 성장과 함께 어느덧 동석이도 황금산에 가꿔가는 주인으로 자랐으며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되어 국사를 의논하는 일군이 되었다.

자기의 손목을 잡아 걸음걸음 이끌어 키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에 천만번 감사를 드리는 그에게 회의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또 보냈다.

가사

가정의 화목속에

박영진

언제나 살뜰히 오가는 정은
웃음꽃 피워주는 봄빛이랴오
인생의 그 진리 《가화만사성》
가정의 화목속에 행복이 있네

티없이 순결한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삶의 기쁨이랴오

인생의 그 진리 《가화만사성》
가정의 화목속에 위훈이 있네

만경대가문의 고결한 가풍
일심단결 내 나라에 넘쳐흐르오
인생의 그 진리 《가화만사성》
가정의 화목속에 애국이 있네

여운이 남는 시구들

리금녀의 《만경대고향집이여》 (1977) 중에서

- 이 나라의 설음을 다 담은 물동이
초가집 처마아래 있고
이랑이랑 땅을 갈던 가난의 보습
온 나라에 풍년봄을 불러놓고
이 트랙에서 빛을 뿌리네
- 여기 다 계서라
투쟁의 마당에 큰결을 떼여주시며
물레질을 하셔도 밭을 가셔도
짓밟힌 동포들을 생각하신 마음이지기에
고향집트락을 삼천리에 넓히시고
삼천만을 한품에 안아주신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광복의 길에
조국땅을 따라세우고
그이께서 개선하신 날
기다렸던 사립문으로
온 겨레를 맞아들인
인민의 고향집

정서촌의 《조선》(1965) 중에서

- 너의 가슴엔 칼날이 꽃혀있었고
너의 몸에선 더운 피가 흘러내렸다
해도 달도 별도 뜨지 않고
철이 되어도 꽃은 피지 않았다
- 열네살에 아들은 집을 떠나
두렵게 일어불은 압록강을 건넜다
너무도 일찌기, 빼앗긴 조국의 아픔을 안고...

그때 너는 두컬레의 짙신을 보짐에 싸며
피같은 눈물로 아들의 손등을 적시었다

- 조선아, 자유의 강산아
준엄한 수난을 겪던 암담하던 그날
가난한 초가집 낮은 지붕아래
네가 낳은 위대한 아들은
폭풍을 안고 백두령봉에 거연히 서서
밝은 해와 아름다운 별을
너의 머리우에 얹어주었다

오영재의 《만민의 래양》 (1977) 중에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세월이 기다렸던 분
기다림에 기다림에 가슴이 타던
그 속망의 언덕에
숫아오르신분

그이는
흘러간 유구한 력사
흘러갈 영원한 세기가
서로 손을 맞잡고
20세기 하늘높이 받들어올린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세월이 머리 희도록 찾아헤맨
진리의 아름다운 구슬을
짓밟힌 인민들속에서 찾아내시고
억만가닥 빛발에 담아
누리에 뿌려주신분

오리알이야기

리태식

가렬한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
가장 엄숙한 명령을 받고
또다시 달라질 전선의 래일을 안고
확신에 넘친 걸음으로 전선을 향해
장령들도 련락군관들도
최고사령부 작전대를 떠나갔다

그런데 어인 일이신가 우리 수령님
어찌다 찾아든 휴식시간도 감감 잊으신채
창문밖을 점도록 바라보고 또 바라보심은
구상하신 타격방안에
미처 완결하지 못한 빈 공간이라도 있는것인가

하달하신 전투명령에 보충할것이라도 있는것인가
아니면 그 무엇때문에

못박은듯
그이의 시선이 움직일줄 모르는 곳은
뜻밖에도 남쪽하늘이 아닌 먼 북쪽하늘—
발악적인 적들의 《신공세》를 격파해야 하는
전전선의 작전적인 또 한고리가
거기에 이어져있는듯
수령님께선 기다리고계시었다
국경을 넘어오는 한대의 비행기

드디어
비행기는 날아왔다
포연서린 하늘길을 무사히 무사히
땅에 내린 비행기안엔 꿈이런듯
깨어질세라 상자마다
차곡차곡 톱밥속에 쌓여있는
오리알 오리알

그렇듯 기다리던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
안팎엔 기쁨의 파도가 일렁이는데
평화로운 조국땅 한복판에 서계시는듯
그려보고계시여라
푸짐한 고기국밥상을 마주한
사랑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전쟁...
모든것이 불타고 재가 되어도

우리 수령님 강철의 심장속에선
타버리고 재가 된것 하나 없었으니
승리한 조국땅에 펼쳐갈 행복이
끝없이 끝없이 태어나고있었다

조국의 운명을 위협하는
적들과의 준엄한 대결전의 그 시각
대공화력의 호위를 받으며
사랑의 하늘길 날아온
오리목장의 종자알이야기 포연속의 오리알이야기

백여년의 침략사를 떠드는 미제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맞선 이 전쟁
승리를 관가름하던 그 힘의 저울대우에
수령님은 오리알을 올려놓으시였다
이 땅의 래일에 대한 확신을... 사랑을!

구호나무앞에서

방금석

선뜻 발걸음 떼일수 없어
삼가 눈길을 더듬으며
내 한가슴에 안아보노라
나무여
조선혁명박물관의 구호나무여

뜨거이 어루쓰는 이 마음에
살아 생생히 빛나는 글발
—조선에 김대장 뒤를 이을
백두광명성 탄생

세월의 눈비도 지우지 못한
저 글발
못다 산 투사의 생이
피가 뛰는 저 글발마다에서
지금 맥맥히 흐르는건 아닌가

투사의 목숨과도 같아
억만금을 줘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만년재부여서
조국은 소중히 안아
세상에서 제일 잘 보이는
조선혁명박물관
가장 높은 언덕우에
너를 세웠구나

하얀 유리관속에
뿌리없이 너 섰다고
누가 죽은 나무라 하랴
푸른 잎새 아니 보이고

끓은 아지 없다고
누가 너를 즈없는
강목이라 하랴

보아라
해빛밝은 창가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구호나무 너의 글발에 실려
그렇듯 행복에 겨운것 아니라
그늘없는 이 땅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너의 글발에 떠받들려
그렇듯 정답게 들리는것 아니라

너를 잃으면
조국은 천년을 잃고
만년이 멀어지기에
너를 지켜 무재봉의 청춘들
꽃나이 젊음을 바쳐
구만리 인생을
고스란히 너의 글발에
맡긴것 아니던가

나무여
너의 생명의 뿌리는 정녕 산에 있었던가
오늘도 너를 찾고찾는
수천수만의 사람들 그 가슴속에
혁명전통의 뿌리를 억척같이 내리고
너는 억년무궁토록 살아 숨쉬리라
오, 조선혁명박물관의 구호나무여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면 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일단 유사시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싸우게 할수 있습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인민군인들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위하고 인민들이 군인들을 친혈육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과 전투준비를 적극 도와주는것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인민군인들의 다양한 생활을 보여주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백두산전설

통쾌한 습격전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하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 표현할수 없다고,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대를 인솔하여 림시근거지를 큰 곶의골로 옮기시고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던 때의 일이다.

어느날 저녁 유격대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만하면 왕청일대의 지하조직사업도 어느정도 수습된셈이니 이제부터 활기있는 사업을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유격대원들은 의아함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활기있는 사업의 뜻을 인차 리해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들의 속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왜놈들을 한바탕 답새겨놓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정치사업을 벌리자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모두의 가슴은 흥분으로 높뛰였다. 그들의 눈앞에는 벌써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적들의 물결이 눈에 선히 안겨오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만세를 부르는 두만강연안인민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였다.

이튿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소부대에 적정을 알아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정찰조의 보고에 의하면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진출할 지대에 일체가 군용도로를 닦기 위해 끌어온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집결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찰자료에 기초하여 일제의 군용도로공사판을 습격하기 위한 전투임무를 하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날이 채 어둡기 전에

습격전투를 할수 있겠다고 하시며 적은 인원으로 방차대를 편성하여 라자구쪽과 대항구쪽으로 통하는 길목에 파견하도록 하신 후 대오를 이끄시고 공사판부근에 진출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한 소부대가 뼈것이 공사판에 이르렀다.

그런데 웬일인지 적들의 아무런 대항도 없었다. 오히려 좀전까지 악다구니를 퍼붓던 놈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도도한 기상앞에 찢쩍대는 것이였다. 《백두산의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기절초풍한것이였다.

소부대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놈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다른 한 소조는 병실을 포위하고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였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있던 사람들모두가 웅성웅성하며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잠간사이에 수백명이 모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고 연설을 하시였다. 반일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해방을 위하여 견결히 싸울데 대한 그이의 연설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분공을 받은 대원들이 련달아 대중속에 들어가 미리 준비했던 선전문을 나누어주며 힘있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조직을 못하고 활동할 방법까지도 배워주었다.

그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은 공사판 습격소식을 듣고 물밀듯이 몰려들었다가 눈알이 뒤집혀 돌아갈 적들의 비참한 물결을 생각하며 통쾌함을 금치 못하였다.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빛나는 형상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상)에 대하여-

최영걸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 내놓은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상, (백보흠 작)] 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으로 그모습 영원히 살아계시는 강반석녀사의 불멸의 생애와 고귀한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역사문헌적의 의가 큰 작품으로서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고있다. 소설은 조선의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께서 무송지구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주체15(1926)년 여름부터 주체18(1929)년까지의 역사적시기에 대한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오로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혁명가이시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위대한 품모를 진실하고도 감명깊이 펼쳐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형상이 생동하게 되자면 그의 성격과 생활을 여러모에서 립체적으로 묘사하여야 한다.》

생활반영의 사실주의적진실성은 우리 문학의 생명이다. 문학작품은 인간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특히 수령과 혁명적가정에 대한 형상창조에서 생활의 본질을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도록 교양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상)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속에 얹혀있는 인간생활을 본래의 모습대로 립체적으로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리론을 옹계 구현하여 인물성격과 생활에 대한 다면적이고 립체적인 묘사로써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에 대한 빛나는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성격의 핵을 바로 잡고 다면적으로 탐구하여 형상하는것은 성격의 립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장편소설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이으시여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한 위대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가정도 행복도 삶도 다 바칠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억세게 싸우시는 혁명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모를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여기에서도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주체의 태양으로 만들어올리신것은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께서 우리 조국청사에 쌓아올리신 가장 거대한 업적이라는것을 격정적인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있다. 소설은 아드님을 《지원》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버지께서 못다 이루신 자주독립의 성업을 기어이 이룩하고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다해나가는 참다운 애국자, 열렬한 혁명가로 내세우시려는 어머니의 불멸의 활동에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생활과 투쟁에서 유일한 목적으로, 내용으로 그리고 총화로 되었다는것을 다면적으로 감동깊이 밝혀내고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형직선생님께서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어 강반석녀사께서는 맡아드님을 화전으로 떠나보내신다. 존경하는 남편이시였을뿐아니라 자신을 혁명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신 미더운 스승이시고 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을 잃고 크나큰 상실의 아픔이 채 가셔지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드님을 떠나보내실 용단을 내리신 어머니. 조상전래의 상제례법과 몽상도의에 어긋나는것이라고 머리를 흔들며 못마땅해하는 늙은이들도 있고 김형직선생님의 부고를 받고 천방지축 달려오신 리보익할머니께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실 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나라의 독립을 아들이 대신하여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는것, 아드님께서 한 가정의 도의보다 조선독립의 역사적사명감과 현실적촉박감을 더 먼저 새겨안으시고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나라찾을 학문과 무술을 익히려 하루라도 빨리 화성의숙으로 가야 한다는것이 아버지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뜻이고 유지를 받드는 진짜 효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였으니 어머니께서는 순간의 망설임도 모르신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김형직선생님의 백절불굴의 정신을 자제분들의 가슴속 깊이 심어주시고 장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떠메고나갈 주인으로 키우시려는 강반석어머니의 굳센 의지와 강직한 품성은 고독하고 쓸쓸한 이국땅에 그냥 남느냐, 아니면 일가친척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는가 하는 선택의 장면에서 더욱 가슴뜨겁게 형상되고있다. 병약하신 몸으로 무송지구 조선동포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안고 뛰어다니시는 며느님의 건강이 무척 넘려되시여 리보익할머니께서는 어리신 손자분들을 데리고 만경대로

함께 돌아가자는 거역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어려운 생활조건속에서 홀로 신병에 고생하실 형수님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김형권동지께서와 강반석어머님때문에 마음쓰는 리관린이도 녀사께 시어머님의 뜻을 따를것을 간절히 말씀드린다. 자신마저도 심상치 않은 속병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닥쳐올 사태를 생각하며 아드님들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는 때가 없지 않으셨고 7년세월 어느 하루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는 만경대와 칠골고향집의 일가분들이 그림지 않은것은 아니시였지만 어머님께서는 무송땅을 절대로 떠날수 없다고 생각하신다. 그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유언과 두자루의 권총이 녀사의 가슴속에 무겁게 안겨있었기때문이었다.

《어머니, 저도 만경대와 칠골이 그림습니다. 지난 7년세월 어찌 한시인들 잊었겠나요. 오매불망 그리운분들이 거기 계시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 기어이 조선독립을 쟁취하도록 성주와 그 애 동생들을 잘 키우라고 하신 성주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제가... 어찌... 어머님, 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불효한 자식을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소설은 시어머님과 시동생분, 리관린의 간곡한 권유를 끝내 마다하지는 강반석어머님의 이 말씀과 심중의 세계를 통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체분들을 훌륭한 혁명가들로 참되게 키우시고 만아드님께서 투쟁의 길에 나서실 때 사연깊은 두자루의 권총을 안겨주시여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유언의 뜻을 더 깊이 새기도록 하시려는 참으로 굳세고 강직하신 혁명가의 안해, 혁명가의 어머님이신 녀사의 고결한 자각과 굽힐수 없는 의지에 대하여 감동깊이 개방시키고있다.

소설은 이와같이 아드님을 《지원》의 높은 뜻을 이어나갈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시려는 녀사의 열렬한 지향과 건인불발의 노력을 성격적책으로 형상속에 뚜렷이 부각하고 여기에 다양한 측면들을 결합시켜나감으로써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 지니신 위대한 성품이 감명깊이 드러나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혁명적원칙성이 강하시였으며 조직의 지시 집행에서 언제나 드림이 없으시였다. 소설은 어머님께서 지니신 이 견결한 품성을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념과 의지에 열렬히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조건성의 정신을 보여주는 녀사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감동깊이 확인하고있다. 웅대한 포부와 많은 사람들의 크나큰 기대를 안고 성큼 떠나가셨던 아드님께서 아무런 사전련락

도 없이 불현듯 돌아오셨을 때 어머님의 놀라움은 이루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고루하고 대중과 리탈된 민족주의독립운동으로써는 더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오직 인민에게 의거하고 그의 힘을 발동시켜나갈 때만이 그 어떤 착취와 억압도 모르는 진정한 인민의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아드님의 원대한 사회주의혁명의 경륜을 받아안으시고 어머님께서서는 커다란 충격과 환희속에 잠기신다. 민족주의독립운동의 증견자이시고 체험자이신 녀사께서는 전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아드님네 새 세대가 기어이 해낼것이라는,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이 전세대 민족주의독립운동을 총화분석한 토대우에서 결성된 《토. 토》와 아드님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굳은 확신과 락관속에 자신의 운명에도 전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절감하신다.

(성주야, 나는 너를 믿는다. 이제부터는 오직 너희네 《토. 토》의 사상을 따라가겠다.)

소설은 이 마음속의 맹약을 지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대한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백방으로 옹호관철해나가는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불멸의 활동과 업적을 감명깊은 형상적화폭으로 펼쳐나간다.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화성의숙종퇴를 놓고 큰일이냐 난듯이 심한 유감을 표시하는 최면장을 비롯한 독립군로장패들앞에서도 주저없이 아드님의 견해의 정당성을 립증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무송땅에서 새롭게 떠나가시는 혁명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나서신다.

어머님께서서는 《토. 토》의 혁명사상을 광범한 군중속에 심어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신 뜻을 받들고 반일부녀회조직을 무어 애국주의계몽교양을 비롯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을뿐아니라 무송지구를 혁명적활기와 열정으로 들끓게 하시려는 아드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합동연예공연의준비와 그 실행사업에 커다란 정력을 쏟아부어가신다. 또한 혁명의 씨앗을 광활한 대지우에 뿌려가는 《새날》신문의 첫 보급자로서 반일애국선전사업을 과감히 벌리시였으며 《장작림폭살사건》을 계기로 일제의 만주침략기도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조중 두 나라 인민을 합심, 단결시켜 조직적인 반일투쟁으로 쫓아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맨 앞장에서 관철해나가신다. 열렬한 혁명가이시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혁명과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충실성은 조직의 리익과 그 령도의 보존강화를 위하여 《백산학교》를 해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을 때 피눈물나는 가슴속 고통과 아픔을 강毅한 의지로 묵새겨나가는데서 가장 집중적으로 형상되고있다. 김형직선생님의 분신과도 같은 《백산학교》, 거기에 바쳐진 어머님의 로고와 심

혈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지만 정세변화의 요구에 맞게 적들에게 탄압의 언질로 될 수 있는 《백산학교》를 주동적으로 해산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어머니께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신다.

소설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고 그이의 사상과 뜻을 맨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참다운 동지가 되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구체적인 생활화폭속에서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격의 핵을 바로 잡고 다면적인 생활에 대한 탐구와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강반석어머니의 성격을 감명깊게 부각한 것은 어머니께서 지니신 가정과 자식에 대한 열렬하고도 참다운 사랑의 세계를 깊이 있게 그린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어머니들이 어느 때 제일 기뻐하는가. 무릇 어머니의 한생은 자식에 대한 보수를 모르는 사랑과 아낌없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장한 일을 할 때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아 키운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식의 명예와 행복을 바라는 세속적인 모성애에 뿌리를 둔 것이다.

소설은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니와 위대한 수령님 사이에 흐르는 고결한 사랑과 효도의 세계를 통하여 녀사께서 찾으시는 어머니로서의 기쁨과 행복은 무엇이며 바로 여기에서 뿔어져 나오는 사랑과 헌신은 얼마나 무한하고 위대한 것인가에 대하여 감동깊이 펼쳐 보이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오래간만에 집에 오시여셔도 새로운 혁명조직의 결성준비로 드바쁜 시간을 보내시던 아드님과 모처럼 모자간의 정을 나누시게 된다. 아드님께서 병약하신 몸으로 혁명사업도 할래, 가정살림도 돌보면서 다달이 자신에게 보낼 학비까지 마련하느라 너무 무리하시는 어머니께 제발 몸을 돌보시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위대한 수령님의 과중한 사업부담을 걱정해주시며 뜨거운 걱정과 고무의 말씀을 하신다.

《...난 지금 허리두 펴구 쉬엄쉬엄 일을 하라구 말할가 하다 그만뒀다. 네가 한시간 잠을 덜 자면 나라의 독립이 그만큼 더 앞당겨지구 네가 한 글자라도 더 쓰면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만큼 더 많이 고쳐주리라 생각했지.》라고 하시며 네가 혁명을 잘하면 그게 내겐 락이 되구 휴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또한 어머니구실을 잘하면 너에게 기쁨이 되구 휴식이 되는 게 아니냐, 어머니들은 자식이 나라를 위하여 장한 일을 할 때 제일 기뻐하고 자식은 혁명을 잘하는 것이 제일 높은 효성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소설은 여기에서 자신과 가정보다 도란에 빠지

고 피에 젖은 내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는 조선의 어머니의 고결한 사랑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속에서 녀사께서 찾으시는 어머니로서의 숭고한 행복과 기쁨에 대하여 감동깊이 펼쳐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런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니께서는 병이 심하신 자신때문에 싣듯 길림으로 떠나기 주저하시는 아드님께 동지들과 한 첫 약속을 어겨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한사코 등떠밀어 보내셨고 엄동설한에 기한에 들러 쓰러지시면서까지 송화강가에서 샳빨래를 하시였으며 삼태성이 기운 밤에도 샳바느질을 하신다. 이렇게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아드님께 학비를 다달이 보내주셨고 수시로 찾아오는 아드님의 혁명동지들을 친아들들처럼 지성껏 뒤바라지 해주신다. 《조국》이라는 고귀한 이름과 련결되어 있고 《혁명》이라는 크나큰 사업과 결부된 녀사의 아드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은 적들에게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시고 연예공연장을 떠나지 않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뜻을 적극 찬동하시고 경찰놈들이 옥실거리는 관람석으로 강잉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장면과 끝내 반동경찰에게 체포되신 위대한 수령님을 구원하기 위한 대중적항의와 룡성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형상들에서 가장 숭고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이시기 전에 혁명조직의 유일한 지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동경찰의 수중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조직원의 의무와 구실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조직을 발동시켜 수령님을 구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짜신다. 그러시고는 병약하신 몸으로 대소한의 령혹한 추위속에 긴긴밤을 경찰서앞에서 새우시며 사회적압력을 들이대고 군중시위로 경찰놈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조직원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고무격려해 주신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자애로운 사랑과 정성을 합친 것보다 더 크나큰 강반석어머니의 그 사랑은 서리불린 구류장에까지 흘러들어 우리 수령님의 마음을 따듯이 감싸주었다.

소설은 이처럼 애국의 녀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줄기차게 관통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숭고한 인생관, 참다운 혁명관을 다면적으로 감동깊이 밝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자식간의 사랑도 맹목적인 것이 라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으로 될 수 없으며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담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된다는 심오한 인생철학을 감명깊이 보여주고 있다.

장편소설은 다음으로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정의 세계를 격식화하고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생활적형상속에 립체적으로 그려 보이고 있다.

소설에서는 혁명하는 사람은 일단 시작한 일을 끝장을 볼때까지 목적인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강반석어머님의 성격형상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이 자기 조국, 자기 인민에 대한 가장 순결하고 무한한 사랑과 정에서 분출된것임을 구체적인 생활세부들을 통하여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주에서 반일세력들과 그 온상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저들의 대륙침략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는 일제의 음흉한 속심과 그에 아부굴종한 중국반동군벌들의 탄압책동으로 백산학교가 폐교의 위협에 처하였을 때 최진용총관을 비롯한 무송지구의 민족주의독립운동의 원로들과 유지들은 전전궁궁하며 어쩔줄을 모른다.

지어 일제의 간악한 백색테로만행에 겁을 먹고 사상적동요를 일으켜 허황한 무저항, 비폭력주의자로 굴러떨어진 윤해송은 덮어놓고 당국의 요구대로 백산학교를 무조건 닫아매야 한다고 기승을 부린다. 그들의 태도인즉 초래하게 될 피비린내나는 일제의 탄압소동과 동포들의 운명을 놓고볼때 소학교 하나가 무슨 대수겠느냐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그들의 무책임하고 회피적인 립장에 견해를 같이 하실수가 없으시였다. 백산학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후대교육사상과 크나큰 로고가 깃든 애국주의계몽교양의 거점으로서 선생님께서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도 불쌍한 조선의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잘 돌보라는 신신당부를 어머니께 유언으로 남기신 사연깊은 학교였다. 소설은 백산학교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심리적굴곡을 체험하시는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내면세계와 놀들의 권모술수와 탄압에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기어이 김형직선생님의 뜻대로 백산학교를 애국의 배움터로 변함없이 꾸려나가기 위한 어머니의 투쟁을 감동깊이 펼쳐나가고있다. 소설은 백산학교폐교의 부당성과 적들의 간교한 흉계를 까밝히시고 중국의 교육인사들과의 연계밑에 학교의 재인가를 끝내 받아내시는 어머니의 용의 주도한 활동과 무송지구의 애국적인 부녀들을 발동시켜 백산학교를 더욱 훌륭하게 꾸리고 배움의 종소리를 변함없이 울리도록 하시는 어머니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김형직선생님의 유지대로 조선의 어린이들을 독립성업의 튼튼한 기둥들로 키우시려는 어머니의 굳센 의지와 건인불발의 노력을 감동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참다운 해방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을 바쳐가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불멸의 활동과업적은 나라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래일의 민족의 운명인 후대들을 믿음직하게 키워야 할 중요한 사명을 지닌 우리 녀

성들을 애국적으로 계몽교양하시고 혁명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우시는 전인미답의 투쟁에 대한 형상을 통해서도 감동깊이 펼쳐보이고있다.

어머님께서서는 남존녀비의 봉건적질곡과 녀성계몽사업의 홀시로 시대와 독립운동의 령역밖으로 밀려난 천덕꾸러기 녀성들을 꾸준한 설복과 교양으로 자기 힘에 눈을 뜨게 하시고 《ㄷ. ㄷ》의 혁명사상으로 굳게 뭉친 당당한 반일부녀회성원으로 키워주신다. 그리고 녀성이라면 무턱대고 짚보던 민태감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완고한 녀성천시사상을 뿌리뽑아주시기 위하여 어머님께서 기울이신 뜨거운 마음과 인내성있는 노력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조국과 혁명의 요구라면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완강하게 투쟁하시는 어머니의 견결한 품모는 《새날》신문의 발간에 절실히 필요한 등사기를 구하기 위하여 수십리 눈길을 헤쳐 말리허독립군병영에까지 가시여 중대장을 설복하고야마시는 어머니의 형상과 대낮에도 맹수가 돌아치는 심산속 산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혁명조직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멀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숭고한 모습을 통해서도 감동깊이 안겨오고있다.

소설은 또한 웅심깊은 인간애와 넓은 포용력으로 수난속에 헤매이던 동포들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재생과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위대한 품모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의 생활을 통하여 감동깊이 묘사하고있다. 동포가정들에 대한 헌신으로 일관된것이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한생이였고 곧 혁명이였다. 어머님께서서는 백산학교 김일준교장이 서울공산당과 연계된 적색분자로 주목되어 일제경찰에게 체포되고 가택수색까지 당하였다는것을 아시고 그의 가족을 안정시키고 김일준의 생사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신다.

어머님께서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장례일로 생일을 못 쇠여준 둘째아드님께 떡을 해먹이려던 열마안되는 좁쌀마저 아낌없이 퍼가지고 가시여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앞에 놀라고 상심하여 쓰러진 김일준의 안해 최씨에게 힘과 고무를 주기도하신다. 또한 왕지주의 모략으로 외동딸에게 첩살이의 치욕을 들씩워놓게 된 자책감과 좌절감으로 외팔이 조서방이 목매달아 자살하였을 때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를 위해 초상제도 성의껏 지내도록 하시며 입심드센 정씨와 그의 남편이 조서방 살인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는 몸소 아이들도 거두어주시고 그들부부의 석방을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신다. 무지렁이인생들로 착취받고 천대받는 그들모두를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민족의 한 살점처럼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는 어머니의 숭고한 인간애는 한 처녀의 꽃같은 청춘을 지켜주기 위해 포악한 왕지주와 사생결단

으로 싸우시는 숭고한 모습과 반일부녀회의 결성 모임에서 녀성의 굴욕에 찬 피눈물의 력사가 함축된 일부 녀인들의 이름을 뜻이 깊고 아름답게 새로 지어주시고 그들이 빛나는 생을 지니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도록 해주시는데서도 가장 가슴뜨겁게 형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설은 의지가 나약하고 계급적각성이 무딘 김일준의 안해를 교양하여 종내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미신에 물젖은 민태감과 일제의 마수에 통락당하였던 윤해송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다운 재생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해주시는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숭고한 애정과 포용력에 대해서도 폭넓게 형상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모진 착취와 억압속에 굴종과 수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강반석어머님에 의하여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손으로 인민의 새세상을 건설해나가는 투사로, 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나는 형상을 통해서도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풍모를 다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똥녀, 셋째, 정씨와 갓난이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녀성들이 낡은 사회에서 사람값에 못드는 무지렁이인생들로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비참한 운명의 길을 걸어왔다.

돈이 없고 글을 모르는 탓에 왕지주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 인생을 타락의 시궁창에 파묻어버릴 뻔 했던 개똥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어도 녀자라는 죄아닌 《죄》로 하여 이름 석자 조차 가지지 못했던 셋째와 정씨, 갓난이 어머니들... 소설은 천대와 멸시속에 피눈물로 살아온 이들에게 혁명의 눈을 띄워주시고 뜻깊은 새 이름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뜨거운 인간애와 혁명적사랑이 그들 모두를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없는 강의한 혁명가들로 성장시켜주었다는것을 구체적인 생활화목을 통하여 감명깊이 그려보여주었다. 특히 가냘픈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자기 몸을 강물에 내던졌던 개똥녀가 어머니에 의하여 교양육성되어 반일부녀회 부회장으로까지 자라나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순박하고 성실한 광명준이 청혼의 편지를 보내왔을 때조차 생명의 구원자라는 전제로 처녀의 순정을 쟁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지 말라는 존엄높은

향변의 글을 써보냈다는 편지세부는 새 력사, 새 인간의 탄생에 대한 격조높고 감동깊은 구가로 된다. 소설은 이와 같이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고결한 생애와 아드님의 혁명활동을 온갖 지성을 다하여 적극 도우시면서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시대를 고귀한 업적으로 수놓으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형상을 여러모에서 립체적인 묘사로써 훌륭히 창조하였다.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상)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데서 커다란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소설은 우선 초기 반일애국운동과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실패와 교훈을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한데서 찾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목숨으로 받들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혁명의 생명선이고 필승의 담보라는 혁명의 철리를 구체적인 생활화목을 통하여 천명하였다.

소설은 또한 강반석어머님의 존귀하신 형상과 함께 열렬한 반일애국투사이시며 견결한 혁명가이신 김형권동지와 리보익할머님을 비롯한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형상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되었다.

소설은 강반석어머님께서 만아드님이 체포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받으시고 혁명조직을 보호할 대책을 취하신 다음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의 묘소를 찾아 나라 찾을 맹세를 더욱 굳히시는데서 끝난다. 이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 헤쳐가셔야 할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과 그 길에서 피와 사랑을 바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받드시고 조선혁명의 려명을 안아오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영광의 로정을 그려보며 독자들은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하)의 출판을 손꼽아 기다린다.

동갑나이

김은희

나는 지금 한장의 사진을 우러르고 서있다.

주체57(1968)년 9월 남포혁명학원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자녀들속에 계시는 사진이다.

우리러볼수록 사진은 경탄이랄가, 황홀감이랄가 이름못할 감정을 자아낸다.

그리고 기쁘시여 만면에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유자녀들을 대견스레 굽어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은 어리광을 부리듯 솟겨온 태도로 무엇이라 말씀드리지는 한 소녀의 모습에, 서로 어깨성을 쌓고 바투바투 다가들 드는 다른 소녀들의 모습에 부각되어 더더욱 아름다운 력사의 한 장면을 펼쳐고있다.

정말 어버이수령님은 생전에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셨다.

지난해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0돐행사에 참가했던 동창생을 만났던 일이 떠오른다.

정말 뜻밖이었다.

행사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곳을 참관한 소식이 텔레비죤화면에 비쳐질 때 오래간만에 동창생의 모습을 보게 될줄이야.

반가운 심정을 누를길 없어 전화번호를 늘렸다. 물론 그가 있을리 만무하였다. 행사장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그의 세대주에게 기다린다고, 돌아오면 꼭 만나잔다고 일러주고 전화를 놓았으나 그 흥분은 며칠을 갔다.

후에 둘이 만났을 때의 그 심정은 뭐라고 이름할수 없었다.

나의 손을 꼭 잡은 그는 흥분조로 이렇게 말했다.

《정말 굉장했어. 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10년, 15년후에야 만나는 사람들이 대다수니 밤가는줄 모르고 법석 났었지. 상급생이고 하급생이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만나고보니 동갑이들 같더라니까.》

동갑나이!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말이였다.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피줄기를 이어가는 길에 혁명가유자녀들 모두를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한동아리로 키워낸 어버이수령님의 육친과도 같은 사랑의 력사, 깊고도깊은 정의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가.

해방후 만주광야로부터 시작하여 백두산야 조국의 방방곡곡 몇천몇만리에 흩어진 혁명전사들의 자녀들을 덤불속에 씨앗 골라내듯 한명한명 찾아내어 평양으로 데려오신 그때부터인가.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모두가 귀한 내 자식 같아 한명도 떨구어둘수 없다시며 몸소 유자녀들로 친위중대를 무어주시고 병아리 품듯 품안에 감싸안으시고 다니시던 그때부터인가.

정녕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육친의 정이고 사랑이였다.

내가 너희들의 친아버지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구실을 하겠다시며 《아버지!》, 《아버지!》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매여달리는 유자녀들을 품안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이런 사랑의 서사시는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그대로 아로새겨졌거니.

주체57(1968)년 9월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남포혁명학원창립 10돐기념 경축행사에도 몸소 참가하시여 것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품을 놓으시고 학생들이 출연하는 예술공연과 집단체조도 보아주시고 아버지들이 못다한 혁명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뜻깊은 말씀도 해주시였다.

하기에 그 품에서 자라난 혁명가유자녀들이 당과 혁명의 중요부문들에서 한몫 단단히 제끼는 중진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 아버지들이 못다한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메고 나가고있는 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세계에서 자라난 유자녀들이여서 그들사이에 오가는 정은 나이를 초월하였고 세대를 룡가하였다.

학원이라는 크나큰 지붕,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에서는 상급생, 하급생이 따로 없었고 소학반학생이나 중학반학생이나 똑같은 동갑내기들이였다.

노래부르며 줄지어 오가던 학원구내길에 자오펑이 떠돌던 정향꽃향기도 같이 맡으며 자랐고 성찬의 냄새도 흐뭇하던 드넓은 식당의 식탁들에 나란히 앉아 장군님의 사랑어린 줄당콩밥도 같이 먹고 생일상도 출생년에 관계없이 똑같이 받으며 성장하였다.

정말이지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가지수와 간식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 비할바 없이 훌륭하였다.

밤이면 취침구령이 내린지도 이숙한 시간이건만 생활지도교원의 눈치를 피해가며 끝없이 속삭이고 재잘거리다못해 이쪽 호실에서 저쪽 호실로 맨발바람으로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어찌 지울수 있으랴.

한가정처럼, 한형제처럼 영키여지고 뭉쳐진 유자녀들의 세계여서 그런지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역시 그 누구들보다도 더욱 절절하였거니.

지난해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60돐행사에 참가하여서도 매일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였으면!...

그 소원 헤아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수령님과 어머님께서 품들여 키우시고 애지중지하시던 유자녀들인데 만나봐야 한대시며 기념촬영장에 나오시었을 때 온장내는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아버지!》, 《아버지장군님!》.

자애로운 사랑과 만단사연이 어리신 눈길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학원졸업생들을 정깊게 바라보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은 울며 웃으며 만세의 환호성 올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고...

정말 눈물없이 바라볼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이였고 이날의 이야기는 우리 당 력사에 또 하나의 전설로 뜨겁게 새겨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혁명가유자녀들사이에 흐르

는 이 혈연의 감정이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는 수많은 동갑나이 충신들을 낳게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장군님께서 아시는 선군시대 애국자가 되자. 이 하나의 일념으로 학원졸업생들은 자기 맡은 초소에서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60돐기념 텔레비존방송무대가 진행될 때였다.

머리희스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위중대출신의 혁명가유자녀로부터 시작하여 집단적으로 농업부문에 진출한 강반석혁명학원 졸업생녀인들, 아버지처럼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최전연초소에 선 인민군관들과 애젊은 병사들, 만경대혁명학원아들이 무대에 나란히 서서 노래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다.

애어린 소학반학생으로부터 나이지숙한 로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시대인으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정말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따라 혁명의 붉은기를 들고 끝까지 나아갈 하나의 숨결이 맥박치는 장면, 직업이나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마음만은 하나같이 동갑나이인 혁명가유자녀들의 결의가 엿보이는 화폭이었다.

동갑나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받아 안을 때에도 동갑나이!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고 못 잊는 마음에서도 늙고 젊음이 따로 없는 동갑나이들!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것이다. 달리는 살래야 살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위업을 받들어나가는데서도 영원히 보답의 길만 걷는 동갑나이로 한생을 빛낼것이다.

가마마차에도 올라보시며

어느해 5월이었다.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높고 험한 령을 넘어 한 중대에 도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식당에 들리시여 간장의 질상태도 알아보시고 어떤 국을 끓여먹는 가가마안도 들여다보시였다.

그러시다가 이곳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구분대군인들이 야외훈련을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거기에도 가보자고 하시였다.

야외훈련장은 맹수들도 드나들기 꺼려한다는 깊고 험한 산골짜기에 전개되어있었다. 그곳까지의 길은 대단히 험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병사들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가봐야 한다고 하시며 그 길에 혼연히 오르시였다.

그이께서 야외훈련장에 도착하시였을 때는 점심 무렵이었다.

군인들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훈련장의 한켠에 꾸려진 야외식당에 들리시였다.

야외식당에서는 가마마차가 더운 김을 뚝뚝 피워올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리대우에 무드기 쌓여있는 갖가지 부식물들을 살펴보고 어떤 음식을 만들고있는가 알아보신 다음 이어 가마마차로 다가가시였다.

가마마차에서는 열이 확확 풍기고있었다.

동행한 일군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막아서려고 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전사들이 뭘 끓여먹는가 좀 보자고 하시며 미처 말릴새없이 가마마차에 성큼 올라서시였다.

그이께서는 가마뚜껑을 차례차례 열어보시였다.

이윽고 가마마차에서 내려서신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야외훈련때는 다른 때보다 더 따뜻하게, 푸짐히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

고 군인들이 야외에 나와 훈련하느라면 어느때와 달리 배가 고플수 있기때문에 잘 먹이는것과 함께 식사를 제때에 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귀중한 우리 전사들이 시장기를 느끼지 않게 밥을 제시간에 먹게 하려면 야외취사장울 잘 꾸리고 쌀과 부식물을 충분히 대주어 밥을 제때에 짓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야외식당은 꼭 개울가에 설치하라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다가 시간을 알아보시더니 전사들이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어서 떠나자고 하시였다.

이때 누구도 선뜻 응답하지 못하였다.

아침도 건넌시고 점심시간이 되도록 휴식 한번없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이시였으니 군인들이 어찌 그냥 바래워드리자고 하겠는가.

더운 밥과 더운 국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점심식사를 차려드리고싶은 마음은 수행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꼭 같았다.

가마마차에서 풍기는 흰쌀밥냄새와 구수한 고기국냄새는 그 심정에 더욱 부채질을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사들이 제때에 점심을 먹게 하시려고 어서 떠나자고 재촉하시였다.

잠시후 승용차는 훈련장을 떠나 험한 령을 오르내리며 달렸다.

차안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꾸러가지고 오신 췌기밥 몇덩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이의 점심밥이었다.

그때쯤 병사들은 훈련장의 야외식당에서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더운 밥과 국을 마주하였을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훈련장을 떠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길가에 차를 세우시고 찬물 한고뿌로 췌기밥을 드시리라고.

배춘남

당의 품속에서 노래와 함께 산 시인(1)

박춘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가에 대하여서는 동무들이 이미 생활을 통하여 많이 체험하였을뿐아니라 앞으로 계속 체험하게 될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작가 조령출을 접견해주시고 그의 창작을 지도해주신 하많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할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생의 말년에 받아안은 무상의 영광에 대해서만은 이야기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82(1993)년 2월 조령출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최상의 행복을 지니도록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백인준, 신진순, 김원균, 유경애, 문예봉 등 오랜 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조령출의 이름을 친히 찍으시며 이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 주신것이다.

잊을수 없는 영광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는 그에게 작가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뜨거운 정에 넘친 말씀과 함께 그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한사람씩 독사진을 찍읍시다라고 하시며 조령출과도 사진을 찍어주시는 커다란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단란한 한가정의 식구처럼 그들을 원탁에 둘러앉히시고 자애에 넘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얼마전에 자신께서 년로한 항일투사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셨다시며 동무들이 보고싶었다, 년로한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싶어 김정일동지에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동무들과 만나게 해주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신임이 있기에 영광의 자리가 마련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문학예술사업을 벌리시던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오찬을 마련했다 하시며 그들과 언감자국수를 함께 나누기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그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혁명적의리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문무충효를 겸비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반들어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제는 동무들만이 아니라 동무들의 자녀들이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

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조령출은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 가까이에서 자기가 지은 헌시 《위대한 명절》을 랑송해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랑송을 마치고 인사를 드리는 조령출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치하해주시며 그 시를 두고가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배래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움을 받으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령출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며칠후에는 조령출에게 최신형고급승용차를 선물로 보내주시였으며 주체82(1993)년 2월 만수대에술극장에서 영화예술인들이 준비한 경희극공연을 보시러 나오실 때에도 조령출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축하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해주시였다.

세상에 어머니사랑이면 이렇듯 위대한 어머니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작가는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그이께 감사의 말씀 한마디 드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위대한 어버이께 드리는 편지를 삼가 올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준전시상태에 있던 주체82(1993)년 3월의 그 긴장한 시각에도 작가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였다. 그리고 존함과 날자를 써주시고 그것을 가보로 보관하도록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은 정녕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는 참으로 전설같은 사랑이였다.

조령출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처음 몸가까이 모시고 창작에 대하여 강령적인 말씀을 받는 영광을 지닌것은 그이께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첫 검열공연을 보아주시는 날이였다.

영광의 그날로부터 시작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어찌 다할수 있겠는가. 창작과 관련된 이야기는 생략하고 작가개인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몇가지 더 언급한다.

주체62(1973)년 7월 혁명가극 《남강마을녀성들》을 보아주시는 자리에서 당시 평양시당비서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평양예술단에서 창조한 가극을 보아주시것을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조령출을 돌아보시더니 보았는가, 어떻던가고 물으시고는 조령출동무가 좋다고 하니 봅시다라고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시자 그는

참으로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주체64(1975)년 10월 어느날 가극 《호수가의 이야기》가 범한 잘못된 점을 적라라하고 명철하게 지적해주시었을 때 너무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조령출과 창작가들은 정말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너그러이 웃으시면서 조령출선생, 어쩔습니까, 바지가 꿰지면 새 바지를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긴장했던 그와 창작가들은 그이의 너그러운 인품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체69(1980)년 8월 어느날 해당 부문에서 창작지도일군들의 생활문제에 대하여 그이께 문건으로 보고드렸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친필로 건강을 료해하시오, 창작지도간부들은 건강조건에 맞게 일과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시오, 조령출동무는 저녁에 일찍 퇴근하도록 할것이라는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의 건강에 대하여 념려하시며 주신 가르치심만으로도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벅찬 일인데 주체70(1981)년 3월에는 100년 묵은 산삼을 보내주시었으며 주체72(1983)년 11월에는 일흔둘 생일상까지 안겨주시었고 주체71(1982)년 4월에는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가에게 베푸신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다.

주체82(1993)년 5월 작가 조령출이 로환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는 아직 좋은 글을 더 쓸수 있는 아까운 작가를 잃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그가 앓지 않았으면 좀더 살아있을수 있었겠는데 참 안되었다고,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본것은 영화에 출연하는 경희극 《한마음 한뜻으로》를 볼 때였다고, 그는 얼마전에 수령님의 접견을 받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 조령출동무가 사망한 가슴아픈 일에 대하여 오늘 저녁에는 보고드리지 않겠다고, 수령님께서 래일 아침신문에 내는 부고를 보시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조령출동무의 사망에 대한 부고를 《로동신문》을 비롯한 중앙급신문에 다 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그는 저명한 작가이므로 부고를 잘 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아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조령출동무의 장례를 최대로 잘해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이 말씀은 수령과 작가간에 꿇을래야 꿇을수 없는 혈연적紐대를 굳게 해주면서 우리 작가들에게 고무적힘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원천으로 되게 한다.

작가 조령출의 한생은 작가의 정치적생명과 창작활동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수령의 령도를 받는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최상의 영예이며 최대의 행복이라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준다. 또한 그의 창작을 통하여 우리는 작가의 참다운 창작적개성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꽃펴날수 있고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작가들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작활동을 벌려나갈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

가사

내 나라는 노래가 많은 나라

최성률

불멸의 송가로 새날이 시작되고
축원의 노래로 별들이 빛나네
창조의 노래속에 언제가 높이 솟고
위훈의 노래속에 기념비 일떠서네
아 노래로 전진하고 노래로 승리하는
내 나라는 내 나라는 노래가 많은 나라

한흠의 미시가루 함께 나누며
백두의 눈보라를 노래로 헤쳐왔네
불타는 전호속에 화선악기 울리며

전화의 불비도 노래로 이겨왔네
아 노래로 전진하고 노래로 승리하는
내 나라는 내 나라는 노래가 많은 나라

우리의 노래는 힘찬 투쟁의 노래
우리의 노래는 높이 든 붉은기
한별의 노래로 시작한 우리 혁명
장군님 노래높이 강성대국 떨치리
아 노래로 전진하고 노래로 승리하는
내 나라는 내 나라는 노래가 많은 나라

조선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께 경의를

-이 시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의 탄생 90돐에 드립니다-

로싸니파 캄보스

동방조선에 찬란한 빛 뿌리는
빨찌산의 녀장군
김일성주석의 가장 가까운 전우이신
민족의 영웅 김정숙녀사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에게
부모, 동생 온 가족을 다 잃으시고
나라 찾을 결심 품고 항일전에 나서신 그이

김일성장군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여
나라의 해방 위한
싸움의 길에서 용맹을 떨치시었나니

항일의 혈전만리
고난의 행군도 함께 하시며
대원들에게 승리의 신심도 안겨주시고
명사수로 그 이름 떨치시며
원썬들을 소멸하신
빨찌산의 녀걸 김정숙녀사

대사하치기전투에서
온몸이 육탄이 되시여
김일성장군의 안전을 지키시고
명중탄으로 원썬들을 섬멸하신
김정숙녀사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피흘리는
조선을 해방하기 위해
인민들을 계몽시키시여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고

어린이들속에서
자신의 기쁨 찾으시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 다 바치시며
조선의 미래를 키워오셨네

유격구의 아동단체임자로도 사업하시고
회령의 백살구꽃향기
신파와 도천리에도 뿌리시였네

빨찌산의 녀걸 김정숙녀사
혁명투쟁의 전기간
동지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동지들을 위해 살고
동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투사

선배들을 존대하고 아끼는것은

조선의 아름다운 전통이며 문화
때로는 부상병들의 간호병이 되시여
동지들을 극진히 간호하고 치료하시였네

때로는 취사병도 되시여
성의 갖든 음식도 만드시며
투사들을 즐겁게 하여주시였네

밀영의 깊은 밤
 뜬눈으로 새우시며
투사들의 군복도 만드시였고
압록강가에서
동지들의 옷도 빨아주시며
《사향가》를 부르시여
조국에 대한 깊은 추억도 불러일으키시였네

김일성주석께서는 말씀하시였네
김정숙동무는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여성혁명가라고

녀사의 어깨우에는
언제나 총이 있었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선의 미래를 지켜주는
계급의 총, 혁명의 총이 있었네

그 총을 들어주시고 최후결전의 나날
락하산병도 되시고
반파쑈투사로서
위대한 국제주의전사로
반제투쟁에 빛나는 공헌을 하셨네

해방후 나라의 통일을 위한
김일성주석의 사업을 보좌하시고
김일성주석을 보위하는 호위전사도 되시며
국방사업에도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네

광활한 우주에서
별처럼 빛을 뿌리신 위대하신 녀사
뜻밖에도 우리 곁을 떠나게되실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녀사께서는 비록 애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였어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리
용감한 항일의 녀걸로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아름다운 꽃으로

오늘은 녀사께서 탄생하신 90돐
우리모두
뜨거운 사랑안고 녀사를 추억하노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탄생일을 맞으며
녀사의 영웅적위훈
가슴깊이 추억하며
당신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조선인민과
선량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위해 혁명을 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시었나니

브라질의 끌라우디오 캄보스에 의해 창건된
10월8일혁명운동은
사랑과 친선의 정을 담아
당신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10월8일혁명운동 총비서
셰르지우 루벤스도
뜨거운 형제적사랑을 담아
김정숙녀사께 송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별로 영원히 빛나는 녀사
녀사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우리는 **김정일**동지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주의조선
자기 운명을 책임진
자유롭고 행복한 자주적인민이여
선군조선이여
영원히 부강번영하라!

위대한 **김일성**주석
김정일동지
김정숙녀사는
브라질인민의 영원한 친우이십니다

조선인민 만세!
브라질인민 만세!
전세계인민들의 위대한 친선 만세!

(필자는 브라질 10월8일혁명운동 전국비서국 성
원임)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녀사

아드리안 리꼬

그 이름
혁명의 성스런 천사
주체의 어머니
우리의 향도자
김정숙

대양건너에서도 알고있는 어머니
신화적인 친절성과 열정을 지니신
그이

그러나 잊지 마시라
사람들이여
그이는 녀결
정의로운 모든것을 위하여 싸우신
투사 그이는
농민의 딸로 태어나신
인자하고 박식한
자유로운 조선의 어머니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자신의 한몸도 서슴없이 내대신
그이
위대한 수령님께 그 누구도 대신 못할
지극한 정성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려운날 격려도 주시였어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녀사

우리는 그이의 사랑하는 아들딸
그이께선 주체라는 성스러운 말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시였어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가르치듯이

그이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옹호자
그이는 우리의 신성한 어머니
피부와 언어와 풍습은 달라도
평화와 번영의 기치아래
하나같이 뭉치자
주체형의 인간이 되자

어머니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어머니의 한생을 더듬어보시라
온 세상 인민들이여
위대한 어머니를 생각하시라
그이는 오늘도 우리곁에 계시며

웃으시며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지켜보시네

거룩한 녀사 그이 계시여
조선은 위대한 나라
창조와 비약의 기상 나래 친다네

그렇다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녀사이시여!
자부하시라

녀사의 녀원 활짝 꽃피여
룡성번영하는 오늘의 조선은
모든것이 흥하고 행복이 꽃피는 나라
세계가 우러르는 부강한 조국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리라!

(필자는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
회 미국지부 성원임)

혁명설화

새벽에 울리신 총성

위대한 장군님 따라 부강조국건설의 힘찬 진군을 다그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엄한 모습이 별처럼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은 여러 번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주었다고, 내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육탄이 될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28(1939)년 6월이였다.

무산지구에서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적극적인 유격활동을 벌리시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올기강방향으로 진출하시였다.

무산지구와 휘풍동일대에서 된타격을 받은 일제는 어떻게 하나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두만강연안의 국경일대와 화룡현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공격해왔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휘풍동을 떠난날부터 적들은 멀리에서 뒤따르기 시작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성된 정황에 대처하여 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어느 한 고지부근에서 숙영할 때였다. 대원들은 거듭되는 전투와 행군의 피로로 깊이 잠들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른새벽에 일어나서 산밑으로 내려가시였다. 산나물이라도 뜯어 아침배식을 보탬하려는 생각도 계시였지만 어쩔지 뒤따르던 놈들의 거동이 심상치 않으니였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부지런히 산나물을 뜯으면서 걱정이 없는가를 경각성있게 감시하시였다.

이때끝까지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썹움썹 움직이였다.

《결사대》라는 완장을 팔에 낀 100여명의 《토벌》대 놈들이 도적고양이 모양으로 살금살금 사령부숙영지쪽으로 기여들고있었던것이다. 이놈들은 지주, 친일주주의 자식들로 조직된 악질적인 놈들로서 사령부를 《소멸》하기 전에는 절대로 둘

아오지 않겠다고 혈서까지 쓴 놈들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목숨 바쳐서라도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더 생각할 사이없이 사령부가 있는 반대방향으로 번개같이 달리시며 적들에게 련속 명중탄을 안기시였다. 그럴 때마다 뒤따르던 적들이 너부러졌다. 그러나 상대가 녀성이며 또 혼자라는것을 알아본 적들은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갑자기 울린 총성에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난 대원들은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적들의 등뒤에 대고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결국 김정숙동지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적들은 몽땅 소멸되고말았다. 전투가 끝난후 대원들이 달려갔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진대나무에 몸을 의지하시고 쓰러져있었다.

대원들의 부름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의 안전부터 물으시였다.

사령부가 무사하다는 대답을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이 한몸 재가 되더라도 장군님께서 안녕하시면 한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대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말없이 삼키였다.

진정 피어린 항일의 격전장들마다에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신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화폭이 얼마나 많이 비껴있는것인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새벽에 울리신 총성, 그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치신 위대한 호위전사의 수령결사옹위의 메아리였다.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수령결사옹위야말로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고 도덕이고 의리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모습은 선군시대에 더욱 세차게 나래치는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 조국이 천리마의 나래를 펴고 주체의 강국으로 비약하게 한 강선의 노을, 자력갱생의 노을이 온 나라를 뒤덮게 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강선의 노을

작사 김재화, 작곡 강창렴

노을은 아침저녁 피고지건만
강선의 붉은 노을 언제나 피네
아 아버지 그 사랑
하늘땅 끝까지 넘쳐흐르네

만경대고향집을 옆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 먼저 찾아주셨네
아 그날의 그 사랑
아름다운 노을속에 어리어오네

아
아그날의 그 사랑

아름다운 노을속에 어리어오네

아 아 아
노을은 아침저녁 피고지건만
강선의 붉은 노을 언제나 피네
아

충성의 마음담아 끓는 쇠물은
수령님사랑속에 노을로 피네
아 아버지 그 사랑
주체시대 노을속에 영원하리라
아

더 붉게 라오르라 강선의 노을이여

위명철

공화국창건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이 땅 어디서나 울리는 노래 《강선의 노을》!
우리 장군님의 손길아래 새롭게 태어난 《강선의 노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끓여주며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준다.

1

강선의 노을!
그 부름 가슴속에 안노라면 의례히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
12월의 흰눈을 맞으시며 강선의 구내길을 걸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그 영상.
조국과 인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에는 더 증산해야 할 1만톤의 강재가 무겁게 실려있었음을 그때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조용히 내리는 함박눈조차 수령님의 마음속에 강피마냥 무겁게 엮어지던 그야말로 증중첩첩,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오늘도 우리 수령님 12월의 찬눈을 맞으며 강

선의 로동계급을 찾아오시여 그들과 함께 무릎을 마주하셨던 강선의 창고건물 도람통난로에서는 사연많은 력사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고있다.
이 어려운 시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난국을 타개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그 뜨거운 믿음이 강선의 하늘가에 붉은 노을을 펼쳐주었다.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에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또 얼마나 세차게 끓어번졌던가.
《수령님, 1만톤의 강재는 넘려마십시오.》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

우리 수령님과 강선의 로동계급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끓던 력사의 밤이었다.
이 세상 다시없는 사랑과 믿음의 숭고한 화폭이었다.
강선의 노을, 자력갱생의 노을은 이렇게 태어났다. 밤이 펴 깊어 제강소를 떠나시면서 수령님께서 나는 오늘 강선에 와서 큰 힘을 얻었다고, 나는 동무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실 때 강선의 하늘가엔 강선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사뭇치는 쇠물

빛 노을에 어려 흰눈이 아니라 붉은 눈이 내리고 또 내렸다.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강선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신념의 붉은 기발이었고 운명의 하늘이신 수령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뿌려주신 축복의 붉은 꽃보라였으며 수령님만을 믿고파를 강선로동계급의 열화같은 맹세의 분출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는 우리 인민이 발휘한 집단적영웅주의의 뚜렷한 표현입니다.》

우리 수령님품속에서 태어난 강선의 노을!

이 천리마의 붉은 노을을 펼쳐주시려 우리 수령님 바쳐오신 헌신의 낮과 밤은 그 얼마였으랴. 재가루만 날리던 폐허위에 으뜸가는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우시려 기울이신 수령님의 심혈이 다 어려오고 인민을 찾아 진펄길, 험한 길 가림없이 걸으신 수령님의 발자취가 다 어려있는 강선의 붉은 노을!

그것은 수령님 우리에게 안겨주신 혁명의 붉은 기이며 수령님 우리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혁명의 유산이다.

이렇듯 전설속의 천리마가 강선의 노을속에 네 곱안고 나래펼친 천리마는 수령님의 손길에서 태여났고 그 발구름 높은 천리마의 하늘은 다름아닌 수령님 내다보신 선군조선의 맑고 푸른 창공이었다.

사람들이여! 강선의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의 사회주의조선을 천리마와 함께 유산으로 물려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다시한번 큰 절을 드리자!

2

강선!

천리마!

붉은 노을!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이 말에 펼쳐진 모습은 수령님의 품속에서 힘차게 전진해온 조선의 모습이다.

이 말속에 영웅민족의 기개가 그대로 안겨온다.

원썩들은 백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지껄였지만 우리는 그 폐허에서 보란듯이 천리마를 타고 전기로의 불길을 지퍼올렸고 원썩들의 온갖 악설과 훼방을 낚은 기준과 함께 불살라버렸다.

천리마라는 말은 로동계급의 량심과 의리였고 기적과 혁신의 대명사였다.

천리마휘장을 가슴에 달지 못하면 수치로 느껴지던 시대, 일할맛이 있고 혁명하는 보람이 컸던 그 시대가 바로 천리마시대였다.

천리마의 부름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났던가.

6만톤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밀어낸 강선의 천리마선구자들.

한해 19만톤밖에 못 내던 선철을 27만톤이나 생산하여 나라의 철기둥을 굳건히 세운 김철의 로동계급도 천리마와 더불어 불리워지는 시대의 영웅들이었다.

천리마는 이 땅 어디서나 질풍같이 달렸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불사르라!》

시대의 이 부름이 침체와 담보, 소극성을 송두리채 불살랐고 봉건의 락후성을 밀어냈으며 기술과 문명을 비약의 도약대우에 올려세웠다.

비록 화려하게 입지 못하고 호화롭게 살지 못해도 삶의 보람과 희열, 혁명하는 땀에 가슴이 부풀었다.

아침저녁 통강냉이로 배식을 이으면서도 사람들은 제집살림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말은 일을 더 잘하겠는가를 생각했고 남을 위해 더 바칠것이 없겠는가를 놓고 고심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 구호속에 천리마시대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피와 살도 웃으며 서로 바쳤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데로만 일하고 살았다.

지금은 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그날의 추억이 어제런듯 그날의 천리마기수였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우린 그때 정말 일밖에 몰랐지. 천리마를 못 타면 조선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말은 결코 어느 소설에서 파낸 말도 아니며 어느 토론문의 구절도 아니다.

천리마의 시대속에 젊음을 바쳐온 가장 평범한 공민의 심장의 고백이다.

천리마시대 사람들은 이런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로 시대를 빛내였으며 시대의 갈피마다 충신의 전형을 창조하여 시대앞에, 력사앞에 내세웠다.

더없이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에 헌신하였으며 자기를 바쳐 남을 위해 주는 고상한 품성을 령상사로 아는 여기에 삶의 보람과 공민의 영예를 찾는 사람들!

우리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정신도덕적품모를 한편의 시를 더듬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길가에서 처음 만나도 구면같이
다정스레 인사말 나누고싶더라
가슴에 천리마휘장을 보면—

한두번 꽃면목 익히면
벌써 흥허물없는 사이
룩 어깨를 치며

타관나서 길을 물어도
가슴에 천리마휘장 번쩍이는 동무
그 동무에게 묻고싶더라
그 어느 누구보다 차근차근
묻는 길 대어줄것만 싶어

물건을 살라치면
천리마매대에 가고싶더라
상품에 더하여 돈을 주고는 살수 없는
친절한 마음씨도 함께 안고 오거니
물건사기가 흥겨웁더라

천리마작업반치녀들의 혼담이라면
발벗고 나서고싶더라
가슴의 휘장이 죄 말해주거니
그의 마음씨 사람됨에 대해선
굳이 캐여물줄게 없다고—

...
내게는 생각되여라
천리마휘장 그것은 한낱 휘장이 아니라
우리들모두가 한눈에 환히 알아보게
아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불타는 그들의 심장
그들의 빛나는 마음
특 튀어 밖으로 나온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예술영화 《정방공》의 주인공 옥림이, 단편소설 《백일홍》의 주인공 현우혁이, 단편소설 《길동무들》에서 오명숙이...

이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하나로 합쳐져 우리 조국은 천리마의 거세찬 진군길을 열어 주체의 사회주의공업강국, 자위의 철벽의 요새로 굳건히 다져진게 아니라.

천리마!

정녕 그것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민족이 위대한 수령을 모신 최대의 행운을 받아안아 영웅의 나라, 기적의 나라로 자랑 떨치고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된 이 나라 새 역사의 상징이다.

천리마는 오늘도 네굽을 안고 난다.

격동적인 시대를 눈부시게 펼친 어제날의 천리마가 오늘은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불러오는 선군천리마로 더 높이, 더 빨리 나래쳐오르고있다.

강선의 노을속에 나래치는 천리마는 어제도 조선의 모습이고 오늘도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모습이다.

시대마다 자기의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이 있다.

천리마시대의 불패의 생활력.

그것은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일심단결에 그 원천이 있으며 불굴의 정신과 강毅한 의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칠줄 아는 고상한 정신세계를 지닌데 근본바탕이 있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이 천리마시대를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것이며 원썬들은 우리의 천리마를 그렇듯 무서워하는것이다.

우리의 천리마는 전설의 천리마, 추억의 천리마가 아니며 천리마정신은 력사의 한시기 존재한 시대정신이 아니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던 그 정신, 그 기백은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있으며 시대의 숨결과 맥박으로 변함없이 박동치고있다.

어제날 천리마가 오늘은 만리를 내달는 선군천리마로 발전하였다.

시대의 발전은 곧 천리마의 속도이다.

전진하는 천리마,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손길에서만 담보된다.

수령님의 손길에서 첫 자욱을 뻗고 수령님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달려온 천리마의 모습은 그대로 영웅조선의 모습이며 영웅인민의 불굴의 기상이다.

우리는 이 천리마를 타고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도 일떠세웠고 강성대국의 렬명도 맞이하였다.

반만년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기적적인 사변들도 우리는 천리마가 나래쳐오른 강선의 노을속에서 창조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불로오신 천리마를 오늘날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천리마, 강성대국천리마로 새 세기 하늘가에 나래쳐오르게 하시였다.

어제날 강선에서 천리마정신이 나래쳤듯이 오늘날 가는곳 마다에서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태천의 기상이 혁명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천리마정신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견결한 수호자이신 우리 장군님 아니시라면 10여년전 피눈물의 언덕에서 우리의 천리마는 벌써 렬사의 유물로 남았을것이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앞장에 서시여 아버이수령님께서 전후 재더미우에서 천리마정신을 창조하시였듯이 수많은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계속혁명의 붉은 노을, 강선의 노을속에 강성대국의 렬명을 불려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절세의 영웅이시다.

강선의 노을과 천리마!

천리마와 강선의 노을!

그것은 오늘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대명사로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지심깊이 뿌리내린 말이다.

강선의 노을, 그것은 곧 자력갱생의 노을이며
강성대국의 휘황한 해돋이노을이다.

오늘날 강선의 노을은 이 땅의 새세대, 천리마
시대의 아들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난관앞에, 시련앞에 힘이 진할 때가 있거든 강
선의 노을속에 울려오는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를
안고살라.

용맹을 가다듬을 시각이 올 때 노래 《강선의
노을》을 더 힘차게 부리라.

그리고 노래속에 펼쳐지는 신심과 락관이 넘치
는 래일을 그려보라.

혁명의 혈통, 사회주의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강선의 노을을 계속 피워야 하
며 천리마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조국이어! 인민이어!

우리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강선의 붉은 노을
속에 펼쳐주신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천리마의 기상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파시하자!

강선사람들

권오준

피를 나눈 혈육이어서
내 그토록 못 잊는것인가
그대들 곁을 떠나 멀리 있어도
한시도 잊은적 없는 강선사람들

어이 잊을수 있으랴
나의 추억에 새겨진 그 모습들
오늘도 쇠물과 정을 맺고
심장을 맞대고 사는 그 사람들을

텔레비죤화면에 비끼여 흐르는
강선의 노을밑엔 있어라
우리 수령님과 당중앙을
강철로 억세게 받들며
아버지세대들이 끓이던 그 붉은 쇠물을
오늘도 변함없이
철의 신념으로 끓이는 강선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솔직했던가
강철로 당을 받드는 그 마음엔
한점의 티도 없어
로앞에서 순직하는 그 순간까지
다하지 못한 의무를 두고
이 아들에게 쇠물을 부탁한 나의 아버지

정녕 잊을수 있으랴
내 소환장을 받아들고 평양으로 떠나던 날
이 손목 꼭 잡고 용해공출신답게

어디에 가서도 강선의 노을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작업반사람들을

하루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명절날 자식들의 손목잡고
즐거운 공원길을 걸을 때도
내 때없이 생각하노라
내 몸에서 쇠물내가 빠지지 않았는가를

6만톤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뽑아낸
12월의 용해공들처럼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쇠물을 끓이는 불같은 그 마음들

불을 다루는 사나이답게
웃어도 로앞에서 호탕히 웃고
피로워도 불앞에서
시원히 속 터놓는
내 고향 강선사람들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우리 장군님 더 붉게 물들여주신
그 노을을 안고
인생의 먼길을 곳곳이 걸어갈
나는 강선의 아들
나는 영원히 강선사람이다

강선의 노을에 대한 철학적탐구와 심오한 현상

-노래 《강선의 노을》을 두고-

리주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지난해 보천보전자악단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노래 《강선의 노을》(김재화 작사, 강창렴 작곡)을 오늘의 시대정신에 맞게 독특하고 새롭게 형상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리도 숭엄한 감정으로 이 노래를 받아안고 심장으로 부르는것은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강선의 붉은 노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지 그 사랑이 눈곱 찌릿이 안겨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노래 《강선의 노을》에 담아 올리신 위대한뜻이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기때문이다.

1. 우리 수령님 피워주신 사랑의 노을

노래 《강선의 노을》에서는 하늘, 땅 붉게 물들이고있는 강선의 붉은 노을이 아버지수령님께서 피워올리신 위대한 사랑의 노을이라는 철학적인리를 생활적으로 깊이 형상하고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아침저녁 피고지는 자연의 노을과 언제나 붉게 피여있는 강선의 붉은 노을을 비교함으로써 강한 정서적대조를 이룬 시적정황을 주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워올리신 노을이라는데 대하여 의미깊게 토로한다.

노을은 아침저녁 피고지건만
강선의 붉은 노을 언제나 피네
아 아버지 그 사랑
하늘땅 끝까지 넘쳐흐르네

...

어둠을 불사르며 솟아오르는 해돋이의 붉은 빛을 받아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 아침저녁 피어나는 자연의 노을도 아름답지만 애국의 열정으로 쇠물을 뚫어 나라의 대를보를 세워가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심장에서 불타오른 열정의 노을, 충정의 노을은 더더욱 아름답고 숭고하다는것이다.

2절에서는 강선의 붉은 노을 피워올리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밝히고있다.

...

만경대고향집을 옆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 먼저 찾아주셨네
아 그날의 그 사랑
아름다운 노을속에 어리어오네

...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찾은 조국땅에 오시여 헤어져 20년 그 어느 하루도 잊으신적 없으시였던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기 전에, 늙으신 조부모님들에게 인사도 드리시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고향집을 지나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을 꼭 채우고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강철이었다.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 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유격대원들이 귀한 목숨을 바치었던가. 이제 당장 창건을 선포하게 될 당이 틀어쥐어야 할 혁명의 총대—정규무력도 강철이 있어야 무장시키고 왜놈들이 다 파괴한 경제도 강철이 있어야 복구할수 있는것이다.

강철이자 바로 그 총이고 대포였으며 강철이자 땅크며 함선, 비행기였다. 강철이자 기계였고 공업이었고 국력이였다.

더구나 제국주의침략의 원흉인 미제가 남조선에 기여든 침예한 정세는 한시도 미룰수 없는 초미문제로 강철을 요구하고있었다.

허나 공장은 왜놈들이 다 파괴하고 달아나 빈껍데기만 남아있었다. 로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명이 남아 싸늘하게 식은 로를 지키고있었을뿐이었다.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차림그대로 로동자들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런 내용으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야말로 해방된 조국의 운명을 량어깨에 걸머지고나갈 기둥이며 주춧돌입니다.

계속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복구하여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전체 로동계급이 하나로 굳게 뭉쳐

나가면 점령 못할것이 없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분에 넘치는 믿음을 받아안은 강선로동계급의 심장은 드높이 고동쳤다.

그 악착한 왜놈들을 쳐부시여 나라를 찾아주신 백두의 전설적영웅, 민족의 태양의 위대한 빛발을 남먼저 받아안은 끝없는 감격과 영광을 지닌 강선의 로동계급의 심장은 전기로의 쇠물마냥 끓어번졌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대로 일심단결하여 자기들의 힘으로 인차 전기로를 복구하고 쇠물을 뽑았으며 왜놈들이 조선사람 힘으로는 절대로 돌릴수 없다던 압연기도 살려 강편을 밀어냈다. 하여 강선의 하늘가에는 아침저녁 피고지는 자연의 노을이 아닌 쇠물빛노을—사랑과 충정의 노을이 피어올랐다.

력사의 그 나날, 강선의 하늘가에 피어난 붉은 노을! 그것은 백두의 전설적영웅이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불려온 이 땅의 첫 쇠물노을이었으며 크나큰 그 믿음에 보답하려는 강선로동계급의 충정의 노을, 제힘으로 나라의 기둥을 세워가려는 마음들이 모이고 엉켜 피워올린 자력갱생의 노을, 일심단결의 붉은 노을이었다.

가사의 2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력사적사연을 담아 뜻깊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 강선의 로동계급이 끓이는 쇠물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붉은 노을로 피어 주체시대와 함께 영원하리라는데 대하여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다.

...

충성의 마음답아 끓는 쇠물은
수령님사랑속에 노을로 피네
아 어버이 그 사랑
주체시대 노을속에 영원하리라

강선의 로동계급이 끓이는 쇠물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노을로 된다는 표현에는 참으로 뜻깊은 의미가 담겨져있다.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시련많은 주체45(1956)년.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제1만톤증산문제를 풀기 위하여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로동계급들에게 나라가 처한 형편을 말씀하시고 호소하시였다.

...1만톤의 강제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 지금의 어려운 형편에서 나는 동무들밖에 믿을데가 없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조성된 난국을 헤쳐나가자. ...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은 강선로동계급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여기저기서 불같은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수령님! 나라의 형편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주저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꼭 해낼수 있습니다.

수령님! 종파놈들을 모두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쇠물이 이글거리는 전기로에 집어넣겠습니다, 미국놈들이 덤벼들면 사름치는 쇠물마가지를 그대로 들썩우겠습니다. ...

하여 강선에서는 수령결사옹위의 불바람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경제건설로선과 자력갱생의 기치를 지키며 수령님의 권위를 지키려는 결사옹위의 불바람.

강선의 로동계급은 낮이나 밤이나 로와 함께 살았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감격의 눈물에 젖었고 걸음걸음 따르면서 땀에 젖었다.

강선의 모든 눈빛들은 어버이수령님만을 바라보았고 모든 심장들은 수령님의 심장에 박동을 맞추었으며 억센 발걸음들은 수령님의 자욱자욱을 따랐다.

분피압연기에서 두대치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등골에서 땀이 줄기쳐내리도록 뛰고 또 뛰었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강제증산을 위해 비약의 나래를 폈다. 력사의 그 나날 강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진리를 창조하였다.

자기 수령을 굳게 믿고 우러러 따르는 인민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수 있다는 진리, 인민대중이 자기 수령을 믿고 따를 때 발휘하는 힘은 무한대하다는 진리를.

비약의 폭풍도 일어났다.

6만톤의 능력을 가진 분피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밀어내는 력사의 기적, 천리마의 기적이 창조되였다.

그 나날 강선의 하늘가엔 전기로의 불빛이 어리여 낮이나 밤이나 붉은 노을이 펼쳐졌다.

정녕 강선의 붉은 노을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열렬한 분출, 일심단결의 분출, 결사관철의 분출, 자력갱생의 분출이었다.

3절에서는 또한 강선의 붉은 노을을 피워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이 주체시대 노을속에 영원하리라고 결구를 맺음으로써 시적일반화의 폭을 강성부흥할 창창한 래일까지 넓히고있다.

단 한행의 시구를 통하여 해방직후와 천리마시대, 선군시대와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큰 대문이 활짝 열릴 래일을 하나로 관통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영원하다는것을 노래하였는데 시대의 명작으로서 이 작품의 큰 가치가 있는것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피어난 강선의 붉은 노을은 선군의지의

노을, 자력갱생의 노을, 믿음과 충정의 노을, 계속혁명의 노을이라는데 대하여 뜻깊게 노래하고 있다.

2. 우리 장군님 꽃피주신 강선의 노을

노래 《강선의 노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손길아래 시대의 명작으로 태어났다.

가사가 창작된것은 주체63(1974)년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 종자를 준것은 그 전해에 창작된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이었다.

주체62(1973)년에 창작된 조선화는 풍경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국제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이 창조된데는 깊은 자연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노을을 몹시 사랑하시였고 거기에 언제나 깊은 뜻을 엮어 고전적명작들을 친필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 1절에서는 《청춘도 희망도 노을로 되여/내 조국 강산에 빛발쳐가리》, 3절에서는 《주체의 노을을 펼쳐가리라》라고 노래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서도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이라고 노래하시였다.

이처럼 노을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주체61(1972)년 10월 어느날 미술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뜻깊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며칠전에 강선제강소에 나가보니 저녁노을이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다고, 화가동무들이 나가보고 그려보는것이 좋겠다고, 강선의 저녁노을을 잘 그리면 좋은 조선화작품으로 될것이라고...

미술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어 풍경화를 완성하였으며 주체62(1973)년에 그이께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림을 보시고 ...아주 잘 그리였다고, 우리 나라 색깔을 가지고 조선화물결기법으로 새롭게 풍경화를 그린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강선의 노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강선로동계급의 충성심이 노을로 되여 타오르는듯 하여 저 노을은 더욱 아름답다고 격찬하시였다.

로동당시대의 명화 《강선의 저녁노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아래 창작완성된 그림을 보고 여기서 시상을 받아 노래 《강선의 노을》이 창작되어 강선의 붉은 노을에 담겨있는 위대한 세계를 뜻깊은 형상으로 펼쳐놓은것이

다.

이렇게 창조된 노래 《강선의 노을》은 오늘 또 다시 천리마 나래치던 력사의 그날의 그 정신을 전하며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 울려 퍼지고 있다.

그것은 음악정치로 천만군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며 위대한 수령님탄생 100돐에는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우리 당의 위대한 경륜이다.

3. 우리 군대와 인민이 즐거부르는 노래

강선의 붉은 노을을 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을 그리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노래를 부른다.

강선의 붉은 노을로 온 나라를 뒤덮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 노래를 즐겨부르는것은 그 내용의 숭고한 세계와 함께 노래의 인민가요적특성과도 관련된다.

이 노래는 한번만 들어도 그 내용이 인차 새겨져 깊은 감동을 준다. 그것은 작품의 내용이 뜻깊으면서도 간결명료하기때문이다.

가사에서는 절조식을 전렴 2개 행, 후렴 2개 행으로 함으로써 서정구조를 매우 간명하게 보장하고있다.

가사창작에서 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는 서정구조를 받아들인것으로 하여 이 노래는 군대와 인민들과 더욱 친숙해지고있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시어들도 거의 모두가 노을, 아침, 저녁, 피다, 지다, 하늘, 땅과 같은 입말이나 생활적인 말로 노래됨으로써 더욱 친근한감을 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시문장조직에서 대조의 수법을 적극 리용함으로써 시인의 사상미학적의도를 명백하고 뚜렷이 강조하는 형상적효과를 보고있다.

1절에서는 자연의 노을과 강선의 쇠물빛노을의 대조, 2절에서는 만경대고향집을 곁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으신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내심세계에 대한 심리대조적형상, 1절의 1행에서 《아침》과 《저녁》, 《피다》와 《지다》의 대조적어휘결합들이 그런 실례로 된다.

노래 《강선의 노을》!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이 노래, 새해공동사설의 과업관철에 떨쳐나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큰 대문을 향하여 비약의 나래를 펼쳐가고있는 천만군민의 가슴가슴들에 넘쳐흐르는 노래 《강선의 노을》.

경애하는 장군님 사랑하시는 《강선의 노을》로 가득히 채워진 가슴들이 자기의 초소와 일터마다

에,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그 붉고붉은 강선의 노을을 펼쳐놓을 때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이 세상에서 부러운것 없이 잘사는 인민락원의 행복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될것이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더욱 붉게 피여오를 강선의 노을!

어제날 천리마를 타고 피워올린 자력갱생의 강선의 노을이 전후 재더미속에서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솟구치게 하였다면 선군준마라고 피워올린 오늘의 자력갱생의 강선의 노을은 온 세계가 경탄하며 바라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그렇다, 더더욱 소리높이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이여, 우리 신념의 노래 《강선의 노을》을!

우리 수령님 사랑으로 피워올리신 《강선의 노을》!

우리 장군님 사랑으로 꽃피주신 《강선의 노을》을!

우리 장군님 원대한 포부를 안으시고 높이 올려가시는 노래 《강선의 노을》!

이 노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울려갈것이다.

력사의 대하

류춘선

여기 강선땅
아버이수령님 동상을 우러러
내 삼가 옷깃 여미노라니
울려오누나
그날의 우리 수령님 뜨거운 음성이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수령님 옷자락엔
오늘도 그날의 눈보라가 날리고
굳게 틀어쥐신 억세인 손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휘감아 잡으신듯

제대병사 용해공의 손을
한손으로 뜨겁게 잡으신
그날의 우리 수령님 후더운 숨결이
이 심장에 뜨거이 흘러드누나

아 위대한 심장을 주신
하늘같은 믿음을 안고
우뢰치던 강선의 분피압연기의 동음이어!
이 땅을 물들여가던
강선의 쇠물빛노을이어!

그 심장 지닌
나의 아버지 어머니들
천리마의 영웅으로 자랐고
그 피줄을 이은 내가 태어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씩씩하게 커가는
여기 강선땅!

천만번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흐른대도
이 땅, 이 하늘아래선
변함없이 이어지리라

우리 수령님과 당중앙을
강철로 결사옹위한
천리마기수들의 뉘트로 뜨거운
심장의 박동소리

우리 장군님을
강철로 받드는
주체위업의 한길우에 영원할
력사의 대화!

우리는 장군님을 믿고
장군님은 우리들을 믿고...

나의 하늘-강선의 노을을 바라보며

문선건

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추억에 산다는 말이 있다.

칠십고개를 넘어서니 그 추억은 더 강렬히 찾아 온다.

나의 한생은 자랑할만 한것이 못된다.

허나 수치보다 긍지가 더 많은 한생임을 추억으로나마 자부하고싶다.

어린 나이에 총을 잡고 포화속을 헤쳐온 병사이고 제대되어선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선을 지켜 섰던 강철전사이며 20년나마 당사업을 했다는 것과 백발의 오늘에도 시를 쓴다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걸은 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는 너무도 평범하고 레사로운 한생인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젊은이들과 어울려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른다. 왜냐면 아름다운 추억은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끝나서는 안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천리마대진군속에서 배출된 우리의 영웅들은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진리를 체득한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이며 집단적혁신운동의 기수들입니다.》

1959년 10월 천리마의 기상 나래치던 강선으로 제대배낭을 메고 달려온 나는 곧장 제강소로 임부(당시)로 찾아갔다.

당시 로임부는 정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은 단층건물이었는데 내가 찾아들어가니 교수머리에 뽕채좋은 한 일군이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 쓰고있었다. 그가 로임부장이였다.

내가 제대되어왔다고 배치장을 꺼내보이자 그는 나를 찬찬히 보더니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것이였다. 《어디로 가겠소?》

나는 오래 생각할 여유도 없이 당돌하게 단마디 명창으로 대답하였다.

《제일 힘든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제대군인이 다르구만. 강철직장으로 가시오.》

《알았습니다.》 오돌찬 대답과 함께 발꿈치를 딱 붙이며 군대식으로 거수경례를 하고 로임부 문을 나섰다.

로임부로부터 강철직장으로 가는 길옆에 아담하게 꾸려진 사적지에 늘 마음에 안고 살던 강선의 백양나무가 높이 솟아 타오르는 봉화마냥 전기로의 불노을에 물든 억만잎새들을 흔들며 설레

이고있었다.

내가 오기를 기다린듯 강철직장 사무실 문앞에는 중년나이가 되어보이는 한 일군이 나와있었다.

아마도 로임부장이 전화를 걸어준것 같았다.

나를 데리고간 로임부지도원이 강철직장에 배치받은 제대군인이라고 소개하자 그 일군은 반갑게 맞아주면서 곧장 용해장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불타는 용해장, 단내가 풍기는 용해장에 들어서니 마치 전기로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저마다 불길을 솟구치며 백광을 내어뿜으며 쇠물을 끓이고있었다.

둔중한 전기로의 동음, 분주히 오고가는 천정기중기소리, 출강을 알리는 종소리 등은 화음이 되어 마치도 나를 환영하는 교향곡과도 같았다.

뒤에는 재료장—천정기중기가 파철과 적광석, 석회석을 가득가득 담아실고 분주히 오고가는가 하면 앞에는 조피장—집채같은 쇠물담비에 펄펄 끓는 쇠물을 가득 담아실고 출강기중기가 대형강 피주입장으로 뚝뚝 날아간다.

그런가 하면 불덩어리 그대로인 아름답리 강피를 우물 《정》자로 애어린 기중기운전공처녀가 저 혼자 척척 쌓고있는것이다.

실로 보는것마다 장쾌하고 벅찬것이어서 정말로 사나이들이 한번 해볼만 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의 마음속 생각을 다 헤아려본듯 직장장은 나의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어디서 일하겠소?》

나는 다시 단마디로 대답했다.

《제일 힘든 직장에서 일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조피공이 되었던것이다.

그날 로동자합숙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누워 하루일을 조용히 되새겨보니 생각이 깊어졌다. 오늘 내가 로임부와 강철직장에서 한 행동이 신통히도 군대입대하던 날 군사동원부에서와 신병훈련을 마치고 중대로 배치되어가던 때의 행동과 어쩌면 그렇게 신통히도 같을까. ...

미군놈의 비행기소리, 줄폭탄소리가 멀리 들리는 무학산밑에 자리잡은 군사동원부에서 어디로 가겠는가고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오늘과 같이 씩씩하게 대답하지 않았던가.

《제일선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금강산 만물상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온정령기슭에서 신병훈련을 받고 중대로 배치되어 갔

을 때도 중대장의 물음에 그렇게 대답했었다.
《제일 어려운 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는 351고지 바로 뒤에 있는 158고지를 지키고있는 중기소대 마지막탄약수로 배치되어 갔다.

힘겨웠다. 중기관총 총무게는 64키로인데 방열통에 물을 채워넣으면 68키로나 된다.

진지를 한번 옮기려면 중기관총뿐아니라 10키로나 되는 탄통을 두세개씩은 건사해야 하므로 중기관총소대는 체통이 크고 힘풀이나 쓰는 병사들로 꾸려졌다.

유독 나만이 다부지기는 했으나 키작은 꼬마병사였던것이다.

행군할 때면 구대원인 사수, 부사수들이 나의 총과 배낭을 저다주려고 빼앗을 때나는 힘에 겨워 눈물을 쫄쫄 짜면서도 좀처럼 장구류만은 남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하여 나의 어깨는 나날이 버그러지고 힘이 생겨 점차 두려운것이 없게 되었다.

이때 나는 생각했다. 강철은 불속에서 단련되고 사람은 시련속에서 완성되는것이라고...

조피장은 용해공들이 쇠물을 끓여 쏟아부으면 그것을 받아 강괴를 만들어 압연장으로 보내여주는 중간전투초소다.

때문에 용해장은 용해장대로 끓여놓은 쇠물을 빨리 받으라고 출강장소리를 야무지게 울리고 압연장에서는 압연장대로 강괴가 식기 전에 빨리 보내달라고 차판을 길게 단 기관차를 켜이여 들이민다.

조피장은 참으로 눈코뜰새없이 바쁜 초소다.

천리마대고조의 열풍으로 온 강선땅이 부글부글 끓고있던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시한번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러자면 걸리는것이 많겠다고 하시면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다 헤아려보시고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서는 정치사업방법과 행정경제일꾼들이 해야 할 사업방향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시였다.

온 공장이 더 높은 대고조전투로 부글부글 끓었다.

끝없이 넓은 공장구내의 대기도 강철로동계급의 열기로 달아오르고 구내공원의 가로수들도 쇠물의 열풍에 뒤설레었다.

그때 내가 본 강선의 노을은 류달리 아름다웠다. 밤에는 물론 한낮에도 작열하는 전기로의 불빛에 강선의 하늘은 붉게붉게 타오르는듯 하였다.

오늘도 노래 《강선의 노을》을 들을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때 용해공들은 하루생산 150%도 성차지 않아 빈가마운동을 발기했고 온 공장이 《다음교대

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하였다.

용해공들이 스스로 이름난 빈가마운동이라것은 쇠물을 쏟은 다음 교대시간에 관계없이 빈가마를 다음교대에 넘겨준다는것이다. 전기로를 넘겨받은 작업반에서는 로보수, 장입, 용락, 제련, 출강까지의 전공정을 자기들이 직접 짜고 운영하기때문에 용해조작공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그렇게 되면 제강시간을 줄이고 출강량도 확대할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옳은 말이며 혁신적인 제안이다.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걸게 된것은 강철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뛰여오르는데 따라 원료직장은 물론 내화물직장, 운수직장, 산소직장 등 모든 직장, 작업반들의 작업량이 2배, 3배로 늘어나 로력의 수요가 여지없이 높아졌기때문이다.

이리하여 다음교대가 해야 할 준비작업을 전교대에서 다해주는 방법으로 긴장한 로력문제를 푸는데 의의와 목적이 있었다.

온 공장이 천리마대고조의 열풍으로 들끓었다.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 몰랐으며 한시라도 손에서 일을 놓으면 오금이 저려 못 견디였다.

이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용해공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이 또다시 공장을 끓게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용해공들의 생활을 료해하시고 용해공들에게 부모와 아이들이 있겠으니 방은 두세칸으로 해주고 낮에도 밤처럼 잠을 푹 잘수 있도록 빗막이와 방음장치가 된 용해공살림집을 번듯하게 지어주자고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뜨거운 사랑에 접한 우리 용해공들은 눈물을 머금으며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어버이수령님, 강철은 넘려하지 마십시오!》

강철생산이 한창 고조를 이루던 어느날 강철직장의 뿔각수본관이 터지는 사고가 뜻하지 않게 발생하였다.

전기로들이 뿔각수를 공급하지 못하면 전기로 뿔각수단들이 순식간에 녹아나고 뿔각수가 로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폭발현상이 일어나 강철직장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때 재료장을 순찰하던 직장설비지도원(당시) 류동무가 그것을 발견하고 몸으로 덮었다.

그러나 내어뿜는 물압이 너무도 세므로 몸이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만 밀리워나오군 하였다.

이대로 놔두면 상상하지 못할 폭발현상이 일어남을 너무도 잘 아는 그였기에 뿔각수관을 끌어안은채 굳어지고말았다.

그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전기로는 구원되였다.

나는 이때 생각하였다.

351고지 공격전투시 너무도 악착스러운 놈들의 사격에 중대공격서열이 저지를 당했을 때 김인택, 김룡래동무들이 달려나가 몸으로 불뿔는 적화구를 막아 전투승리를 보장하였는데 그때의 영웅들

과 무엇이 다른가.

천리마대고조는 단순히 소극과 보수주의만을 반대하여 싸운것이 아니었다.

당중앙을 강철로 사수해야 하는 결사의 싸움이였다.

어느날 남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조피장에서 한참 땀흘리며 일하고있는데 함께 제대되어 제강소에 배치된 한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사연인즉 기록영화촬영가들이 용해공들의 일하는 모습을 찍어갔다는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조피공은 용해공보다 더 힘든 직종인데 같은 값이면 용해공이 될걸 그러지 않았느냐고 나무라는것이였다.

그가 돌아간다음 석회석덩어리를 하나 집어 강피더미에다 짚막한 시 한수를 썼었다.

용해공은 세상 다 아는 직업
조피공은 많은 사람 알지 못하는 직업
허물없는 친구 말하더라
이왕이면 용해공을 하라고

용해공은 아버지
조피공은 어머니
두 마음 하나로 합쳐질 때
좋은 강피 쏟아져나오나니

사람들이여
나라의 장한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되지 못한것을 후회하는
세상에 그런 어머니 있었던가

나는 351고지전투에 참가해서 전우들의 장렬한 최후를 목격하면서 저도 모르게 작은 병사수첩을 펼쳐들고 이런 시 한구절을 적어본적이 있었다.

자신을 위한 삶은 죽음이다
조국을 위한 죽음은 삶이다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격전장에서
나는 순간의 죽음으로
영원한 삶을 찾으리라

이것은 시가 아니었다. 그저 나의 결의이고 맹세였다.

언제나 나는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나의 가슴속에, 꼭 품에 안고 산다.

나는 원래 시재가 못되다보니 시인이 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시를 버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짹짹 시를 써보았다.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전호숙에선 작은 병사수첩에 콩다리연필로 한자 또 한자, 불꽃이 튀는 강철전선에선 석회석으로 달아오른 강피에 한줄

또 한줄, 당의 은정 하도 고마와 잠못 들고 베개잇을 적시던 그러한 밤이면 일기장의 갈피에 한 편씩 써보았다.

시란 참으로 이상야릇한것이다. 한번 정을 붙이면 떨어지지 못하는것이 시인것 같다.

그래서 나도 칠십넘어 살면서 시를 썼다는것이 불과 몇십편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나만이 기억하는 시, 나에게만 자부를 주는 시...

그러나 나는 이것을 더없이 소중히 여긴다. 나의 한생이 깃들어있는 시이기때문에, 나의 진정이 숨배여있는 시이기때문에, 나의 생활이 나에게 준 시이기때문에...

재미있고 보람있는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가는 법이다.

어느덧 우리의 대고조전투도 목적지에 다달았다. 9월 19일 강선의 마음들은 모두가 강철직장 제3호천리마전기로의 출강구를 지켜서있었다.

지배인은 용해현장 전화기옆에 서서 출강의 종소리만을 기다리고 학생소년축하단이 꽃테프와 꽃다발목걸이, 꽃보라들을 한아름씩 안고 로앞에 섰다.

현장선동원은 마이크를 잡고 쇠물을 주시하였다.

드디어 출강종소리가 온 구내에 울려 퍼졌다. 《출강!》로장의 구령에 따라 둔중한 전기로가 옆으로 기우뚱하며 쇠물을 쏟는다.

쇠물꽃이 축포의 불꽃마냥 날아퍼진다.

《만세!》, 《만세!》의 환호가 온 강선땅을 진감했다.

송수화기를 들고있던 지배인이 자세를 바로하고 평양하늘 우러르며 정중히 보고를 올렸다.

《어버이수령님! 강선의 로동계급은 수령님의 명령대로 강철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년강철생산량 일약 2배, 이것은 세계야금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기적의 기적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펼칠수 있는 작전이며 자기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전사들만이 수행할수 있는 현실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였던것이다.

나는 오늘도 밤이면 때없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면 기발인양 붉게 타는 노을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이 안겨오고 그이께서 하시였다는 말씀이 가슴후덥게 젖어든다.

강선의 노을은 볼수록 아름답다고, 강선로동계급의 불보다 뜨거운 마음이 어린듯 하여 더 아름답다고 하신 그 말씀...

아, 강선의 노을은 자연이 피워올린 그런 노을이 아니다.

강선의 노을은 강선의 로동계급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뚫어오르는 불같은 마음에서

피어난 노을이어서 그렇듯 붉고 아름다운것이다.
 강선의 노을은 진정 한생 머리우에 얹고 산 나의 하늘이였고 나의 궁지였으며 아름다운 추억의 전부이기도 하다.
 강선의 노을속에 추억을 물들이니 백발은 가서 지고 청춘이 다시 온듯싶다.

강선의 노을은 추억의 노을이 아니다.
 나는 나의 자식들, 우리의 후대들이 강선의 노을, 자력갱생, 주체의 노을속에 자기 인생을 더 붉게 물들이기 바란다.
 나는 결코 옛말을 하지 않았다.

청년전기로여

김학률

내 심장을 터친듯
 쇠물이 쏟아진다
 이 청춘의 심장에서 함께 끓던
 불!—
 내 심장의 불을 쏘는 이 순간

 강성대국으로 줄달음치는 내 조국에
 무쇠기둥 억척같이 박아세울
 나는 청년전기로의 용해공!
 출강의 이 시각이 제일 기쁘다
 어머니앞에 최우등성적증 보란듯이 내놓듯
 아이적 그 마음으로
 조국에 드리는
 주홍빛쇠물 팔팔 쏘는 이 시각

 쇠물빛노을 붉게 물든 저 용해장창문은
 저 멀리 전선길을 향하여 열려진듯
 내 마음도 훨훨 쇠물빛타고 날아간다—새 세대

청년용해공이 제법인걸...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시고
 내가 끓인 쇠물을 대견히 바라보시며
 장군님 금시라도 내 등을 두드려주실듯

 꿈이 아니다
 장군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쇠물 끓이는 내결에 서시여
 강철로 수령님만을 옹위해온
 아버지세대들의 장한 위훈을
 이 가슴에 뜨겁게 뜨겁게 새겨주신다

 아 장군님 지켜보시는 결에서
 신군의 내 나라 성벽우에
 강철로 기념비를 새겨가는 청춘
 내 심장과 같은 전기로와 함께
 영원한 청춘으로 나는 사노라

안해의 행복

김현순

밤교대 마치고 돌아온 남편
 어서야 아침상 올려야지
 서둘러 행주치마 두르고 들어서니
 어찌나 어느새 잠들었으니

 창가에 비쳐드는 아침해살은
 그이 얼굴 살며시 어루쓰는데
 자면서도 빙글썽 무슨 꿈 끌가
 아마도 출강의 순간인게지

 꿈에서도 강선의 노을을 펼쳐가며

또 한차지 쇠물을 뽑는 그이
 볼수록 그 모습 미더워
 서둘러 깨울념 잊고
 하냥 바라만 봐요

행복을 수놓은 원앙새베개
 팔베개한 그이 머리맡에 고이려 해도
 쏟아지는 쇠물이 밋을것만 같아
 어쩔바를 모르고 선
 아, 행복한 순간이여

내 러놓고싶은 고향자랑은...

심재훈

홍성이는 렬차의 차창가에서
솔바람 시원한 휴양각에서
사람들 저마다
바다자랑 산자랑에 성수가 날 때면
부러움에 앞서 가슴 부풀어 불러보는
내 고향 강선아

옆친구의 무릎을 정답게 치며
내 러놓고싶은 고향자랑은
아름다운 철의 도시 밤노을인가
구내길에 설레이는 백양나무인가

아니면
꽃목걸이 걸어주던 공장정문 출근길인가
창문마다 웃음이 노을로 피는
넓게 트인 용해공거리인가

일터라 구내길이라
어디 가나 사람들
은근한 목소리 모아
그날의 천리마이야기로 날이 저무는
강선땅

타다 남은 재더미를 헤치고

첫 쇠물 뽑던 이야기
준엄한 난국을 헤치고 날아오른
천리마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자랑으로 전하며 사는 고장

드넓은 구내길 어디를 걸어보아도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56년 시련의 눈길 헤쳐가신 자욱 안겨오고
아담한 문화주택 어느 집 문을 열어도
그 사랑 뜨거이 가슴에 젖는 고장

어촌에 가면 바다자랑
산촌에 가면 산자랑
사람마다 제 고장이 제일이라 해도
천리마가 나래쳐오른
내 고향보다 더 좋은 곳 나는 몰라

내 언제 어디서나
나누고싶은 고향자랑은
어제날 추억만이 아니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가며
선군시대 하늘가에 나래쳐오른
강선의 천리마이야기여라

화선병사의 이야기

주연

수령님 우리러 만세 높던
전승열병광장을 지나
또다시 전선으로
고지에서 품고온 공화국기발
복구건설장에 펄펄 휘날렸시오

원쑤의 숨통을 거머쥐던 그 손에
삽과 마치를 틀어쥐고
폐허위에 우뚝 전기로를 일떠세웠소
놈들이 떠벌인 100년이 아니라
40일만에 첫 쇠물폭포로
미제의 뒤통수에 다시 한번 불벼락 내렸소

—수령님!
강재증산은 넘려마십시오
심장의 맹세를 지켜
원쑤들의 온갖 준동을
격노한 쇠장대로 후려친 나라

열기오른 강편더미위에 야전밥통 걸어놓고
통강냉이 달게 나누던 화선이야기

내 자주 입에 올린다 나무람마오
지나간 옛말이라 생각지 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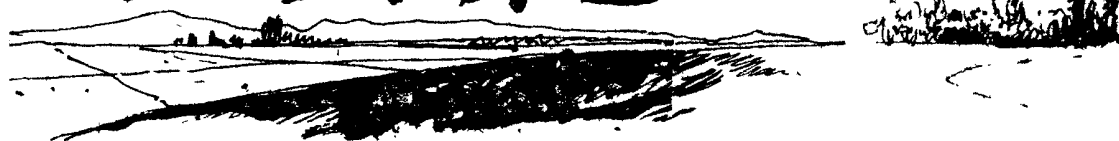
천리마대진군의 나날
용해장 찾아오신 수령님 우리러
—최고사령관동지!

전기로는 용해중에 있습니다
쇠정관 쨍쨍 발구름높이
영접보고 올린 나는 근위병사

피로써 지킨 땅에
강철의 성새를 우뚝 쌓아
사회주의 내 조국
천리마의 조선을 받들어올린 자랑

승리한 조국땅에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진지 강철전선 못 떠나는
어제날 천리마기수
나는 오늘도 화선병사라오

적동색머리수건



황용남

1

밤사이 줄금줄금 내리던 비는 날이 썰녜에야 그치는듯싶었다. 봄비치고는 땅이 푹 젖도록 대견히도 내리는 비였다.

이른새벽의 선잠을 깨치고 습관대로 재벌잠을 청하며 이불속에서 궁싯거리던 대복은 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말았다. 이럴 때면 늙을수록 새벽잠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생각나며 새삼스레 자기 나이를 다시 꼽아보게 된다.

이른새벽에 선잠에서 깨어나면 간혹 옷방에서 딸과 사위녀석이 정답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곤 하는데 애써귀를 막으며 이불을 뒤집어써도 어떻게 돼먹었는지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이 오히려 더 말뚱해진다. 이것 또한 맹랑한 일이 아닐수 없어 그럴 때마다 자신이 민망스럽기 그지없다.

처마밑에서 락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제법 가락 맞게 울리고있었다.

툭— 툭— 타닥—

아득히 먼곳에서 올라오는듯 한 들창아래 그 소리가 다시 잠을 재촉하는것 같기도 했고 온갖 상념을 끝간데 없는 미궁속으로 불러들이는것 같기도 했다.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문지방을 넘어 토방으로 내려서는 순간 마른 입술에 와닿는 샘물처럼 시원하고 촉촉한 새벽공기가 피부에 감겨돌며 밤새 움츠러들었던 폐부로 비젖은 땅냄새가 그득히 물려들었다.

해토비는 말고라도 올봄에 접어들어 벌써 네번째 내리는비였다.

(절레꽃이 피기 전에 비가 세번만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잖나…)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짓던 때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어쨌든 좋은 조짐이 아닌가.

아직 일나갈 시간이 되려면 두어시간은 착실히 있어야 할가분데 풍년을 약조해주는듯 한 봄비에 마음이 흥그러워진 그는 공연히 오금이 쭈서 조금증이 일기 시작했다.

비릿하면서도 촉촉한 흙냄새가 코안을 자극하

자 그는 팔다리와 온몸에 힘이 뻗쳐움을 느끼면서 그 커다란 두손을 깎지껴 뼈마디소리가 들리도록 힘껏 기지개를 켜다.

이때 옷방에서 손자애의 울음소리가 울려나왔다.

이자 돌을 갓 넘긴 손자애의 그 야무진 울음소리에 기분이 들뜨고 암만이고라도 듣고싶어지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신기한 일이 아닐수 없다. 고 조그만 얼굴에 기쁨과 슬픔의 온갖 변화무쌍한 표정을 다 그리며 썩근썩근 잠자는 아기를 들여다보는것 역시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가. 어제만 해도 초저녁에 자기가 끼고누웠던 손자를 사위녀석이 《아버지, 애가 잠투정을 하면 피곤하실텐데 우리가 채워요.》 하는 아니 할 걱정을 해주면서 애타갔다.

실은 제가 품고 자겠다는 수작이지 뭐가. 옷방에서 외동딸 준실이의 밍지 않은 지청구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끝내… 잘만 자는 아이한테 아까부터 실롱대더니…》

허, 저게 이젠 제 남편앞에 제법 짜증을 다 낼 줄 알구…

애비없이 자란 딸년들은 팔랭이가 되기 쉽다더니 에미없이 자라면 그 반대인지 낱자부터 일찌기 홀아버지슬하에서 자라며 애에미가 된 오늘까지 여적 남에게 눈 한번 빠는것을 보지 못한 암전대기였다.

《행, 나때문인가. 깰 때가 됐으니 절루 깐거지.》

저건 사위녀석이다.

사위란 놈은 네모진 턱에 눈썹이 시커먼게 생긴걸 봐서는 아기가자한테라곤 좀처럼 있을것 같지 않은데 자식이 생긴 담부터는 어찌나 노숙이 많고 도섭스러워졌는지 남보기에 무안할 정도였다.

별판에서 일하다가도 한것을 참지 못해 무슨 구실이든 대고 탁아소에 들러보고야 직성이 풀려하는 녀석이다.

애를 갖 낳아놓고 이름을 지을 땐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했던지 농장에서 물관리공들에게 집체적으로 나눠준 물관리공수첩한권을 온통 이름자로 꽉 채웠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어느날 대복이 집에 들어와보니 사위란 녀석이 옷방바닥에 베개를 고이고 엎드려 그 수첩장을 훑어지게 노력하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진지하고 심각한지 제법 큰 연구사갈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죽고살고하는 판가리결단을 앞둔 놈 같기도 했다.

그러다가 기껏 붙었다는것이 제 성에다가 사들령감이 가문의 향렬을 따져 지적해줬다는 《수》자라는 돌림자까지 넣어서 《오영수》라는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으니 결국은 《영》이라는 그 한자를 생각해내느라고 며칠동안이나 고민을 한셈이다. 하긴 수수한 그 이름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술한 이름자들앞에서 심고했겠는가 생각하니 그 수고가 가공히 여겨지기도 하였다.

(오늘같은 날에는 일찌기 물보러 나가야 한대구 그만큼 일렀는데 왜 아직 안 나가구 저 쓸개 빠진짓을 하구있누?)

하긴 걱정할게 없다. 얼마나 일하기 쉬워졌는가. 수로마다 물이 출렁거리고 씨레도 날자를 푼 푼히 잡아 닳새이상 선행해놓았다.

작년부터던 모내는기계란 기계까지 새로 생겨 이젠 모내기야말로 땅질고 헤엄치기다.

온 작업반이 온종일 허리 한번 펼새없이 모를 꽃아도 겨우 2천평을 넘을락말락했는데 이젠 하루 석정보가 자반뒤집기다. 어제만도 우리 분조가 한정보반, 재득이네 분조는두정보를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달중에도 얼마든지 끝낼수 있을것이다.

옛날엔 마지막모를 꽃고나선 다음날로 낫을 갈아들고 벼를 베러 나가야 했대던 늙은이들의 말이 생각났다.

(하긴 나도 팔월모라는것을 꽃아봤지...)

문득 작년도에 모내는기계가 처음으로 나와 시운전을 할 때 두팔을 내저으며 아우성을 치던 자기 행동이 돌이켜져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애기손가락 주물듯 애지중지 다루어야 할 벼모를 낚시코처럼 뾰족하게 생긴쇠불이로 절걱절걱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찍어내리니 평생 농사로 뼈근힌 자기나 몇몇 늙은이들이 덴갑을 한것도 사실 무리는 아니었다.

《쉽게만 일하자고 하다가 농사를 망치네. 여적 기계가 없이두 모내기를 못한적 없었는데 두손은 아꼈다가 털을 내고싶은가.》

자기 말에 모내는기계구경을 나왔던 몇몇령감과 로친들까지 여기에 합세했다.

《야휴, 저 빈포기! 게다가 저렇게 너무 깊이 박히면 모살이가 얼마나 오렐구... 아서우, 아서!》팔손이난 재득이 어머니가 헤엄을 치듯 두팔로 허

공을 휘저으며 논판에 뛰어들어 모내는기계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차 이런. 할머니, 비키라요. 처음 나온 기계가 그렇지. 이제 손에 익으면 일없어요. 할머니, 이젠 기계농사시대야요.》

모내는기계운전공 강습을 갔다와서 그날 흰 목을 빼들고 첫 시운전에 나섰던 배령감의 막내아들 찬식이가 어처구니없어 역증을 냈다.

그는 《할머니, 난 짧은 놈이 해마다 허릴 꼬부리고 물 냈더니 처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핏새출이나 추기 알맞춤하게 생겼대요.》하고 이죽거리다가 하마트면 대복에게 욕깨나 먹을번 했다.

그날 기계로 모를 내는 농민들이 보고싶으시여 수령님께서 또다시 대복이네 논벌을 찾아오셨다.

자기들, 이른바 《대대로 내려온 실농군》들의 완고한 반대로 기계를 세워놓은채로 있는 포전에 몸소 들어오신 그이께서는 사연을 들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사회주의시대 협동벌에 《기계파괴자들》이 나타났구만.》

《?...》말씀의 뜻을 몰라 어리둥절해있는 자기들에게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아도 걱정스러워 내가 몇년째 시험해보고 파악이 생겨 보내준 겁니다.》

그러시면서 기계의 우결합들과 동작원리들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주시었다. 물은 얼마만큼 대야 알맞춤하고 씨레는 닳새이상 선행해놔야 흙이 밀리지 않는다는것, 모손은 어떻게 조절해야 모를 적당한 깊이에 꽃는다는것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시는지 기계속내를 꿰하니 꿰뚫고계시는 그의 해박한 지식앞에 《대대로 내려온 실농군》들이 회한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기계가 작년 모내기를 절반이나 담당했다. ...

세월이 참말로 좋게만 변해갔다. 작년에 농장이 선봉1급칭호를 수여받았다. 작업반에는 종합탈곡기를 새로 놓았다.

《준실이 아버지, 요새 신수가 멀끔해지는게 손주 둔 령감같지 않수다. 이제라도 다시 장가들고 싶은 생각이 없수?》

누구에게나 푸점이 좋고 늘쌍 싱거운 소리를 목젓안에 몇되씩 넣고다니는 찬식이녀석이 요전 모내기를 시작하던 날 모판에서 어기며 던진 소리였다. 싫지 않았다.

내가 젊어진단 말이지...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멀쩡한 두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림봉사》란 별명이 붙었던 그였다. 정전이 되는 그해 봄 전선원호대렬에 망라되어 달구지에 원호미를 실고 개성까지 갔다오니 그사이 미군놈폭격에 피덩이나 다름없던 막내딸 준실이만 남고 온 집안식구가 그만 다 잘못되었다. 다행히 폭격을 맞지 않은 우물집 아래목에 강보

에 싸인채 누워있는 준실이이를 찾아가지고 온 그 날 저녁 불타버린 고향집 토방돌우에 걸터앉았을 때 대복은 눈앞이 새까매지는것을 느꼈다. 동네 아낙네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눈굽을 짖으며 그의 신세를 동정하였다.

《준실이 아버지, 맘을 멀리 가져요. 아직도 준실이 아버지 앞길이 구만리같은데...》

어느 아낙네가 위로의 말을 하다가 제스스로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지 끝을 채 맺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하긴 전쟁 3년간 자기도 남에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해왔던가.

앞길이 구만리라고... 대복에게는 구만리는커녕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았다. 홀몸으로 젖먹이 어린 딸을 간난신고하며 키우던 그 나날에 그에게 《림봉사》란 별명이 붙었고 안팎으로 곤난을 겪던 그때 장사란 소리를 듣던 자기의 뼈끓은 두 어깨가 때일찍 앞으로 쭉그러들었다.

전쟁이 끝난 그다음 다음해였던가. 협동화가 갓 시작되던 그때 이자 겨우 말을 번지기 시작한 어린 딸애를 데리고 홀로 사는 그가 정보기 딱하였던지 새로 조직된 조합위원장이 주동이 되어 나서서 강건너 해창마을에 사는 어떤 젊은 과부와 선을 보기로 했다. 나처럼 어린 아들이 하나 달려있다고 했던지...

며칠을 두고 긴긴 밤과 씨름하며 생각을 굴리던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린 그날 아침 위원장과 함께 나들이옷을 갈아입고 막상 방문을 나서려는 데 아까부터 콩나물시루가 놓인 아래목 한구석에 숨은듯이 쪼그리고앉아 아버지의 거동을 긴장하게 주시하던 준실이아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가지 마! 아버지야!—》

대복은 가슴이 철렁했다. 저 철부지가 뭘 알아서...

어른들끼리 수군수군 오고간 그 말에서 저것이 무엇인가 불안을 예감했다는것을 자기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었다. 딸애는 지금 아버지가 무슨 까닭에선지 정과 마음을 딴 곳에 가르려 한다는것을 느끼고있는것이다.

아이들한테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비상한 욕감이 있는것이였다.

《허— 이년 봐라, 아버지를 누구한테 뺏기는줄 아는게지. 애 준실아, 이제 아버지가 널 고와할 엄마를 데리고 온다.》

애의 눈물앞에서 당황해난 위원장이 수선을 떨었다.

《싫어, 싫어. 아버지야!...나, 아버지하고... 살래!》

준실이가 악을 썼다. 바지가랭이를 꼭 부여잡고 울려다보는 애원에 찬 딸애의 눈길과 마주치는 그 순간 대복은 모든 욕망을 쭉그리 단념해버렸다.

《오, 오냐. 아무데도 안 가마. 우리 준실일 버

리고 내가 가진 어딜 가겠니.》

그때부터 근 스무해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제작년바로 그 《림봉사》의 딸이 인물체격 끝 끝하고 일 잘하는 이웃농장의 총각을 남편으로 맞아들여 옷방에 신살림을 켜고 떡돌같은 손주애가 대복의 무릎에 안겨졌다.

논물이 잦아들듯 《림봉사》란 별명은 어느결엔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며칠전에 친손주의 돌잔치를 차려준다고 요란한 준비를 떨치고 찾아왔던 사둔령감이 술 한잔 거나해져 《사둔님, 사둔님도 아직 예순이 멀었는데 이제라두 마누라를 다시 두고픈 생각이 없으시오?》 하는 말을 뱉었을 때 대복은 취중이라도 까닭모르게 가슴이 찌르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젊은 시절에도 감히 엄두를 못냈던 그 생의 욕망이 아니던가. 그것이 이처럼 나이먹은 오늘에 와서 이제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들고나오게끔 자기 신수가 껴있었던것이다. 아니, 세월이 좋아졌던것이다.

어느사이엔가 집집의 부엌들에 불이 켜지고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청신한 새벽대기속으로 버짚때는 연기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2

비가 온 뒤라 길가는 엉망진창이였다.

비내린 날이면 이곳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신발이란것이 시끄러운 존재가 되고만다.

길게 패인 달구지바퀴자리, 길 한가운데 우묵 우묵 들어간 물구덩이들...

비가 얼마쯤만 계속되면 길한가운데의 그 물구덩이들에 개구리알이 떠다닌다. 가물철엔 가물철대로 황토먼지를 뭉게구름처럼 말아올리는 길이 다.

간밤의 비정도에도 길은 그대로 물논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 아마 삼일낮동안은 햇빛이 뽕뽕 퍼부어야 신바닥에 흙이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 꾸둑꾸둑 해질것이다. 이제 또 저 감탕투성이의 길이 그대로 해벌에 팡팡 굳어버리면 그야말로 세계지도모형사관처럼 술한 산줄기들과 강줄기, 사막과 호수를 형상한다.

하지만 해뜨기전 이른아침 동구밖을 벗어나 모내기장으로 나가는 대복이네들은 너나없이 충천한 기색들이였다. 그까짓 길이야 무슨 대순가. 이제는 눈에 습관된 길이고 걸음새도 그 길에 습관된 농민들이다. 오히려 비온 뒤의 쾌청한 날씨가 한결 기분들을 들뜨우는것이다.

그 일행은 오늘 모내기할 절탐배미논에 이르렀을 때 눈들이 둥그래졌다.

엿저녁 늦도록까지 뽕나무들의 모내기를 끝낸 모내시기계가 일찍 기동을 시작해 막 이쪽으로

넘어오는판인데 어제 분명 알맞춤하게 물조절을 해놓고 들어갔던 철탑배미엔 무릎을 넘도록 물이 출렁거리고있었다.

필경 어제 밤 비때문에 수로에 불어난 물이 논 두렁을 넘어 들어왔을것이다.

《한시간만 먼저 나왔어도 지금쯤은 벌써 물 올라 뿔뿔할것 아닌가! 물관리공이라는게 당장 모내기할 논을 한강수 만들어놓고 여적 뿔하고 자빠져있었나 말이야!》

저쪽편 논두렁에 삽자루를 둘러맨채 말뚝처럼 서서 반장에게 식은 소리를 듣고있는 사위녀석을 알아보는 순간 대복은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뿔하구 자빠져있었》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는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숨넘어갈듯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저... 저... 저거—》

모두의 눈길이 그의 손끝으로 쏠렸다. 논 한가운데서 은빛비늘이 해빛에 번쩍이더니 푸들쩍—물보라가 일었다.

《잉어다!》

요즈음 한창 알쓸이철이라 어제 밤 만수가 된 수로를 거슬러 올라오던 잉어란 놈이 신수사납게 도 길을 잘못든게 분명했다.

그담엔 쫄은이, 늙은이, 남녀가 따로없었다. 모두가 번개같았다. 채령강을 가까이 두고있는 이곳에서는 종종 맞닥들리곤 하는 일이어서 고기잡이엔 이젠 제법 미련이 든 그들이었다.

《포위하라!》

《야, 야, 삽날은 치우라!》

《그쪽으로 간다!》

《제길, 아낙넌 공연히 물만 흐리지 말고 썩 비켜!》

온 별판이 떠나갈듯 했다.

잉어란 놈도 사생결단을 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렸다. 누군가는 꼬리를 밟기도 했고 누군가는 살찐 배허벅을 손에 잡아보기까지 했으나 매번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놓쳐버리곤 했다. 그물안에 든 고기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등이 달아 승벽을 부렸다.

《잡았다!》

기고만장한 소리를 지르며 대복의 사위가 물고기를 높이 쳐들었다. 서너키로는 실히 나갈 놈이였다. 잉어꼬리로 감탕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입을 찹 벌린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찰나 잉어란 놈이 마지막용을 쓰며 그의 한쪽뺨을 호되게 후렷다.

《하하하.》

얼굴에 온통 감탕칠을 하고도 대복의 사위는 잉어의 아가미를 꼭 붙들고서서 방금전까지 머리를 짓숙이고 육먹던것은 감감 잊었는지 입천정이 다 들여다보이도록 찹— 벌린 입을 다물줄 몰랐

다.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 자기가 비록 육은 먹었어도 어쨌든 그 덕에 잉어도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반장에 대한 은근한 항변갈기도 했다.

여직껏 뒤집을 지고 논두렁에 선채 모낼 생각은 집어던지고 온 논판을 씨름장처럼 만들며 돌아치는 자기 반원들을 씨글씨해서 지켜보던 작업 반장도 어이가 없는지 허— 하고 맹랑한 소리를 내더니 입을 찹찹 다시였다.

《또 있다!》

한마디 웨침소리에 가라앉으려던 들판이 다시 끓기 시작했다. 웬다. 잉어란 놈은 반드시 짝을 지어다니는 법이다.

사람들이 다시 손뚱을 올리는 순간이였다.

《에그머니—》

갑자기 숨넘어가는 비명을 지르며 서있던 논 한가운데서 풍덩 주저앉은것은 자기는 언제 봐야 동작이 굼뜨지만 그렇다고 여태껏 살면서 별로 손해를 본적 없다고 장담하고 다니는 쌍둥이에미 복화였다. 아마도 잉어란 놈이 다리미를 빠져지나는 바람에 혼비백산한 모양이다.

하, 얹어져도 꺾함지에만 얹어진다면게 오늘은 랑패봤군.

모두가 폭소를 터치며 논 한가운데 주저앉아 허우적거리는 복화를 손가락질하는데 웬걸, 한쪽 무릎을 눈에 박은채 몸을 일으키는 그의 손에서 은비늘이 번쩍했다.

와—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으흐흐, 저것이 깔구 앉았구만. 것두 수컷을, 흐흐...》

모두가 눈물이 찢끔거리도록 실컷 웃어댔다.

수컷이란 놈은 아낙네의 손에 잡혀서도 아가미만 넘적거릴뿐 웬일인지 축 늘어진채 용을 쓰지 못했다.

두번째로 달아오르려던 흥은 싱겁게 가라앉고 말았다.

복화의 품에 암전하게 안겨있는 잉어를 보는 순간 대복은 까닭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져 혼자소리 중얼거렸다.

《저 미물도 짝을 잃으니살기가 싫어졌던 모양이지. ...》

뒤쪽에서 키드득 웃음이 터졌다. 돌아보니 두 아낙네가 입을 싸쥐고 돌아서며 저들끼리 눈을 맞추고있었다. 건너집 태국이 며느리와 부기장(당시)네 큰딸인 정화였다. 자기 말이 웃음거리가 된 것이 틀림없었다.

그게 무슨 크게 흥이 될 말인가.

하지만 다음순간에 대복은 저만 듣지 못하는 자기의 뒤소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정신이 아뜩해졌다. 찬식이나 사둔령감이 한 소리가 우연히 지나가는 소리나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그 어떤 흠이 못한 처신에 대한 은근한 비난이고 힐책이었을수도 있다는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여직껏 흥그럽던 기분은 말짱 달아나고 삽시에 울적해졌다.

오늘까지 그런감촉을 받은것이 두번째다.

일전에는 영수를 받아안고 탁아소문을 나서는데 복화가 무슨 일인지 그앞을 지나다가 《하, 진실이 아버지 요새 탁아소출입이 잦다... 하긴 뭐 손자가 고와서 자꾸 오고싶은걸 누가 뭐랄까. ...》 하는 알쏭달쏭한 소리를 내뱉는것이였다. 그때는 그저 범상히 지나쳤는데 아무래도 말많은 아낙네들속에서 무슨 색다른 소리가 오고가는것 같았다.

(이것들이 혹시 나와 장과부사이를 별다르게 보는게 아닌가!)

그는 두팔을 휘저으며 절벽절벽 논두렁으로 나와 삽자루를 깔고 주저앉았다.

쌈지를 꺼내 담배를 마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자, 이 잉어를 탁아소에 가져다주는데 반대들 없소?》

기발한 말기라도 한것처럼 사위가 의기양양해서 큰소리로 물었다.

《잘 생각했네.》

《무슨 의견이 있겠담.》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

저 녀석은 또 맞춤형 구실이 생겼다.

이때 반장이 《복화아주머니, 아무래도 옷을 갈아입어야겠으니 아주머니가 들어가는 길에 잉어를 탁아소에 가져다주고 나올 땐 장과부와 함께 나오슈!》 하고 잘라 말했다.

두마리의 잉어를 양손에 갈라든 복화는 온몸이 감당부성이가 되어가지고도 신이 나서 미끄러운 두렁길을 춤이나 추듯 달려갔다.

사위녀석은 락심천만하여 삽자루를 메고 돌아서버렸다.

어느새 논두렁을 벗어나 큰길가의 뽕뿌라나무 그늘아래 들어서는 복화의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며 대복은 가슴에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안은채 말없이 담배만 푼씩푼씩 태웠다.

반장의 입에서 튀어나온 장과부란 소리가 그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해놓았다. 지금 저기 복화가 찾아가고있는 작업반탁아소에 복화와 동갑이인 50을 가까이 바라보는 장길순이란 과부가 보육원으로 있다. 고향은 강원도 산골 어디라고 했는데 그역시 전쟁에서 온 가족을 잃은 혈혈단신으로 사촌오래비를 의지해살겠다고 이곳으로 온지가 이제는 십여년 잘되었다.

그때가 마침 조합들이 리단위로 통합되고 리소재지에 하나였던 탁아소를 작업반단위로 새로 내오던무렵이여서 그가 작업반탁아소 보육원으로 배치되었다. 소문에는 그가 적극 자청해나섰다고 했다.

애기엄마들속에서 그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잠시도 가만 앉아있지 않고 쉴새없이 빨고 닦고 씻고 털어내고... 어찌나 일손이 여무지고 부지런한지 그 탁아소에서는 젓비린내와 오줌내가 섞인 탁아소특유의 냄새를 전혀 찾아볼수 없다는것이 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배워준것도 없지만 그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탁아소방안을 쭉불로 소독을 한다고 했다. 다른 작업반 탁아소들에서는 누구네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다거니, 애들

을 땡개쳐두고 보육원이 제일만 하는 바람에 애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거니 하는 소리가 종종 들려왔지만 장과부의 탁아소에서는 한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리나 군에서 나온 일군들도 탁아소에 들려보고는 씻은 팔알처럼 하나같이 말쑥한 아이들을 보고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복은 작업반아낙네들속에서 돌아가는 칭찬을 귀로만들어왔지 언제한번 탁아소에 들려볼 기회가 없는탓에 그와의 접촉이 별반 없었다.

그에게도 손자가 생긴 후 작년 초봄부터 탁아소에 출입하며 그 아낙의 일솜씨며 마음속을 들여다볼수 있었다. 언제 가봐야 그는 아이들의 코묻은 얼굴을 닦아준다, 기저귀를 갈아준다, 암죽을 입에 떠넣어준다 하면서 바쁘게 돌아쳤다. 어떤 때는 한버치나 되는 기저귀들을 이고 굴포쪽으로 빨래하러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입가에는 노상 웃음이 떠날줄몰랐다.

제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들을 저렇게 돌본다는것이 결코 쉬운것이 아님을 대복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제 자식을 남한테 부탁한다는것이 얼마나 피롭고 자식앞에 죄되는 일이었던가. 피눈물이 날 때가 한두번이었던가. 대복의 머리에는 지금도 정전이 된 그해 여름 뜸부기가 울던 그 눈머리가 잊혀지지 않았다.

이른아침부터 젖을 보채는 딸애를 안고 동네를 돌다가 그래도 마음이 후더분한 쌍둥이에미를 찾아 논벌에 나서니 일손이 팔려 범이 새끼치게 된 논두렁에 쌍둥이를 눕혀놓고 복화가 저만치 멀리서 김을 매고있었다. 버포기사이로 들락날락하는 복화의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면서 논두렁에 쭈그리고앉아 또다시 렴치없는 청을 들이기가 미안하여 한숨만 쉬던 그는 저도 모르는 충동에 떠밀려 자기 아이를 쌍둥이옆에 가지런히 눕힌채 절벽절벽 눈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복화를 마주 향해 눈이랑을 타고 부지런히 김을 매나갔다.

대복은 복화와 어기며 그가 분명 미안한 낫색을 지어보이는것을 알았다. 말없는 자기의 미안한 부탁을 알아차린것이라. 저쪽논두렁까지 갔다가 되돌아서서 지금쯤 준실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줄 알았던 복화가 다시 돌아서 눈이랑을 잡고 자기를 향해 마주오는것을 본 그는 피지게 입술을 깨물었다.

암, 남의 자식이 배끓는것쯤이야 뭐라는가, 일손이 하나 더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더 김을 잡자는것이겠지, 남이란 그런것이구나.

하지만 어쩔수 없는 대복이였다. 저쪽논머리에서 준실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버포기사이에 머리를 묻고 김을 잡아나가는 대복도 눈물을 덩빙덩빙 쏟았다. 우는 제 자식을 곁에 두고 남의 집 김을 매줘야 하는 제 신체가 너무도 기가 막히고 저 피덩이가 이 못난 애비를 원망하는것만 같아 절로눈물이 나왔던것이다. 논 한가운데서는 새끼를 부르는 뜸부기의 울음소리가 울려왔다.

하지만 복화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 아낙의 눈에서도 눈물을 알아본 대복은 다시 심장의 모진 아픔을 느꼈다.

《준실이 아버지, 용서하세요. 사람이 할짓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 쌍둥이도 아침부터 여적 젖 한모금 못 먹었어요. … 인차 장마가 진다는데 이제 풀이 성하면 일년농사가 다 망하겠기에…》

복화가 리해되었다. 남편은 아직 전선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집에는 늙은 시부모들밖에 없지 않는가. 그가 아니면 누가 이 집 농사를 해주겠는가.

그날 대복은 하루종일 그 집 논김을 매주었다. 젖동냥의 품팔이가 아니라 인정을 품앗이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가. 탁아소라는 그 좋은 곳이 있고 거기서 추울세라 더울세라 배고플세라 온갖 자질구레한 뒤시중을 다해주고있다.

말 못하는 애들이란게 참으로 령물이다. 자기를 고와하는 사람을 가릴줄 알고 가려쫓는다. 단 순한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그 천진한 눈동자로 거짓과 가식을 명백히 가려보는것이다. 자기 등에 업혀 탁아소로 갈 때까지만도 칭얼거리던 손자가 문턱에 서서 두팔을 벌리며 반기는 장과부의 목소리에 금시 울던 울음을 툭 끊치며 그의 품에 안기겠다고 발버둥을 칠 때면 그제 하도 신통스러워 대복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저 젖먹이아이들, 한마디로 《남의 자식들》에게 기울여지는 그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하고 진심어린것인지를 짐작할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농장상점앞을 지나던 대복은 상점안에 술한 녀인들이 모여선것을 보고 호기심에 기웃거렸다. 발이 가늘고 각이한 색깔과 문양을 가진 머리수건이 나와 녀인들의 발길을 붙잡고있었다. 돌아서려던 그는 문득 생각키우는것이 있어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장과부의 목에 늘쌍 둘러있던 색날은 적동색머리수건이 눈앞에 떠올랐던것이다. 애들이 먼발치에서도 장과부를 그렇게 쉽게 식별하는것이 바로 그 머리수건때문이었다.

수선을 떨던 한무리의 녀인들이 상점을 떠난 뒤에야 대복은 주저주저 매대에 다가섰다.

《판매원체네, 농립모 하나 사세.》

물론 구실이였다. 대복은 농립모를 받아들고도 공연히 서성서성하다가 애써 태연하게 물었다.

《나도 머리수건 하나 살수 있을까?》

《어서 사세요.》

판매원이 까르르 웃었다.

《영수 어머니를 주려구요? 마음대로 고르세요.》

빨간색, 함박꽃무늬, 연분홍색, 참으로 고운 수건이 많기도 하였다. 도리머리를 저으며 차곡차곡 쌓여있는 머리수건걸개를 번지던 그는 드디어 맨 밑에 부끄러운듯 숨어있는 적동색머리수건을 찾아냈다.

그는 그것을 뽑아들었다.

《이게, 이게 어떨가?》

또 까르르—

《할아버지도 참, 하필이면 왜 그런 색을… 그건 영수 어머니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글쎄 이걸 달라니.》

상점문을 나설 때도 등뒤에서 까르르— 소리가 들렸다.

막상 그 수건을 장과부에게 주자니 어색하기 그지없어 여간만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탁아소로 찾아가 《이자 오다보니 상점에 이렇게 나왔더구만.》 하며 집짓 범상한 일처럼 수건을 내밀었다. 뜻밖에도 장과부는 말갇던 물건을 되돌려받거나 하듯 태연하게 받아드는것이였다.

그날부터 장과부의 몸에서는 물날지 않은 그 적동색머리수건이 떠날줄 몰랐다. 대복은 그제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

여기까지가 대복이 오늘 이 논벌에서 까닭모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사연의 전부이다. 아직까지 남의 웃음거리가 될만 한 건덕지는 없었다.

(무슨 뽀뽀한 소리가 도는게 아닐가?)

그제 사실이라면 자기는 자기이고 장과부의 체면은 또 뭐가 되겠는가. 생각할수록 그에 대한 죄스러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대복은 이제 젖먹이아이들을 안고 장과부가 나라날 저 멀리 큰길가를 두려움게 바라보았다.

큰길에 까만 승용차 한대가 지나가며 금방 떠오르는 아침해빛을 받아 창유리를 반짝이고있었다.

저렇게 해동갑하여 떠났을 땐 바쁜 일이 있을텐데 승용차는 흙탕물을 튕길가봐선지 멈춰설듯 말듯 하며 천천히 뽀뿌라나무아래를 지나 대복의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3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떠올랐다.

사위때문인지 잉어때문인지 작업시작은 예정보다 훨씬 늦어졌지만 반정보짜리 논배미를 어느결에 끝마쳤다. 이 기세로 나가면 오늘도 두정보는 먹어논 떡이나 다름없다.

모내는기계보다 한발앞서가며 썬레에 밀려 논가녁에 드러난 흙들을 가운데로 쳐넣고있던 대복은 아까부터 큰길가의 뽀뿌라나무쪽에 자꾸만 시선이 돌아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저기에 장과부가 나타난다.

작년에 장과부의 발기로 제일 바쁜 모내기철이면 젖먹이애엄마들의 젖먹이는 시간을 단축하느라고 탁아소에서 애들을 포전까지 내오기로 했다. 젖엄마들이 저 먼 탁아소까지 갔다오느라면 거의 한두시간은 착실히 걸려야 했던것이다. 것도 하루에 두차례씩이나…

아무리 일하기가 험해졌어도 고양이손도 빌려 쓴다는 모내기철이 아닌가. 대복의 분조에만도 준실이를 비롯해서 젖엄마가 넷씩이나 되는데 장

파부가 처음 그 발기를 했을 때 온 작업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애기엄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작업반장과 분조장들이 좋아했다. 비록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장파부가 그렇게만 해주면 젃먹이시간을 단축하여 옹근 한명의 로력자를 거저 얻는것이나 다름없기때문이었다. 장파부의 소행은 인차 온 농장에 일반화되었다. 그 발기를 한것으로 하여 장길순은 작년 농장모내기총화때 주석단에까지 앉았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도 장길순은 포전거리가 제일 먼 대북의 분조를 다른 보육원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기어코 말아모내기를 시작한 그날부터 영수를 비롯한 네명의 젃먹이들을 안고 이 벌판으로 나오고있다.

이제 장파부는 잔등과 앞가슴 그리고 량팔에 한아이씩 네 아이를 안고 저기 큰길가의 뽕뿌라 나무아래까지 온다. 무연한 허허벌판에 나무그늘조차 변변한 곳이 없어 그 나무아래를 젃먹이는 장소로 정한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의 거리도 상당히여 사람을 가려보기가 매우 힘들었다. 게다가 그 나무그늘에는 종종 땀을 들이는 길손들이 머물곤 하여 더구나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장파부는 작년부터 젃먹이들에게 신호를 약속하였다.

이제 저 나무밑에서 적동색머리수건이 흔들리면 그것은 곧 장파부가 아이들을 안고왔으니 애기엄마들은 일을 중지하고 빨리 나오라는 신호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저기 뽕뿌라나무아래서 자기가 사준 적동색머리수건이 펄럭일 때 대북은 마음이 별스레 이해해졌다. 대북에게는 장파부가 흔드는 머리수건이 꼭 자기를 부르는것처럼만 느껴졌다.

어쩌면 그것이 장파부가 자기에게 보내는 각근한 인사갈기도 했다.

저기 큰길 수문쪽에 나타난 두 형체가 대북의 눈에 띄었다. 장파부와 복화가 틀림없는듯 했다. 늙으면 먼눈이 밝아지는 법이다.

(오늘같은 날엔 길이 험해 고생하겠구나. 다행히 오늘은 복화가 함께 오겠으니 한결 험하겠군.)

논두렁을 타고넘은 모내는기계가 또다시 이쪽 논배미의 첫줄을 잡고 발동소리를 높였다. 모뜨기에서나 보식에서나 재봉침으로 불리우는 태국이 머느리와 정화가 한조가 되어 모내는기계의 뒤를 부지런히 쫓고있었다. 그들은 승부를 못가를만치 둘 다 손놀림도 꺾었지만 입놀림 또한 서로 짝지지 않았다. 말씨도 다같이 빠르지만 온 동네 중소사를 모르는것이 없다. 오늘은 또 무슨 새소식들을 한보파리씩 안고나왔는지 이른아침 만나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도 동나지 않고 쉬임없이 계속되고있다. 모내는기계뒤에 바싹 붙어 쫓아가며 말을 주고받다보니 기계소리때문에 자연 그들의 말소리도 다루는것처럼 높아만 진다.

발동소리속에 그들의 소리가 간간이 섞여들리는데 언뜻 장파부란 말이 귀전을 때렸다. 대북은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기계소리에 파묻혀 도간도간 겨우 알아들은 소리는 《대북령감... 갱소년... 련애...머리수건...》 이 소리뿐이었다. 그담엔 바스르지는 웃음소리...

대북은 다리맥이 쑥 빠지는것을 느꼈다. 우레가 맞았다.

저것들이 아까부터 나와 장파부에 대한 소릴 하렸구나, 흥을 보고있구나, 앞뒤를 들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다 늙은게 파부궁둥이를 쫓아다니며 망녕을 부린다는것이겠지, 저들이 저쫓 말할땐 온 마을에 나에 대한 뒤소리가 파다하게 퍼지게 틀림없어.

대북은 순간적으로 모닥불을 뒤집어쓴것 같았다.

아하, 나살이나 건사한게 이제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그따위는 왜서 사다줘가지고 이런 구설수에 오른단 말이나.

머리수건... 머리수건...

큰길가 멀리서 보이던 두 형체가 점점 가까와지더니 나무밑에 들어섰다. 여기서 지금 자기가 한창 말밭에 오르고있는것도 모르고 장길순은 이제 그 화제거리의 적동색머리수건을 끌어들고 예나 다름없는 웃는 얼굴로 애기엄마들을 부를것이다.

그 순간 모내는기계뒤를 쫓고있던 두 녀인이 동시에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그리곤 뽕뿌라나무쪽을 바라보며 저희끼리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 이제 보라는것이다. 대북은 너무 창황하여 머리를 돌리고말았다.

하지만 그는 육감으로 알아보았다. 저 멀리서 장파부가 정답게 내젓는 적동색머리수건을...

젃은 손들을 옷설에 문댄 애기엄마들이 큰길로 나가자 남은 사람들에게도 잠시 휴식이 선포되었다.

물론 사위녀석만은 스택스적 아낙네들의 뒤를 멀찌감치 쫓았다. 저녀석도 나나 마찬가지다. 사람이 그 무엇에 깊이 빠져들면 주위를 망각하는것이다. 그때는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있는지, 자기 행위에 대한 세평은 어떠한지 그것을 도무지 감득하지 못하는것이다.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버린다.

대북은 분조원들의 무리속에도 휩쓸리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앉아 침통한 낮빛을 하고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그냥 그 적동색머리수건이 펄럭거리고있었다.

상점에 나온 그 적동색머리수건은 늙은이색갈이라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것이이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남의 눈에 유표하게 띄우는것이이기도했다. 황혼빛갈의 머리수건은 그것 하나뿐이었으니가 그것이 소문을 낳았을것이다.

애기들에게 젃을 물려놓고 평덩하니들 앉아서 아무개네 집에 찾아온 평양고모의 알사탕봉지가 몇개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을 아무개와 맞선을 본 건너말 처녀의 외사촌이 읍에서 무슨 일을 하고있다는데 이르기까지 동네의 사말사뿐아니라 온갖 세상사가 다 격렬한 화제거리로 되어있는 그 탁아소 안방에서 아낙네들이 무슨 소린들 못 만들어내고 그 모아지고 보태지고 다듬어진 소리들에 어떤 귀신같은 짐작과 예측이 붙지 않으랴. 그것들이 장파부의 머리수건이 바뀌어진것을 과연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으리란것은 뻔한리치다. 차라리 남들처럼 분홍색이나 하늘색의 혼한 색깔로 사다줄걸 그랬나... 하지만 그 색깔

이 자기 맘에도 들고 그의 나이에도 딱 어울리는 걸 어쩔단 말인가. 아니 그보다도 그 색깔이 아이들이 정붙인 색깔이었기에 택한것이 아니었던가.

래일부터라도 그 수건을 쓰지 말라고 해야겠다. 아니 이제는 수건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저 맘씨고운 장과부의 얼굴에 칠해놓은 흑점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무슨 소리들 안할텐가. 다 늙은것들이 정분이 나서 새망스럽게 무슨 약조가 담긴 물건짜를 주거나받거나했다는 그런 소리들을 안할텐가.

남의 소리는 입에 올려 석달이상 못 간다고는 하지만 일단 퍼진 소문이야 괜한 맘씨고운 아낙네의 설움많은 가슴을 다시한번 허벼주기에 충분하다.

존실이라도 그 뜬소문을 들었을텐데 나한테 일언반구 아무 내색도 없는것을 보면 남보기 창피하다는것이겠지...

설사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것처럼 인류에 어긋나는것이란 말인가.

대복의 생각은 끝이 없을것 같았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념을 가볍게 건드리며 어디선가 웨침소리같은것이 바람을 타고 끊길듯 말듯 간간이 들려왔다.

대복은 꿈속에서처럼 간신히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

분명 아낙네목소린데... 다급하고 걱정에 찬...

그 소리가 점차 커졌다. 여러 목소리가 합쳐지는것 같았다.

우리 분조아낙네들 소리다!

큰길쪽으로 시선을 돌리던 대복은 벌떡 일어섰다.

저 멀리서 적동색머리수건이 또다시 힘차게 나뭇기고있었다. 심장이 후두두 뛰었다. 그옆에 까만 승용차 한대가 서있었던것이다.

아! 해뜰무렵에 이앞을 지나쳐 해창마을쪽으로 향했던 그 승용차가 아닌가.

하나로 합쳐진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수—령—님—》

《!》

4

천방지축 논둑길을 달려나오는 대복이네들에게 큰길우에 서신 수령님께서 천천히 오라고 거듭 손을 흔들어주시었다. 그래도 그들이 논두렁에 미끄러지며 막무가내로 달려오자 그이께서는 문득 옆에 선 얘기엄마에게서 애를 받아드시는것이였다.

아마도 달려오는 농장원들에게 자신께서는 시간아 넉넉하니 그리 바빠 서돌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을 주기 위해서일것이다. 그럴수록 대복이네들은 더욱 줄달음을 놓았다.

그들이 큰길우에 올라섰을때 수령님께서 영수를 품에 안고계시였다.

《천천히 와도 될걸 공연히들 덤썩습니다.》

한손으로 영수의 포단을 품안으신 수령님께서 다른 손을 내밀어 달려나온 농장원들의 흠문

은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나무리벌의 농사형편을 알아보고싶어 새벽 일찌기 길을 떠났더랬는데 벌써 중낮이 됐군. 올해 기계모는 몇프로 면적에나 도입합니까?》

《저기 버들담이라 부르는 수령논만 내놓고는 거의 모두 기계로 모를 댈니다!》

바지가랑이를 무릎까지 걷어올린채 맨발바람에 수령님앞에 나선 작업반장이 장한듯이 대답올렸다.

《대단합니다. 그만하면 기계덕을 본다고 말할 만 합니다.》

《수상님의 덕분에 우리 농군들이 허리를 펴게 됐습니다.》

대복은 입에 올라 굳어진대로 《수상님》이라고 불렀다. 협동화 초시기부터 벌써 수심차레나 찾아오시여 인제는 허물이 없어진 수령님이시였고 그 나날에 늘쌍 부르던 그 부름이 더없이 친근하게 간직된 그였다.

수령님께서도 대복을 알아보시였다.

《이젠 기계가 손에 익었습니까?》

대복은 작년도 일이 생각나 얼굴이 시뻘개졌다.

《예, 손에두 익구 맘에두 쏙 드는 기цеп니다. 수상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기계를 다뤘더니 그렇게 좋은 기계인걸...》

《그래 이젠 기계로 농사짓고싶다던 소원이 풀렸습니까?》

《예, 조상대대의 소원이 풀렸습니다.》

대복의 대답에 뒤이어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였다.

《이젠 물걱정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작년도엔 정말 비료를 맘껏 쳐보았습니다.》 이럴 때 보면 모두가 어린이들 같았다. 마치도 부모앞에서 제 자랑거리가 아닌것도 제것처럼 신이나 늘어놓는 철부지자식들을 보는듯 했다.

《수령님, 이젠 〈우물집〉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태국이의 소리였다.

수령님께서 처음 그 말뜻을 몰라 작업반장을 바라보시였다.

《예, 우리 마을에도 수도화가 완전히 끝나 집집마다 물이 찾아들어갑니다. 그래 우물집에 자연히 발길이 끊어지다보니...》

수령님께서 만족하게 웃으시였다.

《그래, 이젠 모내는기계를 한대 더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이젠 정말 소원이 말짱 다 풀렸습니다. 그러다간 정말 우리 농군들의 손에 털이 나겠습니다.》

《오늘 나무리벌을 한바퀴 돌아보니 어딜가나 기계에 대한 소원은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씀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무슨 걱정이 또 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동안 대복은 아까부터 차꾸만 수령님의 발치에 시선이 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구두잔등까지 진흙물이 올라있었다.

수령님께서 품안은 아기를 녀려하시며 조심히

감탕길을 저저디디실 때 대복은 혹시 미끄러지지 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속이 다 한줌만 해졌다.

수령님품에 안긴 손자녀석이 캐드득소리를 냈다.

《그런데 왜 이 곳은날에 아기들을 포전까지 내왔습니까? 일손이 딸려섭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무리 일하기가 험해졌기로 서니 아무튼 부지깽이도 편다는 모내기철이 아닙니까. 명색이 농군들인데 이만이야...》 대복이 황송하여 말씀올렸다.

작업반장이 수령님앞에 나섰다.

《저기 저 장길순아주머니가 젖먹이아이들을 포전까지 내오겠다고 발기해나서는 바람에 지금은 온 농장에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말속에는 장길순에 대한 반장으로서의 치하도 들어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대복의 손주애를 다시 추출려안으시며 장과부쪽을 돌아보시었다.

《아, 이자 그 머리수건을 흔들던 아주머니구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젖엄마들을 찾는 신호였군요. 우린 차를 타고 오다가 저 멀리서 그 수건이 흔들거리길래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렇게 앓느냐는듯이 수행일군을 돌아보시었다.

《글쎄말입니다. 오늘 현지지도는 오전중에 소문없이 다녀오자는 수령님말씀대로 철저히 비밀에 붙였는데 어떻게 벌써 알고 선통을 하는가 했습니다.》

수행일군이 반룡담삼아 말씀을올렸다.

《암 선통을 해야 하구말구. 내가 올 때는 일없이만 나라의 〈왕〉들이 행차했는데...》

수령님께서 영수를 머리로 높이 쳐드시며 호탕히 웃으시었다. 장과부가 멋적어하며 슬그머니 머리수건을 뒤로 가져가는데 대복은 공연히 땀발이 솟았다. 공교롭게도 수령님이 오신 이 마당에서 그 아름답지 못한 시비거리의 수건이 화제에 오르다니.

《참 이채로운 풍경이었습시다. 그런데 기왕이면 빨간색이나 눈에 잘 띄우는 고운 색깔로 할것이지...》

대복은 점점 더 속이 졸아들었다. 장길순도 얼굴이 빨개졌다. 대복은 부기장의 큰딸과 태국의 머느리 그리고 복화가 어색한 눈길로 저희끼리 마주보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들이 벌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릴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령님께서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그전에 우리가 굶어 농사지를 때는 내인들이 애기를 등에 업고 모를 냈습시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야 얼마나 호강합니까?》

대복의 동갑이인 태국이가 글썽해진 눈을 쳐들며 갈린 소리로 말씀올렸다.

《몇 아이나 됩니까? 저런! 네 아이씩이나...》

수령님께서서는 혀를 차시었다.

수령님께서는 끝간데없이 무언하게 펼쳐진 나무리벌을 다시한번 둘러보시었다.

《쉽지 않겠습니까. 빈몸으로도 헐치 않겠는데... 거리도 멀구 또 길이...》

그이께서는 또다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디디

시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집의 손주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지요. 혹시 이 애들중에 대의 손자도 있는게 아닙니까?》

당황해난 장길순은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공연히 적동색머리수건만 만지작거리었다. 《저...》 작업반장이 몹시 갑자르며 딱하다는듯이 떠들떠들 말씀을 올리었다.

《이 아주머닌... 혼자, 혼자 사는 아주머닙니다. ...》

수령님께서 저으기 놀라시었다.

《그럼 세대주도 없습니까?》

즐겁던 분위기가 단번에 식어지고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대답을 기다리시는 수령님께 아무 말씀도 못 올리고 서있는것이 죄송스러워 할수없이 대복이 입을 열었다.

《전쟁때 모두...》

그도 그이상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 순간엔 모두의 손에서 땀이 났다.

수령님께서서는 더이상 묻지 않으시었다.

《전쟁이 끝난지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있구만...》

수령님품에 안긴 손주녀석은 또다시 캐드득소리를 냈다.

그이께서는 저 멀리 탈곡장지붕이 유평한 작업반쪽으로 우불구불 휘어진 길을 점도록 바라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네 아이를 안고 이 길을 하루에도 두세차례씩이나 오고갔을 장길순의 수고를 헤아려보고계시는것이였다. 준실이를 비롯해서 애기엄마들과 그 술한 사람들이 좋다고 장과부를 만기던 길이었다.

《이제 좀 지나면 복더위가 시작될텐데...》

머루알같은 눈을 반짝이며 뽀뽀를 하고있는 애기의 모습을 잠시 굽어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혼자말씀처럼 뇌이시며 걱정스러워하시었다.

《강동무.》

수행일군이 그이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게 어떨까? 유모차... 승리자동차에서 꽤 만들수 있을까?》

일군도 농장원들도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리벉벉한채 다음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마 동무도 처음일테지. 하긴 그런 차가 있다는 소리는 나도 아직 듣지 못했으니까... 동무가 한번 상상해보오. 애기들을 가득 태우고 이 넓은 벌판을 달리는 그런 차를 말ियो.》

그 어떤 크나큰 행운과 환희를 예감한 대복의 심장이 쿵 — 쿵 — 요란한 박동을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을 차로 실어나릅시다. 여기 포전까지!》

나무그늘밑으로 시원한 한줄기 바람이 스쳐지나갔다.

세찬 감격의 파도가 사람들을 휘감았다.

《야!》

애기엄마들이 장과부의 손을 붙잡고 강동강동 뛰었다. 대복의 사위는 너무 격한 나머지 아이들처럼 탄성을 지르며 반장의 두어깨를 그러잡고 마구 흔들었다.

《강동무, 동무가 덕천에 말해보오. 내가 부탁하더라고... 애기들이 타게 되는차니만치 들추지 않도록 각별히 마음을 쓰되 그러면서도 또 형식은 형식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모두가 제나름대로 아직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꽃수레를 머리속에 상상해보았다. 그속에서 췌근췌근 행복의 단꿈을 꿀 자기 자식들의 모습도 그려보았다.

그러다가 대복의 사위가 《그런데 이 길에서야 어디 차가 들추어서... 애들이 일없을가?》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에 다시 제정신들로 돌아왔다.

모두가 새삼스레 큰길을 다시 살펴보았다. 눈에 익고 습관된 길이었다. 이 길이 이렇게 한심했던가, 이런 곳으로야 어떻게 그 꽃수레를 굴린단 말인가. 사람들은 모두 처음 보는 길이거나 한것처럼 자기들이 딛고선 길가를, 아침저녁 오가던 자기들의 포전길을 나무라게 굽어보았다. 이 길로는 암만해도 잡자는 애기들을 태운 유모차가 고스란히 굴러갈것 같지 않았다. 감탕을 깔아놓은것 같은데다가 군데군데 물매미가 떠다니는 끔직한 물구덩이들...

만약 차가 저 구덩이에 빠지거나 한다면 젓먹이들이 요람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앓을가. 이제라도 길수리를 해야 하지 앓을가. 모두는 마치 수령님께서 아무래도 길이 험해 차가 다닐것 같지 못하다고 도리머리를 저으시길라도 하시면 어쩔가 하는 당혹한 심정으로 길가를 못마땅하게 굽어보며 가슴들을 조였다.

《이 못난것들아!》

별안간 참을수 없는 대복의 격한 소리가 사람들을 놀래웠다. 사람들은 모두 와들 놀랐다.

이 령감이 실성을 했다. 어느분앞에서 감히...

《너희들 모두... 우리 수상님의 신발을 좀 바라! 그러구 저, 저 수상님 타고오신 차를 좀 바라!》

대복은 수령님쪽으로 천천히 돌아섰다. 어느덧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있었다.

《수상님!—》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은 대복은 피줄이 울통불통 살아있는 그 《농사군의 손》으로 무엄하게도 수령님의 구두를 부둥켜잡았다. 어디 들리시여 논두렁까지 몸소 밟으셨는지 오른쪽구두 앞코숭이에는 녹두색의 동동이가까지 달라붙어있었다. 흙탕물이 오른 구두우에 눈물방울이 점점이 떨어졌다.

《수상님을... 이렇게... 매번 험한 길에 모시면서... 언제한번, 그 로고를 쪼끔치두 헤아리지 않았던 이... 불충한 백성들이 막상 제 새끼들을 그 길에 세우자니 그제사... 그 길이 험한것인줄 알고... 이렇게, 그 알량한 새끼들을... 걱정합니다... 이 철없는 백성들을 어떻게든... 좋습니까! 수상님!》

그때에야 사람들은 가슴을 치는 커다란 충격에 시창까지 흙탕물이 튀어오른 수령님의 승용차에 시선을 모았다.

수령님께서 당황해하시였다.

《그러지 말고 어서 일어나십시오. 나야 뭐랍니다. 우리의 아이들, 나보다도 이 어린것들을 먼저 걱정하는것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당연한 일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동색머리수건으로 얼굴을 반나마 가리우고 소리없는 울음을 울고있는 장길순을 건네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대복의 손을 잡아일으키시였다.

《아마 누구보다도 좋아할 사람이 바로 이 아주머니입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 품에 안은 애들걱정으로 늘 속이 한잔만해서 걸었겠는데...》

수령님께서서는 준실이에게 아이를 넘겨주시며 장길순을 다시 돌아보시였다.

《아주머니, 너무 외로워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아주머니의 손자, 손녀들이 아닙니까. 이제 유모차가 오면 이 아이들을 다태우고 아주머니가 함께 온 벌판을 한바퀴 도십시오. 한차 가득 손자손녀를 거느린 아주머니를 누구나 부러워하게 말입니다.》

장과부의 흐느낌소리가 더욱 높아갔다. 어쩌면 수령님께서서는 이 이름없는 촌아낙네의 마음 한구석에 남은 자그마한 설음까지 날날이 들여다보시고 그 그늘마저 가져주시기 위해 이렇듯 마음쓰시는것일가.

《수령님, 전... 정말 하나두... 외롭지 않습니다. 락아소가 내 집이구 이것들이 다 내 자식들인데 무슨... 금덩이가 한구들 있단들 그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저... 애들이 내 락입니다. 수령님, 전... 이렇게 웃으며... 웃으며 삽니다, 흑—》

끝끝내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머리수건에 얼굴을 꼭 묻어버렸다.

모두가 죄스러움을 달랠길 없어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길이야 수리하면 되는것이지. 내 이제 농촌건설대를 여기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며 가야 할 길인데 번듯하게 닦읍시다.》

《수령님!》

아까부터 홍역이라도 앓는 놈처럼 시뻘개서 누구를 칠것처럼 격한 숨만 몰아쉬던 대복의 사위가 어려움도 잊고 털썩 수령님앞에 나섰다.

《그것만은, 그것만은... 우리 애들이 갈 길인데 우리가... 제발 그것만이라도 우리 손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렇게 말주변이 없을수있는가. 오늘이 이 마당에서라도 수령님께서 오실 길이라고 말씀올려야지 수상님께서 속으로야 우릴 얼마나 나무라실텐가. 제박에, 기껏해야 제 자식들밖에 모르는 도의없는 인간들이라고...

사위녀석은 말도 채 맺지 못한 주제에 큰일이나 하고난것처럼 헉 하고 큰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외로 틀더니 커다란 손으로 눈물을 뺨 씻었다.

《와불적마다 매번 달라지는것이 많습니다. 땅을 합치며 시작한 협동화가 이제 맘과 맘을 합치면서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달라져가는 산천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변모되어가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씨와 안팎으로 더욱 윤택해지는 우리 사회주의문화농촌을 보게 되였습니다. 아주머니, 내 그 머리수건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그 소박한 생각과 자그마한 일을 그처럼 장히 여겨주시는 수령님앞에서 장길순은 더더

옥 몸돌바를 물렸다.

대복의 마음을 또다시 쿵 치는 말쑤이었다. 세상은 어찌면 이렇게 좋게만 변하고 사람은 세월과 함께 늙는것이 아니라 젊어만 지는것인가.

대복의 눈에서는 기쁨에 젖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오직 울지 않는것은 크나큰 행복을 받아안은 대복의 손자와 젓먹이들뿐이었다. ...

그로부터 며칠후 온 마을이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온 동네가 아니, 온 농장이 여기 삼강마을이라 불리우는 대복의 작업반마을에 모여들어 축판을 벌리었다. 탈곡장 앞마당에 새납이 울리고 빙글빙글 상모가 춤을 쳤다.

재득의 어머니가 축판에 뛰어들어 흥을 돋구었다.

《할머니, 곱새춤만 잘 추는줄 알았더니 젊어서 춤깨나 춰보았수다레. 나비갈수다!》

팔순의 로파와 짝을 어울리며 역시 흥뜬 찬식이 가 내뿜는 소리였다.

《애끼 이녀석, 내가 지금 선녀춤을 춘다.》

《선녀요? 하긴 팔순도 선녀야 선녀지. 하하...》

《이놈! 팔순소리 하지 말아. 내 막 나이먹는게 한이다. 이 세월 얼마나 더 좋아지겠는지 내 그 세월 끝까지 따라가보련다.》

드디어 유모차가 저 멀리 재령강다리우에 나타났다.

《애기차가 온다!》

울긋불긋 요란한 꽃장식을 한 유모차가 며칠사이에 도회지 포장도로로 왔다가 울고갈 정도로 희한하게 변모된 마을앞의 번듯한 큰길을 따라 그들의 눈앞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다. 그안에는 알뜰하게 꾸민 열개의 요람이 나란히 줄맞춰있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장길순의 등을 떠밀었다.

《자, 아주머니가 먼저 타야지요!》

《아무렴! 이제야 아주머니가 이 움직이는 탁아소의 소장이구말구!》

차에 오른 장길순이 요람들을 매만지며 희한하고 송구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 우선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온 리를 한바퀴 돌시다.》

《왜 우리 리만 돌겠나. 온 나무리벌을 다 돌아야지!》

젓먹이들을 안고 애기엄마들이 차앞으로 몰려들었다. 장길순이 차안에서 귀중한 보배들을 정성스레 받아 꽃장식을 한 요람들에 눕혔다. 차가 막 떠나려는 참이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영수를 유모차에 실은 준실의 소리였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머니라니?

하긴 준실이도 20여년만에 처음 불러보는 소리였다.

《어머니, 나 그저 좀...》 준실이 장길순의 목에 둘러있는 적동색머리수건을 가리켰다. 장길순은 영문을 모르고 수건을 풀어 내밀었다. 그 머리수건을 받아들고 차앞으로 돌아간 준실은 시창앞에 붙어있는 기발대애다 그것을 정성들여 매달았다.

《옳다. 그 머리수건이 제격이다.》

《준실이 생각 잘했다.》

《그 머리수건이 한결 돋보이누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며 환호를 올렸다. 그 앞에서 제일 떠드는것은태국이네 머느리며 정화, 복화들이었다. 그들은 까닭없이 대복의 손을 붙잡고 눈물이 글썽해하였다.

행복의 꽃수레가 푸른 하늘이 창창하게 들리운 나무리벌 한가운데를 꿰지르며 주단우를 구르는듯 소리없이 미끄러져갔다. 대복은 허둥지둥 신들린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아득히 사라져가는 유모차의 뒤를 쫓아갔다. 자기도 마치 그 유모차에 올라탄것처럼 하늘로 둥둥 떠오르는것이 발이 땅에 닿는것 같지 않았다.

차앞머리에는 적동색머리수건이 펄럭이고 있었다.

앞길은 아직도 구만리에 열려있었다.

×

이것은 아버지수령님의 30여차의 현지지도를 기록하고있는 우리 농장에서 실지 있는 이야기이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장길순을 외할머니로 부르며 자란 나(오영수)는 대학을 마치고 고향의 관리일군이 되었다. 그 젓먹이차에 올라 유년시절을 작별한 《1기생》들이 이제는 당당한 농장의 기둥들이 되었다.

각종 희한한 승용차들과 소형버스들이 도로를 메우고 달리는 지금의 눈으로 보건대 30여년전 덕천의 우리 로동계급이 《갱생》반침차를 개조하여 만든 그 유모차는 그 성능이나 결모양에서 이젠 낡은 차라고 할수 있다.

이제는 우리 농장도 많이 발전하였다. 기계화반에는 각종 료전기재들이 마당이 좁다하게 늘어섰고 기계화수준도 훨씬 장성하여 포전마다에는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가지가지 련결농기계들이 힘든 손로동을 대신하고있다. 하지만 우리 고향마을 사람들은 농장의 제일 큰 재산으로, 제일 큰 자랑으로 그 유모차를 꼽는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언제한번 국가계획을 미달한적이 없이 인민군대 군량미원호를 맨 앞장에서 해온 우리 농장은 얼마전에는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고 온 나라가 다 아는 농장으로 이름이 높다.

전국각지의 협동경리부문 일군들과 신문기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농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농장에 베풀어주신 수령님의 하많은 사랑중에서도 바로 그 유모차에 깃든 사연을 제일 먼저 들려주며 평생 농민들을 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 수령님의 덕망을 전설처럼 이야기한다. 하긴 그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지만 그때 유모차를 맞이했던 사람들중에는 그 유모차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는 팔순이 넘은 복화할머니는 수령님께서 아이들보다도 바로 나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유모차를 보내주셨다고 지금도 고집하고있다.

바로 그 짧은 시간에 수령님께서 그 적동색

머리수건에 깃든 만단사연을 다 읽으시고 남이
알가 저어하며 포개두려던 그 수건을 보란듯이
흔들도록 하기 위해서 유모차를 보내주셨다는것
이다.

농장 사적내용에는 물론 그 적동색머리수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거의 한세기를 살아오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수령님의 30여차 현지지도를 거의 매번 접한 그
할머니의 말을 우리는 무심히 흘릴수가 없는것이
다.

적동색머리수건, 그것은 복반은 세월에 대한
우리 할아버지세대의 레찬이였고 보다 아름다와
질 미래에 대한 축복이었으며 동시에 슬픔과 고
생의 언덕을 넘으며 시대의변천을 직접 목격하여
오는 말년의 인간들이 간직한 생의 희열이고 보
다 큰 행복의 갈망이기도 했다. 과연 우리 수령
님께서 그 레사로운 농촌길, 그 평범한 머리수건
에서 것처럼 짧은 시간에 그 모든것을 다 읽고
느끼셨는지...아니,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보
고 느끼셨을것이다. 인민을 위해 인민들속에서
인민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한생을 보내신 우리
수령님이 아니신가.

우리가 수령님의 심중에 간직된 그 무한대한
인간사랑의 폭과 깊이에 대하여, 이 나라 모든
인민들을 한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 뜨거운 한품
에 안으시고 한생 심장을 불태우신 수령님의 그
인간사랑의 열도를 어찌 다 헤아릴수가 있으랴!

오늘도 나와 우리 농장사람들은 수령님께서 생
전에 찾아오시던 그 길로 사랑의 유모차가 변함
없이 달리고있다고 마음속으로 믿고있다.

상식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태도

철학자: 시간은 곧 진리의 어머니이다

과학자: 시간은 곧 지혜이며 능률이다

교육자: 시간은 곧 지식이다

력사학자: 시간은 곧 공정한 법판이다

경제학자: 시간은 곧 속도이며 재부이다

문학가: 시간은 곧 금싸래기이다

군사가: 시간은 곧 승리이다

의학자: 시간은 곧 생명이다

노동자: 시간은 곧 재부이다

기업가: 시간은 곧 돈이다

충명한자: 시간을 리용한다

암둔한자: 시간을 기다린다

게으른자: 시간을 잃는다

뜻있는자: 시간을 쟁취한다

뜻이 없는자: 시간을 포기한다

향학열이 높은자: 시간을 앞당긴다

한가한자: 시간을 낭비한다

우화

슬라크의 《복》

문영철

《야! 쇠물빛노을이 참 아름답기도 하다》

《우리 저 아름다운 노을을 피워올린

주인들을 찾아 축하해주자》

용해장에 처음 온

사진기와 꽃봉투 그리고 마이크가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데

방금 전기로를 거쳐 나온

슬라크

그들앞에 불쑥 나서며

말했네

《저 노을을 피워올린 주인은 바로 나요

내가 저 아름다운 노을을 피워올리느라

전기로속에서 얼마나 땀을 뺀다구》

《그런가요?!》 슬라크의 말 듣고

마이크는 반겨 다가서고

사진기는 렌즈의 초점을 맞추고

꽃봉투는 꽃보라를 날리려 입을 벌리는데

슬라크는 제 기분에 떠

두눈을 쪼프리네

《이건 다 나에게 차례진

〈복〉이야!

공을 들이지 않고도

명예를 떨치게 됐으니...》

이때 출강종소리!

뒤이어 쏟아지는 쇠물폭포!

용해장은 더 붉게

쇠물빛노을로 불탔네

슬라크는 그만 몸둘바를 몰라했네

그 꼴 보고 큰 삽

슬라크를 퍼담아

웅덩이속에 처넣으며 하는 말

《남의 공로로 받는 〈복〉은

바로 이 웅덩이속에 있지》

선군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서정세계

- 지난해 하반기에도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시들을 중심으로 -

김해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문학작품을 통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잘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그러자면 사회주의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품을 창작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창작된 병사수기라고 말할수있는 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회주의애국주의를 담고있는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작품을 많이 창작하도록 고무해주시었다.

우리 시인들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애국주의주제의 서정시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시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의 현실을 다양한 시적계기에서 다채로운 서정으로 노래하였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도 한없는 그리움속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동깊게 노래한 서정시들이 발표되어 선군시대 시화원을 풍성하게 하고있다.

시조 《원화리의 전설》(박정애 작, 9호)은 원화리의평범한 농장원이 되시어 한평생 농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 것처럼 마음쓰시며 모진 고생을 다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진정과 뜨거운 애정이 넘친 격정의 분출로 우리들의 심장에 되새겨준다.

시인은 시초에서 진정이 넘친 소박한 주제의 토로, 감각적이며 표상적인 섬세한 표현들과 자유분방한 시적환상의 나래를 펼쳐 생활세부속에서 참신하고 특색있게 시적일반화의 폭을 넓혀가며 사랑의 전설로 뜨겁게 달아오른 대지의 서정을 노래하고있다.

시 《땅》은 《한줌의 흙》에 대한 생활세부로 추억을 더듬으며 원화당을 《인민사랑의 위대한 전서》로, 시 《벼짚단우에 엮어지는 생각》은 이른 새벽 어버이수령님 깔고앉으셨던 이슬젖은 벼짚단을 피어린 빨찌산시절의 추억어린 《백두산의 찬서리 밴 그 락엽》으로 감수하고 시적발견을 함으로써 인민의 수령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커다란 시적여운속에 목메이게 제

험하게 한다. 시인은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한생을 집약적으로 련상할수있는 생활의 이야기들과 일화들을 탐색하여 시적계기와 정서적충격같은 형상요소들을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주정을 터치여 시초의 모든 시편들의 감동성과 참신성을 보장하고있다.

시 《반나절》, 《원화리의 하늘이야기》, 《탄복》, 《저금통장이야기》, 《원화리》 등이 그렇게 착상되고 탐구된 서정시들이다.

특히 마감시인 《원화리》는 논둑이 넘쳐날듯 벼이삭이 무르익는 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펼쳐면서 《이민위천》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인의 품모를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시에서 《찬이슬 털어주시며》 남먼저 발머리에 나오시고 전화의 그날에는 《최고사령부의 프락처럼 찾으신 고장》, 전후의 그날에는 《몸소 농장원이 되여주신 땅》이라는 감각적이고 비유적이며 표상적인 형상적표현은 참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시적표현들이다.

...

사랑의 추억으로 뜨거웁고
그리움의 마음으로 끝이 없는
원화리 원화리는
수령님의 정든 고장인가 정든 집인가
인민들과 한식술로 계시여라
어버이로 계시여라
위대한 농민으로 계시여라

참으로 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열정이 혁명전사들의 끝없는 그리움과 이어져 선군시대 인간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더침으로써 송축의 감정이 더욱 절절하고 뜨겁게 울려오게 하고있다.

시초의 마감시를 보다 더 참신하게 형상했다라면 시초를 더욱 품위있게 할수 있었을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나 독특한 시적발견과 생동하고 진실한 시적정서가 우리들을 기쁘게 한다.

시 《아, 땅아!》(김령 작, 10호)도 비교적 인상예 남는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구체적이며 생활적인 감정이다.

시 《향토》(김형준 작, 9호)는 서정적주인공의 운명적인 체험속에서 체득한 향토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개성이 뚜렷한 정서로 노래한 시인의 개

성적인 얼굴이 비낀 서정시이다.

그 아름다운 삶이 꽃피는 향토를
무궁세월에 빛내주시려
한생토록 《사향가》를 마음속에 부르시며
자신의 고향보다 우리의 향토를
더 많이 찾아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이 어린 땅

아!
이것이
아버이수령님 찾아주시고
아버이장군님 빛내주시는
나의 고향이다 우리의 향토다

한생토록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자신의 고향보다 더 찾아주시고 산전수전 다 겪
으시면서 가꾸시고 빛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
애하는 장군님의 자욱이 어린 땅이 우리의 향토
이다.시인이 세상을 향해 터친 이 심장의 토로는
이 시의 사상적핵이다.

시에서는 이 뜻깊은 사상감정이 구체적인 생활
화폭으로 생동하게 진실한 감정을 타고 뜨겁게
안겨오고있다.

시는 여름밤 마당가에서 《항일선렬들의 이야기
를 피워올리던 쑥불연기》, 추억의 내물 안고도는
《물레방아 수차바퀴의 긴긴 노래》, 선생님의 손
잡고 달리던 《원족의 들판》, 이슬젖은 들꽃을 꺾
어들고 찾아가는 《고향의 언덕 혁명렬사들의 분
묘》 등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며 표상적인, 생활세
부적인 정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향토에 대한
생활감정을 련상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삶과 운
명에 대한 시세계로 이끌어간다.

...
하여 향토여 어머니는 나의 태를 끊어
어느 돌밑에 묻었어도
향토는 내운명의 태를 끊지 않았다
입대하던 날 나를 배워주던
어머니의 웃고름되어
나를 향해 흔들어주던
고향처녀의 꽃다발되어
...

참으로 시에서 향토는 민족의 운명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길이 빛내일수 있게 하는 자애롭고 숭
고한 어머니품임을 정서적으로 깊이 느끼게 하고
있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열정이
되어 《웃은 비록 화려하게 못 입었어도》 한생을
푸른 숲과 바꾼 사람들과 배를 끓어도 거름집만
은 배불리워 난알을 가꾸며 들에 정을 엮고 땀을
바친 사람들.

그들이 무척 보고싶으시여 선군장정의 나날에
도 나의 정든 고향이라 하시며 길가의 웅달샘에
쪽박을 기울이시고 새로 건설한 자그마한 발전소
를 보시고 대견해하시며 사랑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시련속에서 나누는 사랑과 정이 더 두텁고 열
렬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병사들과 인민들이
하나의 선군혁명동지로 억척같이 뚫친 운명의 공
동체, 이것이 선군의 오늘 새롭게, 뜨겁게 안겨드
는 우리 향토의 모습이다.

시는 향토를 떠나 누리는 향락보다 향토와 함
께하는 고생을 더 달게 여기며 향토를 지켜가려
는 열렬한 애국적헌신성이 우리들의 갈망이고 지
향이며 행복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이 숭고한 감정은 향토를 사랑한다는것이 조국을
사랑하는것이라는 깊은 자각에 기초하고있기때문
에 그토록 소중한것이다. 향토에 대한 사랑을 안
고 운명을 함께 하려는 높은 자각, 애국적헌신성
은 우리들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신 수령을 결사
옹위하는것임을 밝혀준 여기에 이 시가 시대앞에
천명하고있는 깊은 사상이 있고 애국철학이 있
다.

아름다운 삶이 꽃피는 향토를 무궁토록 빛내 주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운명의 태양이시
다.

시는 우리 운명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천만군민의 굳센 의지와 신념을 격조높이
노래하여 향토의 무궁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굳
게 하여주고있다.

시는 표상적인 생동한 시어들, 반복과 대구, 감
탄사와 수사학적 질문들과 같은 형상수법들과 운
률 등에서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엿볼수 있게
한다.

하지만 서정시의 첫 부분이 다른 시와 상이 류
사한것으로 하여 좋은 생활세부들이 빛이 나지
않고 서정이 참신하지 못한 아쉬운감이 없지 않
으나 개성적인 목소리와 향기를 풍기는 시다운
시를 들고나오려는 피타는 사색을 바친 탐구의
흔적이 귀중하다고 본다.

시인은 높은 열정과 기백으로 선군시대 생활이
안고있는 숭고한 애국정신과 진실한 서정에 뿌리
박은 풍만한 시세계를 펼쳐야한다.

시 《행복한 사람》(리연희 작, 10호)은 한생 숲
에 살면서 그 숲을 살지우며 사랑과 땀을 바쳐온
산림감독원을 노래하고있다.

시는 첫시작부터 깊은 미학적정서의미를 안겨
주는 뜨겁게 압축된 시적체험과 사색의 분출로
독자들을 시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아득히
하늘을 향해 휘젓는 이깎술
눈부시게 비쳐드는 해빛속에
조용히 미소를 짓고 서있는 사나이

그 얼굴우에 어깨우엔
어리광부리듯 날아내리는
이깔잎 이깔잎

...

이깔숲의 바다, 눈부시게 비쳐드는 해빛속에
조용히 미소를 짓고 숲의 교향곡, 숲의 축복을
받는 사나이의 모습은 얼마나 숭고하게 안겨오는
가.

시는 귀중한 재부를 가꾸어 어머니조국에 심장
의 선물을 올리는 순간을 시적계기로 하여 한생
을 기꺼이 푸른 숲과 바꾼 서정적주인공의 숭고
한 인생관을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활정서에 담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한삽한삽 바위마다 흙을 없으며》, 《한배낭 또
한배낭 나무마다 거름을 주며》, 《뿌리에 바람이
들가, 잎이 마를가》, 《안길듯 두팔벌린 아지들/
어루쓸어주며 잡아도 보며》는 감각적이고 표상적
인 생동한 시적표현들이다.

《땀젖은 저 등어리로/ 온 산을 떠메여 올린 사
람》, 시에서는 평범하면서도 평범치 않은 비범한
인간의 모습, 헌신과 량심, 공민적자각을 지니고
산을 품에 안아 떠올린 거인적인간의 형상이 우
렷이 떠오르는것이다.

아침이면 《이슬젖은 밀립속에 나무들 자라는
소리》, 저녁이면 숲이 설레이는 소리 자식의 숨
결처럼 들으며 바쳐온 고생이 락중의 가장 큰 락
이 아니었던가. 그 락으로 사는것이 그의 한생의
전부였다. 그 락을 누리는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

오늘은 산이 그를 받들었네
그 그루마다 또다시
뿌리를 내려 솟구쳐오를 그의 삶
영원히 푸르려 늙지 않을 애국을 떠받들었네

시는 시대에 대한 열정이 낳은 시적환상과 랑
만의 세계속에서 숲과 애국과 인생에 대한 삶의
철학을 얼마나 진지하게, 무게있게 발견하고있는
것인가.

시에는 선군시대 영웅을 찬양하고 자랑하고싶
어하는 시인의 열정과 함께 그에 대한 시대의 찬
가, 시대의 축복이 비껴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이 선군시대 인
간이라는것을 정서적으로 감수할수 있도록 서정
을 펼쳤더라면 새맛도 나고 시적감흥도 컸을것이
다.

시초 《불굴의 인간들》(백하 작, 12호)은 경애
하는 장군님과 인민들이 사랑과 정으로 혼연일체
를 이룬 눈물겨운 숭엄한 화폭속에서 선군시대
인간의 숭고한 인간미, 삶의 뜻을 새기게 한다.

시 《박아바이의 미소》, 《결사대원들》, 《백배
로 강해졌다》는 위험한 순간에 발휘된 순결하고
아름답고 충직한 불굴의 인간들의 고결한 인간세
계를 심장에 새긴 생활 그대로를 진실하게 노래
하고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시 《박아바이의 미소》는 인상깊은 생활세부속
에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소들을 한몸바쳐 구원한
박아바이의 순결한 인간세계를 노래하고있다.

와삭와삭 물을 뜯으며 코투레질하는 소들을 바
라보는 박아바이는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든 상
처의 아픔도 다 잊은듯 즐거이 웃고있다. 박아바
이가 폭신한 소들의 뺨을 어루쓸며 웃고있는 생
활세부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정겹게 안겨오는
가.

...

아 장군님
올해농사를 잘 지어
인민생활을 늘여야 한다고
그리도 간곡하게 하신 당부
어서 강냉이이삭바리 실어나르고
폭폭 등성이밭들을 갈아엎을 그 생각

...

시는 선군시대 평범하고 소박한 인간들이 간직
한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그이를 결사옹위하
려는 순결한 량심이 비낀 세상에서 가장 아름
다운 미소를 시로 엮고있다.

이 시초중의 서정시 《결사대원들》은 수령결사
옹위의 뜨거운 심장과 대결했던 자연의 굴복을
생동한 시적화폭속에서 노래하였다면 시 《백배로
강해졌다》는 시련속에서 백배로 강해진 불굴의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련시 《선군시대 아이들》(강옥녀 작, 7호)은 수
채화적인 생활화폭으로 생기발랄하고 용맹스러운
선군시대 아이들의 동심을 어른들의 시점으로 펼
쳐보이면서 약동하는 내 조국의 모습을 생동하고
참신한 서정으로 떠올리고있다.

작은 생활세부를 정서적으로 파고들어 사랑과
꿈을 키우고 고향의 노래, 조국의 숨결을 새기는
병사의 심리세계를 진실한 서정으로 펼친 시 《나
의 병사수첩》(박현철 작, 12호)은 조국보위성전에
한몸바칠 병사의 맹세와 혁명적락관주의세계를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시 《나는 천리마에 꿈을 엮는다》(리명옥 작, 12
호)는 금시라도 하늘끝에 가닿을듯 거세차게 창
공에 나래편 천리마동상에 꿈을 엮는 사랑과 열
정으로 부풀어오른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섬세하게 펼치면서 준마기수의 량만의 세계를 보
여주고있다.

그밖에도 군모밀에 흰서리 내린다 해도 영원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로 살려는 의지의 세계를

추억속에서 뜨겁게 노래한 《나는 선군의 나이로 산다》(리범수 작, 12호)도 선군시대 감정이 뜨겁게 안겨오는 좋은 시들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년도에 일부 시인들은 현실 속에 들어가 충격을 안고 시적발견이 있는 참신한 서정시를 써낼 대신 책상머리에 앉아 손끝재간으로 거침없이 시를 꾸미었다. 그러다나니 시들이 추상화되어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노래하지 못하고 생활을 라렬한 시로밖에 될수 없게 되었다.

8호에 실린 시 《수령님 그 품에서 나도 자랐다》(리진협 작), 시초《행복》(서진명 작), 시《꽃사진》(김명훈 작), 《강철로에 띄우는 편지》(전승일 작), 9호에 실린 시《우리 사는 이 세월은...》(리광선 작), 《그 사랑에 뜨거운 땅》(박상민 작) 등은 시인의 진지한 탐구와 체험, 피라는 사색도 없이 추상적인 웨침과 생활라렬로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시들이다.

8호에 실린 시 《수령님 그 품에서 나도 자랐다》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자라난 서정적주인공의 사연깊은 감정을 기대할수 있게 시작되어있다. 그런데 시는 서정적주인공의 운명적인 체험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깊이도 있고 서정도 있게 노래하지 못하고 60년대 출생하여 첫걸음마를 떼던 때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를 거슬러가며 생활을 라렬하고있다.

...

복받은 내 삶의 걸음마여
어려웠던 나라의 혼전으로
손에손에 쥐여준 그 연필
공장과 마을 먼지
학교와 소년궁전부터 세워준 은혜로운
손길이어

...

불의와는 결판내고야마는 혁명가
백두산을 닮은 후손들로
대바르고 참되게 키워준 그 손길

...

시는 시라기보다 산문을 토막쳐 라렬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불의와는 결판내고야마는 혁명가》, 《백두산을 닮은후손》이 시적표현속에서 서정적주인공인《나》의 모습을 어떻게 선명하게 그려볼수 있겠는가. 심리적으로 체험되는 사람들의 감동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감성적인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을 라렬해가지고서는 감동을 불러내기 어렵다. 시인자신의 가슴에서 스스로 폭발하는 시와 노래를 진실하게 읊기지 못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시를 꾸미는 현상은 똑똑한 사상적알맹이를 잡아쥐지 못하고 시를 쓰는데 원인이 있다.

시초 《행복》은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닌 흥봉청년발전소 건설장의 제대군인부부를 노래하고있다.

이 시초는 시인이 격동적인 충격속에 깊은 시적사색이 안아온 《행복》에 대한 생활철학의 발견이 없이 기성적인 관념과 틀에 맞추어꾸민 작품이다.

시 《순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나 병사시절처럼 수령결사옹위의 전사로 살려는 그들의 마음속 진정을 그토록 대견하게 여기시고 사랑을 돌려주시는 수령과 전사사이 혈연의 정 넘치는 격동적인 순간을 노래하고있다.

그러나 시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던 그날의 그 감격, 그 목메임과 가슴뜨거움속에서 정서를 펼치지 않고 생활을 라렬하고있다.

시의 결구에 순간에 대하여 강조하고있으나 그 의미도 역시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만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절정에 올라섰기에》 그날이 《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바란다고 누구나 다 지닐수 없는》, 《오늘에 살고 래일에 살/ 우리 부부의 복받은 한생입니다》

신문이나 방송, 강연을 통해 우리가 들은 사실이나 감정을 라렬해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없다.

시 《언제와 우리 사랑》도 언제건설의 나날에 맺은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미의 세계, 정서세계가 없이 생활을 라렬하고있다.

시는 제대군인부부가 언제건설장에서 일할 때까지 생활경로를 설명하다가 결구에서 상식도 극히 상식적인것을 로출시키고있다.

시에서는 사랑과 열정으로 부풀어오른 제대군인부부의 체험세계를 섬세하게 파헤치면서 높아가는 언제와 함께 가슴속에 쌓여지는 《사랑의 언제》를 개성적인 목소리로 노래해야 했다.

시초에는 문학적인 사색의 흔적이 전혀 없다.

지난 시기 많은 작품을 창작한 시인이 참신하면서도 서정적책이 뚜렷한 시를 창작하지 못한데 대해 특별히 류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는 생활의 아름다운 노래이다.

우리 시인들은 성스러운 조국청사에 위대한 전환기를 아로새겨 빛내일 총공격전으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애국주의주체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하여 시대앞에 지닌 사명을 다하자.

병 사 시 초

박향산

나는 왜 병사가 되었는가

나의 할아버지는
열성농민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미제에 의해
억울하게도 생매장당한 사람
그 아픔을, 누를길 없는 그 복수를
계급의 유산으로 물려받으며 자란
나는 어느덧 총잡을 나이가 되었다

이 불행이
어찌 우리 가정뿐이라
이 나라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려보라
이름 모를 어느 사람 가슴을 헤쳐보라
미제에 의해 상처입지 않은
그런 집 그런 가슴이 있는가를

미제!
이 더러운 이름으로 하여
세상에 부럼없는 이 땅에
함께 존재하는 증오와 불행
미제와는 오직 총대로만 결산할수 있기에
나는 달리는 될수 없는 병사가 되었다

미제에 의해 분열된 이 땅
얼마나 아픈 낮과 밤들이
이 땅에 흘러가고있느냐
미제가 있는 한
그 아픔은 가셔질수 없어
이 땅에 태어난 그날부터
나는 이미 병사가 돼야 했다

어머니의 편지

원췌의 숨통을
방아쇠에 거머쥐고
전호가에 엮드린 병사
나의 가슴속엔 어머니의 편지가 있다

고향은 저 멀리
아득히 먼곳에 있어도
어머니의 사랑은 편지에 실려
또다시 이 아들을 찾아왔거니

아들아 집걱정 아예 말고
건강하여 군사복무 잘하거라
정깊은 목소리로 이 아들을
위훈의 길로 떠밀어주는 어머니의 편지

내 때로 훈련길에 지쳐 쓰러질 때면
어머니의 편지가 나를 일으켜세웠거니
아들아 일어나거라
아 귀에 익고 몸에 배인
어머니의 목소리

이런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담긴 편지
가슴에 품고 사는 병사를
이 세상 그 어떤 원췌도 타고넘지 못하리
아마도
이 나라 어머니들의 편지를 다 이으면
조국수호의 철의 울바자가 되리

오늘도 총잡은 아들딸들에게
장군님의 참된 병사가 되거라

사랑과 정을 담아
편지를 쓰는 어머니들

아 이 나라 병사들에겐 총대와 함께
고향집어머니의 편지가 있다

전호가의 봄

겨울과 봄이
서로 자리다툼하는 3월
아직은 산과 들에 눈이 덮였어도
전호가에 피었네 어여쁜 진달래

《봄이구나!》

기쁨에 함뿍 젖은 애송이전사
겨울속에 웃고있는 봄! 봄!
전호가에 찾아온 그 봄이 반가워

야들한 봄잎새를 어루만진다

눈보라치는 긴긴 겨울
평평 얼어붙은 전호가에 가슴을 대고
후더운 체온으로 언땅을 녹인 병사여
너는 모르고있구나
너의 피더운 가슴이
겨울속에 잠자던 봄을 남먼저 안아올린줄

야외훈련숙영지에서

눈내리는
야외훈련숙영지에서
나는 밥을 짓네
모닥불에 군용밥통을 걸어놓고

칙칙 김을 뽑는 군용밥통을 보니
내 마음은 저 멀리
항일의 전장
눈덮인 백두의 밀림속에 있는듯

한줌 통강냉이도 없어

생 눈을 끓이던
그날의 군용밥통 물끓는 소리
세월의 언덕 넘어
지금도 울려오네

맹물을 끓여마시더라도
기어이 찾아야 할 조국이기에
투사들 웃으며 달게 들던
군용밥통 물끓는 소리
오늘도 병사의 심장을 함께 끓여주네

병사에 대한 생각

지금 이 시각도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는 원썬들
칼을 물고 달려드는
침략의 기회에는 계절이 따로 없고
정해놓은 날과 달이 따로 없기에
언제나 격동상태에 사는
이들이 병사다

앉으나서나 원썬
길을 걸을 때도 원썬
잠을 자고 꿈을 꾸는 순간에조차
원썬 원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병사

원썬을 잊으면
그때는 벌써 병사가 아니기에
말을 해도
원썬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하고

꿈도 리상도
원썬을 더 많이 잡는데 두고사는
이들이 병사다

이 나라 어머니들이
사랑이란 말을
더 많이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귀여운 아이들 행복이
다시는 략탈자들의 손에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가슴에 멸적의 총검을 버리는 병사

이 땅에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원썬격멸의 총검 높이 들고
이 지구상에서
원썬! 그 말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오늘도 병사는
총구앞에 세워야 할 원썬을 세인다

장거리선수

김덕철

퇴근길에 오른 한창규감독은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가고있었다. 그의 집은 체육단에서 멀지 않았다.

해가 진 서쪽하늘에서 노을이 불타고있었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고층살림집들의 유리창문들이 그 노을빛을 받아 쇠물처럼 이글거렸다.

한창규는 눈길을 거기에 주고있었으나 정신은 딴데 가있었다. 그는 오늘 경만이로 하여 머리속이 번거로왔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경만은 그가 훈련지도를 하고있는 장거리선수였다. 한창규는 3년전에 전국청소년체육학교학생들의 록상경기대회에 참가하여 5천메터와 1만메터경기에서 단연 1등을 한 경만이를 자기네 체육단으로 선발해왔었다.

그때 그는 경만의 나무랄데 없는 체질과 현재 소유하고있는 기록으로 보아 훈련만 잘시키면 인차 훌륭한 선수로 키울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허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오지만 그때보다 기록이 별로 높아진것이 없었다. 오늘경기기록은 그를 완전히 실망케 하였다. 경만이를 더붙잡고 훈련지도를 하고싶은 생각마저 없어졌다. 그를 체육단에서 내보내는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거리선수로서의 나무랄데 없는 그의 체질과 높은 훈련의욕 그리고 완강한 의지에 대한 미련이 한창규로 하여금 그를 체육단에서 내보낼 확고한 결심채택을 하지 못하게 했다.

한창규가 이런 생각을 하며 집에 당도하니 나이들면서 몸이 나기 시작한 안해가 응접실로 리용하는 전실쪼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있었다. 그는 신문을 보는데 얼마나 열중했던지 남편이 들어온것도 몰랐다.

무슨 기사가 실렸기에 저렇가?

한창규는 호기심에 찬 눈길로 안해를 바라보다가 《여보!》 하고 찾았다.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안해는 신문에서 눈길을 떼고 이쪽을 돌아다보았는데 어째서인지 크고 검실한 그의 두눈에 눈물이 어려있었다.

(웬일일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창규의 곁으로 다가온 안해는 기쁨에 젖은 그러나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여보, 명희 아버지가 끝내 성공하셨군요.》

한창규는 잠시 어정쩡해하다가 안해한테서 신

문을 받아들었다. 오늘호 평양신문이었다.

한창규의 눈길이 신문 옹근 한면을 다 채운 기사의 제목에 가서 멎었다.

《탐구로 이어진 17년》

그아래에 좀 작은 활자로 《금석협동농장 기술부원 오태석동무에 대한 이야기》라는 부제목이 달려있었다.

부제목을 다시한번 재빨리 훑어보고난 한창규의 눈길이 신문 한켠에 손바닥만 한 크기로 나있는 인물사진으로 옮겨졌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닐가 하여 사진을 보고 또 보았으나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그 오태석이 틀림없었다.

한창규의 가슴은 더없는 흥분으로 하여 느닷없이 울렁거렸다. 그는 손에 신문을 든채 흥분을 농치며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마주앉았다. 그리고는 급히 돋보기를 찾아끼고 신문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기사에는 온갖 시련을 박차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여 17년만에 새로운 자연에너지를 연구개발한 오태석의 연구성과가 소개되어있었다.

그가 연구한 자연에너기는 농촌에서 흔히 리용하는 메탄가스보다 연소효율이 더 높았다. 그러면서도 생산설비가 크지 않고 간단하여 아무데나 설치할수 있고 원료와 로력도 적게 들어 경제적인의의가 컸다.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 실험하다가 화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를 그 몇번,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주저않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강한 의지로 연구사업을 기어이 성사시킨 이야기는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다.

한창규는 오태석의 그 피나는 노력과정을 누구보다도 잘알고있었다. 그래서 그가 받아안은 감동이 더 컸는지도 모른다.

《끝내 성공했구나!》

혼자소리로 나직이 부르짖는 한창규의 눈앞에 지난해 봄에 있었던 일이 선히 되살아났다.

그날 한창규가 퇴근해가니 남새상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 안해가 먼저 집에 와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비껴있었다.

무슨 일일가?!...

한창규는 말없이 안해의 기색을 살폈다.

그런데 안해가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이 명희 아버지를 좀 도와주어야겠

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오늘 남새접수하러 금석협동농장에 갔다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명희네 집에 들렀더니 글썽 집안이 말이 아니예요. 명희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명희 아버지가 이젠 집에도 실험실까지 꾸려놓고 연구사업을 계속하고있는데 성공할 가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뉘소리가 많은것 같아요. 얼마전에는 실험하다가 폭발사고까지 나서 큰일날뻔 했대요. 그런데도 명희 아버지 연구사업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아 명희 어머니 속상해해요. 그러니 당신이 명희 아버지를 꼭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러다 사람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찌겠어요?》

한창규는 안타까움에 젖은 안해의 호소를 듣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들은 군사복무를 같이한 전우였다.

한창규가 오래석을 알게 된것은 사단에서 진행하는 체육대회를 앞두고 임시로 조직했던 련대체육조에서였다. 두사람 다 장거리선수였는데 오래석은 5천미터선수였고 한창규는 1만미터선수였다. 나이와 입대년한이 같은 동년배로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훈련도 같이하고 생활도 같이하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련대체육조에서의 생활기간은 짧지만 해마다 사단체육대회를 하는 바람에 제대될 때는 정말 남다른 사이로 되었다.

두사람은 제대될 때 대학추천도 같이 받았다. 한창규는 조선체육대학에, 오래석은 평양농업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기간에도 그들은 병사시절의 우정을 잊지 않고 더 가까이 지냈다.

체육대학을 졸업한 한창규는 중앙급체육단 감독으로 배치받았고 농업대학을 졸업한 오래석은 평양시 주변구역 협동농장경영위원회 부원으로 배치받았다. 그러나 오래석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자기가 마음먹었던 연구사업을 위해 금석협동농장으로 자진해갔다. 그는 농장 기사장사업을 하라는것도 마다하고 기술부원으로 일하면서 오직 연구사업에만 전념했다.

오래석이 금석협동농장에 가서 연구사업을 시작한 처음 몇년동안 두사람은 서로 련계가 깊었다. 한창규는 이따금씩 금석협동농장에 찾아가서 오래석을 만났다. 오래석이기도 시내에 불일이 있어 왔다가는 한창규네 집에 들리곤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오래석이 연구사업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두사람의 발길은 자연히 떠지였다. 최근년간에는 서로 한번도 오간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안해가 금석협동농장에 갔다와서 오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생각이 많지 않을수가 없었다.

한창규는 그사이 오래석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자책감과 죄스러움으로 하여 가슴이 아파났다.

비록 늦기는 했으나 그는 안해의 말대로 오래석을 도와주고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16년동안이나 연구하여 성공하지 못한것을 이제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그만큼 고생을 했으면 됐지 더는 헛수고를 시키지 말자, 그러자면 지금껏 들인 공이 아깝긴 해도 그 연구사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한창규는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오래석을 도와주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틀후에 시간을 내어 금석협동농장으로 찾아갔다.

그날도 오래석은 자기 집에 꾸린 실험실에서 연구사업을 하다가 한창규를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그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했다.

한창규는 그만 오래석이가 더없이 측은하게 여겨졌다.

《그래 어떤가? 성과가 좀 있나?》한창규는 오래석이와 간단히 회포를 나누고나서 인사치레로 이렇게 물었다.

오래석은 대답대신 도리질을 하며 어쭙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여보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섭섭해말라구. 나도 많이 생각한 끝에 자네를 위해서하는 말이네.》

오래석은 한창규가 무슨 말을 할가 하여 그의 얼굴을 자못 의아스레 쳐다보았다.

한창규는 잠시 련민에 찬 눈길로 오래석을 마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젠 제발 그 연구사업을 그만두라구. 16년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무엇때문에 승산없는 일에 가까운 정력만 소비하겠나? 자네가 그 연구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도 없으니 기술부원 일이나 잘하는게 좋을것 같구만.》

한창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오래석의 기색을 살피며 말을 계속했다.

《자네가 연구사업을 정 하고싶으면 다른걸 연구하라구. 농촌에도 연구해야 할게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가망이 보이는걸 하나 연구하여 인차 성공하면 자네도 좋고 나라에도 그만큼 리익이 될게 아닌가.그래, 어떤가? 내 말대로 하지?》

사람이 용단을 내릴 때 가서는 대담하게 용단을 내려야 하네. 그렇지 않다가는 후에 가서 꼭 후회하게 되네.》

《...》

오래석은 말없이 한창규를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고마와하는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수가 없었다. 한창규는 자기의 성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오래석에 대한 서운함을 속으로 달래며 대답을 재촉했다.

《왜 말이 없나? 어서 속 시원히 말해보라구.》

그러자 오래석은 격한어조로 부르짖었는데 그의 얼굴힘살이 가볍게 떨리는것이 험동하게 알렸다.

《난 동무가 이럴줄은 정말 몰랐네. 내가 지금까지 주저앉지 않고 연구사업을 계속 해온것은 언제나 병사시절의 동무의 모습을 잊지 않고있었기 때문이요.》

오래석의 말이 너무도 뜻밖이어서 한창규는 자기도 모르게 어성을 높였다.

한동안 무슨 생각인가 하며 한창규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던 오래석이가 흥분을 능치고 조용히 말했다.

《발목을 상하고 사단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일을 잊었나? 동무는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잊지 않고있네.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거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창규의 머리속에는 먼 옛날로 되여버린 그때 일이 어제일처럼 생생히 떠올랐다.

...사단체육대회를 사흘 앞두고 한창규는 계단 뛰여오르기훈련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발목을 육질렸다. 상한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다. 연대군의소에 가서 침도 맞고 부항도 붙이고 더운물찜질도 했으나 부은것이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그걸 보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와한것은 오래석이었다.

하나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날 한창규는 상한 발목에 붕대를 푹푹 동이고 경기에 참가하겠다고 하였다.

《일없겠나?》

오래석은 한창규의 얼굴과 붕대를 동인 발을 번갈아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일없어.》

한창규는 오래석을 안심시키려고 밝게 웃어보였다. 그리고는 출발선으로 걸어갔는데 아직도 상한쪽다리를 약간씩 절룩거리었다.

오래석은 그런 한창규를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건잡을수가 없었다.

그가 만약 발목이 아파나서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라도 하면 어쩌겠는가?

이미 진행한 5천미터경기에 참가하여 등수에 들지 못한 오래석이로서는 자기네 장거리조선수

들이 연대전우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할가봐 속이 한줌만 해있었다.

드디어 경기사작을 알리는 신호총소리가 울렸다.

운동장을 25바퀴나 돌아야 하는 1만미터경기는 처음부터 사단군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운동장을 빙 둘러싼 각 연대응원단은 서로 자기네 연대선수가 이기라고 북과 팽과리를 치고 함성을 지르기도 하면서 길길이 울리뛰었다. 군악대들은 승벽내기로 나팔을 불어댔다.

한창규는 경기가 시작되여 처음 한동안은 맨 앞장에서 달리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오래석은 희색이 만면하여 응원에 열을 올리였다. 오래석이네 연대군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아졌다.

하나 오래석의 얼굴에 점차 그들이 지기 시작했다. 한창규의 속도가 점점 떠진탓이었다.

한창규를 뒤따르던 선수들이 앞서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는 네번째로 밀려났다.

그러자 한창규를 앞선 선수네 연대군인들이 너무 좋아서 환성을 울리며 북과 팽과리를 더 세차게 두드려댔다. 그대신 오래석이네 연대군인들은 사기가 저락되여 응원도 제대로하지 못했다. 유독 오래석이만이 경기장주로밖에에서 한창규를 따라 뛰며 힘을 내라고 소래기를 질렀다. 하지만 그것도 은을 내지 못했다.

다른 선수들은 서로 앞서거니뒤서거니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고있었으나 한창규의 속도는 오히려 떠지고있었다.

운동장을 열세바퀴 돌았을 때 한창규는 어느덧 맨 꼬리가 되고말았다.

다리를 많이 저는걸 보니 상한 발목이 몹시 아픈 모양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들사이의 거리차이는 더욱 심해졌다. 한창규는 앞선 선수들보다 두바퀴나 뒤떨어져있었다.

경기장주로밖에에서 한창규를 따라뛰며 힘을 내라고 소래기를 지르던 오래석이기도 이제 더는 따라 잡을 가망이 보이지 않자 맥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어방없이 뒤떨어진 상태에서 힘겹게 달리는 한창규를 안타깝게 지켜보기만 하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을걸 잘못했어.)

오래석의 후회는 컸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야 소용이 없었다.

뒤떨어진 선수들이 승산없는 경기를 포기하고

한명 두명 기권하기 시작했으나 한창규만은 그냥 달리었다.

와— 하는 환성이 우렁차게 터져오르는 속에 맨 앞에서 달리던 선수가 테프를 끊었다. 뒤따르던 선수들도 련이어 결승선에 들어섰다.

경기를 포기한 선수들이 모두 기권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다 결승선에 들어서자 경기장주로는 한창규만이 남았다. 그가 결승선에 들어서자면 아직도 운동장을 두바퀴 반이나 돌아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경기를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서 계속 달리고있었다. 그 바람에 심판원들이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제자리에 그냥 서있게 되었다.

한창규의 속도는 말이 아니었다. 달린다기보다 차라리 걸어간다는 표현이 더 적중할지도 몰랐다. 아픈 다리를 절룩거리며 혼자서 힘겹게 가까스로 전진하고있는 그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숨이 가쁠 지경이었다.

응원하러 온 사단군인들은 그런 한창규를 웃음 어린 얼굴로 지켜보며 자기네끼리 한마디씩 했다.

《저친구 피짤데...》

《글쎄말이야.》

《그런데 어느 련대 선수야?》

《정말 괜찮아. 하하하...》

군인들속에서 가볍게 일고있는 미묘한 웃음소리는 한창규의 희극적존재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았다.

오래석은 그런 한창규때문에 자기가, 아니 자기네 련대가 모욕을 받는것 같아서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젠장, 기권하면 되겠는데 어째서 기권하지 않고 개망신을 하는가 말이야. ...)

오래석은 한창규에 대한 불만이 산꼭대기에서 굴러내리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속이 활 뒤집혀졌다. 그는 더는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서 다시 한창규를 뒤쫓아가며 이젠 제발 그만 뛰라고 신경질적으로 웨쳐댔다.

한창규가 그 말을 들었는지 오래석을 돌아다보았다.

《뛰지 말라는데 왜 계속 뛰면서 그래, 응? 창피한줄도 모르고...》

그러나 한창규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얼굴을 돌리고 그냥 뛰었다. 오래석은 속이 부글부글 피여올라도 어찌는수가 없었다.

그런데 일은 예상외로 번져졌다.

아픈 다리를 절룩거리며 마지막바퀴 직선주로에 가까스로 들어선 한창규는 안간힘을 다하여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발목에 동였던 봉대가 풀어져서 땡기처럼 날리었다.

그때야 비로소 한창규가 상한 발로 경기에 참가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들은 일제히 웃음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정색한 얼굴로, 아니 놀람과 경의에 찬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한창규는 결승선이 가까와지자 이발을 사려물고 더 필사적으로 속도를 내었다. 그러나 지칠대로 지친 그의 달리기자세는 완전히 흐트러져서 자칫하면 몸의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질것만 같았다.

마음속으로 한창규와 같이 달리고있는 군인들은 그가 넘어질가봐 가슴을 조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주석단에 앉아서 한창규를 감동에 젖은 눈길로 지켜보던 사단장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구경하던 군인들이 일제히 따라서 박수를 쳤다. 그러자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한쪽에 서있던 심판원들도 결승선에 다시 나와섰다.

박수소리, 북소리, 팽파리소리가 요란히 울리는 가운데 한창규가 드디어 결승선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심판원들이 그를 급히 일으켜세우고 몸을 우로련속 추슬러올렸으나 그는 인차 펴나지 못했다.

경기장은 불시에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불안, 우려, 걱정이 한데 뒤섞인 수많은 눈길은 한창규를 긴장하게 지켜보고있었다.

얼마후 한창규가 숨을 후— 내쉬더니 자기 혼자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두워졌던 관중들의 얼굴이 금시에 밝아졌다.

그 바람에 오래석의 마음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으나 한창규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가셔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한쪽으로 끌고가서 싫은소리를 했다.

《정신이 나가지 않았어? 등수에 들지 못할걸 알면서 그렇게 뛰어서 뭘하는가 말이야, 련대망신만 시키면서. ...》

그런데 한창규는 제편에서 오히려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듯 의아스러워했다.

《도중에 기권할걸 무엇때문에 출발선을 떠났겠어? 그렇게는 못해!》

한창규는 너무나도 응당한 일처럼 레사롭게 말하였다.

체육대회 폐막식에서 한창규는 전례에 없던 《투지상》을 받았다. 사단장이 경기조직위원회에 건의하여 특별히 《투지상》을 제정하게 했던것이

다.

사단장은 한창규에게 《투지상》을 수여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수고했소. 동무는 오늘 여기에 모인 군인들에게 정말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소. 출발진지를 떠난 병사에게는 물러설 권리가 없소. 그 어떤 불소나기가 쏟아져도 기어이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꽂아야 하는것이 바로 우리 군인들이요.》

오태석은 그 말을 듣고 받아안은 충격이 컸다. 그리고 어쩌서 한창규에게 전례에 없던 《투지상》을 주었는지도 이해가 되었다. ...

《그날 나는 앞으로꼭 동무처럼 살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었네. 군사복무의 나날은 물론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연구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련이 앞을 막을 때마다 언제나 그날의 동무를 생각하며 힘과 용기를 얻곤 했었지. 그런데 어쩌면 다른 사람도 아닌 동무가 그런 말을 할수 있나? 그런 말이나 하겠으면 내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구. 난 절대로 물러설수 없네. 계속 꾸준히 달리느라 언젠가는 꼭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네.》

오태석의 립장과 태도는 단호했다.

한창규는 그만 말문이 막혀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말았다. ...

회상에서 깨어난 한창규는 《평양신문》이 놓여 있는 책상앞에 그런듯이 까딱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의 귀전에 옛 사단장의 말이 다시금 쟁쟁히 울리는듯 하였다.

《...출발진지를 떠난 병사에게는 물러설 권리가 없소. 그 어떤 불소나기가 쏟아져도 기어이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꽂아야 하오.》

오태석은 그 말을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한생을 《장거리선수》로 살아왔다. 그리하여 것처럼 어렵고 간고한 연구사업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어이 성공시킴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던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있는가? 경기장주로서

서는 장거리선수로서 《투지상》까지 받았지만 인생길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았는가.

다른 일은 다 내놓고 경만의 일을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랬다.

장거리선수로서의 나무랄데 없는 체질과 높은 훈련의욕 그리고 완강한 의지의 소유자인 경만의 기록이 높아지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경만은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래 오늘경기에서도 전구간을 높은 속도로 달리는 지속시간을 보장하지 못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지속시간을 보장하자면 그의 최대산소섭취량을 늘여주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최대산소섭취량을 늘여주기 위한 방도를 깊이 연구하여 훈련에 적용할 대신 그를 체육단에서 내보낼 생각까지 했으니 얼마나 한심한 감독인가. 한창규는 머리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한창규는 그전날의 자기를 되찾고싶었다. 그리하여 병사시절의 장거리선수로 나머지 생을 힘차게 달려 오태석이처럼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 싶었다.

한창규는 늘렸던 용수철이 튕겨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늘경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어깨가 처져있을 경만이를 당장 찾아가 새로운 훈련방도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여보, 어디로 가요?》

안해가 밖으로 나가려는 한창규를 의아쩍게 바라보며 물었다.

《내 인차 갔다올데가 있소.》

《가도 식사나 하고 가세요.》

그러나 한창규는 그 말을 듣지 못하기라도 한듯 밖으로 나가고말았다.

그의 마음인양 서쪽하늘에 물들어있는 노을이 더욱더 붉게 타고있었다.

경구, 격언

- 기쁨은 잊혀지지만 슬픔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찬 사람은 속이 텅 빈 사람이다
- 삶은 룡담도 오락도 지어 향락도 아니다. 삶은 노동이다
- 온갖 생각은 반죽과도 같다. 그것을 잘 이기면 무엇이든지 만들수 있다
- 시켜서 베푸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 고향밖에서는 행복이 없으니 각자는 고향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
- 행복은 건강과 같은것이여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군인증 (외 2 편)

김춘호

참으로 오랜 날을
품고 살아선가
보물지고 색은 날았구나

공민증을 받을 나이에
이 군인증 받아안고
한술한술 늘어가는 군사칭호를
이 갈피에 새겨넣으며
흘러온 복무년한 그 몇몇해

넘은 령도 많아라
헤친 강도 많아라
군인증 품은 가슴 사랑으로 불태우며
지새운 초소의 밤은 또 얼마

잊지 못할 그 나날
병사의 군복과 함께
눈비에도 젖고 땀에도 젖으며
복무의 먼길을 함께 온 군인증

여기엔 거주지를 밝히지 않았건만
눈비오는 전호를 집 삼아
수호자의 삶을 빛내온
병사의 보람 다 있고

여기엔 가족란이 따로 없어도
온 나라 인민과 혈육의 정을 맺고
조국의 아들로 살아온
병사의 긍지 다 있어

자랑이여라

공민의 그 모든 행복의 권리를
저 멀리 고향에 두고
군복입은 공민—조국의 수호자로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살아온 그 길을
말없이 말해주는 이 군인증

귀중한 청춘의 나이를
조국의 안녕에 기꺼이 바치며
위훈으로 수놓아온
내 복무의 증서여

그것은
저버릴수 없고
배반할수는 더욱 없는
어머니조국의 믿음의 보증!

어이 순간인들 가벼이 품고 살라
이 심장 다하도록
대오속의 그 위치를 지키며
한생의 끝까지
조국의 그 믿음 그 보증을 빛내며
내 언제나 자랑으로 품고살리라

아 나의 군인증
값높은 영예의 증서처럼
끝없는 행복의 증서처럼

나무에 이름표를 달며

산언덕에 노을피는 이 저녁
병사— 나는 이름표를 단다
방금 이 손으로 심은 나무에
내 이름을 새긴 소박한 이름표를

잔뿌리 하나라도 상할세라
살뜰히도 옹기 나무
부식토도 듬뿍 깔아주며
사랑을 고인 나무야

병사의 장구류에
이름표를 붙이듯이
내 너에게 내 이름표를 다니

너 정녕 이 몸의 한부분인듯

이제부턴 내가
너를 책임진 주인
아침저녁 물도 내가 주고
센바람 막아주며 내 너를 키우리라

너 푸르러 설레일 때
내 마음도 함께 푸르러 설레이고
너 키높이 자라올 때
내 이름도 함께 오르리니

어찌 결전의 마당에서만이라

푸른 숲 펼쳐가는 이 길에서도
군복입은 공민의 사랑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해갈 이 마음

할수만 있다면
온 나라 산과 들 나무마다에
내 이름표를 붙이고
내가 다 맡아 키우고싶구나

명령한 사람은 없었다

그 누구도
명령한 사람은 없었다

농장길을 가는 병사
물우에 뜬 벼모 심어주고 가라고
숲속길을 걷는 병사
비바람에 넘어진 나무 세워주고 가라고

허나 병사에겐
명령처럼 강렬하게 마음 떠미는
그 무엇이 있는듯
때로는 사품치는 물속에
스스로 뛰어들어
무너지는 제방뚝을 살려내고야마나니

이 나라의 어느 교장
어느 들판 어느 산 어느 강기슭
벼모 한포기 나무 한그루 제방뚝 하나도
병사에겐 모두
내가 지켜가는 나의것
조국의것이어서

오, 진정 그래서
병사의 량심은
어느 한순간도 잠드는적 없고
병사들이 가는 곳
조국땅 어디에나 있어라

공군대좌

곽명철

끝끝한 두 아들을
이미 자기처럼 어엿한 비행사로 키운
귀밑머리 흰 공군대좌
오늘은 또 막내아들 비행사를 맞이하네

대끝에선 기어이 대가 나와야 한다면
몇해건너 아들들을 낳을적마다
만이도 비행사 둘째도 비행사
막내동이도 갈데 없는 비행사라
온 집안식솔을 공군계통으로
쭉 선을 그어놓은 그대

심어주었더라 자라나는 아들들에게
어떻게 찾은 내 나라의 하늘인가를
어떻게 불구름 가셔낸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인가
를
대를 이어 우리의 이 하늘
그누가 지켜야 하는가를

때없이 깊은 밤 꿈속에서 그려보았더라

비행복 그뿐히 차려입은
미더운 자식들을 보란듯이 정렬시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감격에 겨워 긍지높이 삼가 보고를 드리는
공군대좌 자신의 행복에 겨운 그 모습을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도 바라던 소원대로
막내아들마저 오늘은 나라의 비행사되어
이렇듯 고향집문턱을 보무당당히 넘어섰으니
가정의 《주도기》인 아버지 공군대좌의 얼굴엔
만족의 웃음이 가실줄 몰라라

아 정녕 우리 장군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지켜
자식들과 함께 한생을 다할
결사의 맹세로 가슴불태우는 그 마음 어려서인가
공군대좌 그대 바라보는 조국의 하늘가엔
또 하나의 《편대》가 긍지높이 날고있었어라

강경애와 그의 창작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카프〉 작가들과 함께 그 조직밖에서 같은 시기에 활동한 개별적작가들속에서도 강경애의 장편소설 〈인간문제〉와 같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작품이 적지않게 창작되였다.》

언제나 무산대중의 편에 서서 창작활동을 벌렸으며 《인간문제》, 《소금》과 같은 작품을 내놓은 강경애는 해방전 진보적문학을 대표하는 녀류작가들중 한사람이다.

그는 머슴군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겨운 생활과 비극적운명을 직접 체험하고 수많은 목격하면서 자랐다.

1906년 4월 황해남도(당시 황해도) 송화군에서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어난 강경애는 철이 들기도 전에 머슴군으로 살던 아버지를 잃고 병약한 어머니와 함께 끼니도 제대로 이을수 없어 늘 배고파 울며 자랐다.

가난에 시달리던 그의 어머니는 입에 풀칠이라도 해볼가 하여 어린 강경애를 데리고 장연군에 사는 돈은 있으나 예순이 넘고 게다가 불구자인 최도감의 후처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강경애는 이붓집자식처럼 되어 학대와 멸시를 받으며 고달픈 어린시절을 보내었다.

열살이 넘어서야 장연소학교에 입학한 그는 학용품도 마음대로 써보지 못하면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의 단편소설 《원고료 2백원》[주체24(1935)년]에서 주인공 《나》가 동생에게 쓴 편지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바로 작가 자신의 이와 같은 소학교시절의 생활형편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다.

《나는 아직도 잘 기억한다. 내가 학교 일년급 때 일이다. 래일처럼 학기시험을 치겠는데는 나는 종이와 붓이 없구나. 그래서 생각다못해서 나는 옆의 동무의것을 훔치었다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꾸지람을 받았겠니! 그러구 애들한테까지 애! 도적년, 도적년 하는 놀림을 얼마나 받았겠니! 더구나 선생님은 그 큰 눈을 부라리면서 놀 시간에 나가놀지 못하게 하고 벌을 세우지 않겠니. ...

동무들은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어놓고 손벽을 치며 좋아하지 않겠니. 나는 벌을 서면서도 눈사람의 그 입과 눈이 우스워서 각 하고 웃다가 또 울다가 하였다.》

이러한 빈궁의 체험은 작가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동정을 가지게 하였다.

녀학교시기의 생활은 그의 세계관형성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16살에 형부의 도움으로 평양송의녀학교에 입학한 그는 《친목회》, 《독서회》 등 진보적청년학생조직에 망라되어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와 3.1인민봉기후 급속히 전파된 맑스—레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3학년때에 동맹휴학에 관여한것으로 하여 출학당한 후 이미 선진서적과 학생운동과정에 터득한 진리에 희망의 불을 지피 자기로서의 삶의 길을 모색해나갔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 야학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독서와 습작에 많은 시간을 돌렸다.

주체18(1929)년 그는 중국 간도로 건너가 2년간 룡정에서 립시교원으로 일해보기도 하고 끼니를 넘기는 가난의 고초를 겪기도 하면서 창작에 밑천이 될수 있는 귀중한 생활체험을 하였다. 이 기간에 작가가 체험하고 목격한 간도이주민들의 생활을 담아 창작한 단편소설 《파금》[주체20(1931)년]과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주체21(1932)년] 그리고 2편의 시들은 그가 귀국한 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당시 신문, 잡지들에 실리였다.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민의 비극적인 생활을 보여주면서 식민지조선의 청년지식인의 고뇌와 간도에로의 이주결심을 통하여 항일운동의 전망을 보여주려고 시도한 단편소설 《파금》이 출판물에 발표된 그의 처녀작이라면 지주와 소작인사이의 모순과 신분적억속관계, 비인간적축척제도 등 온갖 질곡에 얽매인 녀성들의 처지를 다각적으로 그려내면서 이에 대한 두 세대의 대비되는 삶의 자세를 통하여 녀성해방에 대한 지향을 그린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은 소설가로서의 강경애의 실질적인 등단작이다.

주체20(1931)년에 귀국하였다가 얼마 안있어 그해 6월경에 다시 간도로 이주한 강경애는 가정일을 돌보는 한편 민족문학을 장려하기 위해 조직된 문학동인단체인 《북향회》에서 고문격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조선일보》 간도지국장도 맡아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

무장투쟁의 격동적인 소식은 강경애의 창작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가 일제의 악랄한 파썸적폭압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작품을 쓸 수 있는것은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적영향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항일혁명투쟁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었으며 국내외의 진보적작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그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공감과 지지를 반영한 중편소설 《소금》[주체23(1934)년]과 단편소설 《모자》[주체24(1935)년]와 같은 작품들과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한 장편소설 《인간문제》[주체23(1934)년] 등 작품들을 써냄으로써 창작활동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강경애가 가난한 인민들의 생활을 깊은 동정을 가지고 그리는것과 함께 항일유격대에 대한 일제의 기만선전과 허위성을 폭로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의 감정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것은 당시 국내에서 발행되는 공개출판물에 항일에국투사들을 찬양하고 내세운 작품을 발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는 사실과 비추어볼 때 주목되는 점이 아닐수 없다. 작가의 이러한 창작세계는 그의 간도생활체험과 《간도에서 빨찌산의 진면모를 포착하고저 유격대에 들어가려고 한 일도 있었》던 그의 진보적인 창작태도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두만강연안을 생활무대로 한 그의 중편소설 《소금》에서 생활의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이 먹고살아가기 위해 소금밀수에 운명을 걸고 경찰의 눈을 피하며 모험의 길을 걷지 않을수 없는 처지를 두고 당신네들이 왜 이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소금을 지게 되었는지 아는가고 하면서 그들을 동정해주고 깨우쳐주는 총을 든 《공산당》원의 길지 않은 대사속에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로서의 항일유격대의 진모의 일단이 비껴있으며 그들의 의로운 투쟁에 대한 작가의 긍정이 나타나고있다.

또한 단편소설 《모자》에서 《우리는 아무리 잘살고저 하나 잘살수가 없다.》고 하면서 불공평한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는 승호의 아버지와 그후 남편의 뒤를 이어 그 길로 나가는 그의 안해에 대한 형상은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공감과 지지성원의 감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한것으로 된다.

강경애는 조선녀성들의 생활에 대하여 깊이 관

심하고 무산계급녀성들의 생활을 주요내용으로 한 소설들을 가장 많이 창작한 녀류소설가로 알려져있는바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인 장편소설 《인간문제》는 그의 얼굴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소설이다.

소설은 첫째와 선비를 비롯한 주인공들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가혹한 현실속에서 착취와 빈궁에 시달리며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인간이 수천년을 두고 싸워온 근본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할 힘과 요소를 구비한 인간은 누구이며 그들이 나아갈 길은 어디 있는가 하는것을 밝히는데로 지향되었다. 작품은 지주이며 면장인 정덕호의 가혹한 수탈을 반대하여 일어난 룡연동네농민들의 자연발생적인 항거의 실패과정과 로동운동에 끼여들었다가 로동과 투쟁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락한 생활을 찾아 변절하는 소부르쵸아지식인인 유신철의 형상을 주인공들의 운명과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문제해결의 담당자는 생활의 여유가 있는 지식인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조직되고 단결된 투쟁으로써만 절박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는 로동계급이라는 사상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이밖에도 현실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서는 인물들을 그린 《해고》[주체24(1935)년], 《유무》[주체23(1934)년], 《동정》[주체23(1934)년], 집단적인 투쟁의식을 반영한 《부자》[주체21(1932)년], 《채전》[주체22(1933)년], 《축구전》[주체22(1933)년], 최하층인간들의 비극적운명을 형상한 《지하촌》[주체25(1936)년], 《어둠》[주체26(1937)년], 《마약》[주체27(1938)년] 등의 단편소설들도 창작하였다.

이미전부터 병에 시달리던 강경애는 더는 지탱하기 어려운 몸으로 주체28(1939)년에 귀향하여 날로 더욱 심해지는 병의 고통속에 유고시 《산딸기》를 남기고 주체33(1944)년 4월에 세상을 떠났다.

강경애의 창작기간은 10년도 안되는 짧은 시기이지만 그는 수십여편에 달하는 소설들을 썼을뿐 아니라 많은 평론, 수필, 시들도 창작발표하였다. 이처럼 작가 강경애는 조선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엄혹한 수난의 시기라고 할수 있는 해방전의 길지 않은 생을 보냈으나 혈벗고 굶주리는 근로인민의 운명에 깊이 동정하고 그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할것을 주장하는 립장과 태도를 창작활동에 구현함으로써 작가로서의 면모와 개성을 잘 나타내었으며 그의 이름은 우리 나라 진보적문학발전

의 한 갈피에 소중히 자리잡게 되었다.

강경애의 작품들은 그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당시 조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옳게 제기하고 해명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일부 자연주의적경향을 발로시킨것과 같은 일련의 부족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억눌리고 짓밟히는 최하층인간들의 생활에 동정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시대가 외면할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문제로 제기하고 형상한것으로 하여 특히는 일제의 야수적탄압속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는 항일유격대활동을 일정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

이렇듯 강경애는 창작활동을 무산대중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고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에 대한 공감과 찬양으로 지향시킨것으로 하여 《카프》작가는 아니었지만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작가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공정한 기여를 하였다.

어은심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인민

고구려사람들의 고상한 결혼풍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옛날부터 한번 결혼을 하면 갈라지지 않고 일생을 같이 사는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은 중요한 인륜대사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결혼풍습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하여왔으며 력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시기의 결혼풍습은 실로 고상하고 건전하였다.

먼저 고구려에서는 결혼당사자들의 교제와 결합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일반적으로 봉건사회에서는 뿌리깊은 가부장적가족제도와 봉건적도덕규범에 의하여 청춘남녀들의 교제와 사랑이 큰 제약을 받았다. 《남녀7세부동석》이라는 말도 있듯이 봉건사회에서 녀자들은 7살만 지나면 가족, 친척외의 남자들과 한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고 밖에도 마음대로 나다닐수 없었다. 사랑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이 없었다. 봉건사회에서 혼인형태는 대체로 중매결혼이었다.

하지만 고구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웃나라의 한 력사기록에는 《고구려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즐기는데 나라안의 마을과 거리에서 남녀들이 매일 밤 무리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놀이를 하였다. ... 남녀가 좋아하면 서로 결혼시킨다.》고 써여져 있다. 이것은 언제나 쾌활하고 락천적인 고구려사람들의 생활기풍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구려에서 남녀사이의 교제와 결합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청춘남녀들의 사랑문제에서도 본인들의 의사가 존중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고구려사람들은 결혼문제에서 경제적타산을 앞세우지 않았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혼인이 결정되면 《남자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내는것으로 그치며 재물없이 장가드는것을 레외로 여겼다. 만약 재물을 받는자가 있으면 (딸을) 녀종으로 파는것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모두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남자측에서 녀자측에 술과 고기를 보낸것은 딸을 잘 키워보낸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한다.

고구려사람들은 혼례의식도 허례허식이 없이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씩씩하고 전투적인 고구려사람들은 혼례식에서의 까다로운 절차와 요란한 상차림 등을 쓸데없는 허례허식으로, 랑비로 간주하면서 배격하였다. 남자측에서 보낸 약간의 고기와 술, 음식을 가지고 소박하면서도 성의있게 큰상을 차리고 가족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 몇몇이 모여앉아 술 몇잔 나누는것이 전부였다.

고구려사람들의 간소한 혼인의식에 대해 15세기의 학자였던 성현은 자기의 저서 《용재총화》에서 《옛날에는... 혼인하는 저녁에 친척들이 모여앉아 상 하나 차려놓고 술 석잔 돌리는것으로 행례를 끝냈을뿐이다.》라고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한 후에는 검은 머리 파뿌리되도록 갈라지지 않고 화목하게 살았다. 간혹 생활과정에 갈라지는 경우에는 가문의 더없는 수치로 여기였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사람값에 치지 않았다.

재물을 탐내지 않고 허례허식을 싫어하며 씩씩하고 락천적인 고구려사람들의 건전하고 고상한 결혼생활기풍은 우리 민족의 결혼풍습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계승무

《재판받는 구렁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가운데는 의인화의 수법으로 씌여진 《재판받는 구렁이》(《와사옥안》, 창작년대는 18세기말 19세기초, 작가는 알려져있지 않으나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관청에서 송사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일것이라고 추정함.)를 비롯한 재판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꾸민 의인소설들이 적지 않다.

《재판받는 구렁이》는 재판의 형식을 취하고있는 의인소설들의 일반적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는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꾸민 의인소설들에서는 소송자와 증인들의 진술을 받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제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주제사상은 《재판받는 쥐》에서 큰쥐가 나라의 쌀을 훔친 사건, 《서씨전》에서 서대쥐가 식량을 도적했다는 다람쥐의 거짓 송사사건, 《서대쥐전》에서 서대쥐가 다람쥐의 재산을 훔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재판받는 구렁이》에서 이러한 주제사상이 보다 첨예하게 강조되고있다. 그것은 이 작품에서 의인화된 동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살인사건을 취급한것과 관련된다.

작품은 섬진별장(두꺼비)이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도에 올려보내는 공문형식으로 씌여져있다. 백개구리는 관가에 와서 제 아들 올챙이가 구렁이한테 물려죽었으니 시체를 감정하고 사실을 옳게 해명해줄것을 상소한다. 살인범죄를 취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재판받는 구렁이》는 일반범죄를 재판하는 다른 의인소설들에 비하여 주제사상이 보다 예리하게 형상되고있다. 이것은 사건의 해결부분만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발전의 주요단계로서 해결부분은 작품에 설정된 갈등, 사건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완전히 결속되는 계기이며 여기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통하여 절정에서 밝혀진 주제사상이 보다 뚜렷이 강조되게 된다.

일반범죄를 취급한 의인소설들인 《서대쥐전》에서는 서대쥐의 거짓송사를 받고 착하고 부지런한 다람쥐가 정배가는것으로 해결되며 《섬로장전》에서는 섬로장(두꺼비)이 혼인을 강박한 두더지에게 곤장 30대를, 퇴물을 탐내어 중매를 썼던 다람쥐에게 곤장 20대를, 두더지와 싸운 창취에게 곤장 10대를 치게 한다. 그러나 《재판받는 구

렁이》에서는 살인사건을 취급한것만큼 곤장을 치거나 정배가는것으로 해결하는것이 아니다. 작품에서는 증인들의 한결같은 진술에 의하여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진 구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놈들은 짹짹이하여 나를 모함하는데 그대 무슨 원쑤진것이 있느냐. … 이런 처지에서 내가 죽었지 별수 없구나.》라고 발악하며 섬진별장은 살인사건의 조서를 만들어 처분해줄것을 우에 제기하는것으로 끝을 맺고있다. 이 소설의 주제사상은 사건해결부분에서 살인자인 구렁이의 운명을 단호하게 처리한것으로 하여 재판형식의 다른 의인소설보다 더 예리하게 형상할수 있었다.

《재판받는 구렁이》는 인물형상에서도 일련의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일반적으로 재판형식의 의인소설에서는 소송자나 증인, 재판관이 등장한다. 이러한 소설들에서 죄인들이 제 죄를 모면하려고 거짓증언(《재판받는 쥐》에서 큰쥐형상)하거나 송사를 뒤엎으려고 퇴물행위(《서대쥐전》에서 서대쥐의 형상)하며 또 퇴물을 받아먹고 그릇되게 판결(《황새결승》에서 황새의 형상)한다. 그러나 《재판받는 구렁이》에서는 재판에 참가하는 인물(구렁이는 제외)들은 공정한 립장에서 사실대로 증언한다. 섬진별장이 백개구리에게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진술할것을 요구하자 백개구리는 제 에미를 잃은 올챙이가 불쌍하여 애지중지 길러왔다는것과 사건이 있는 날 외조카인 순메추리가 달려와 올챙이가 못가에서 진구렁이와 싸우다 거의 죽게 되었다고 알려주어 달려가보니 아들이 사지를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였다.

《아버님, 제가 하새우, 오가재와 함께 못에서 목욕하며 즐겁게 놀고있었는데 진구렁이놈이 나타나서 물을 흐려놓으며 우리결으로 기여왔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왜 흐려놓는가고 욕했어요. 그랬더니 구렁이는 눈을 부릅뜨고 네놈은 어른도 몰라보느냐, 우리 할아버지는 너의 할아버지 두꺼비한테 죽었다. 밤낮 원쑤를 갚으려고 했는데 마침 너를 만났으니 잡아먹고 원쑤를 갚겠다고 하였어요. 저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도망치려 했으나 끝내 구렁이한테 붙잡혔어요. 서로 불안고 이리저리 덩굴며 싸웠으나 구렁이놈을 당해낼수 없었어요. 요행 빠져나와 도망치려는데 구렁이가 제 사타구니를 짹 물었어요.》

계속하여 백개구리는 아들을 업고 집에 와서 의원인 허가오리를 찾아가물린 자리를 봐달라고 했더니 침도 놓고 약도 먹이었으나 끝내 죽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사건목격자인 오가재는 《…올챙이가 〈그쪽은 배를 채울 욕심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욕하니 구

랭이는 발끈 성을 내며 〈너는 원쑤집안의 자손이다. 너를 잡아먹고 원한을 풀터이다.〉라고 하면서 올챙이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들이받고 입으로 깨물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소인이 어린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면 되는가고 추궁하니 구랭이는 〈너는 웬놈인데 잡소리를 하느냐?〉고 으르렁댔습니다. 소인은 너무 무서워 피했다가 날이 어두워져야 집에 와서 올챙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승취파리는 상가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올챙이가 물웅덩이에 쓰러진것을 보고 흔들어 찾았으나 대답이 없었다고 하였고 달팽이, 메기, 남생이 등은 개구리네 집에 불상사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현장에 가본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원인 허가오리만은 개구리네집에 가서 올챙이를 치료해준 사실과 올챙이가 죽은것은 구랭이가 물어놓은 독이 뱉쳤기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면장인 자라는 올챙이와 구랭이가 싸우는것을 보았으며 면장으로서 어찌 올챙이를 구원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인물인 구랭이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올챙이의 할아버지 두꺼비에게 죽은 사실을 말하고나서 친척집에 갔다오던중 너무도 배가 고파 올챙이에게 먹을것을 좀 달라고 하니 《너는 먹을것밖에 모르는구나. 네가 굶어죽든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나? 네가 나를 잡아먹을수 있단 말이냐?》라고 약을 울려 싸웠으나 물어놓은 일이 없다고 거짓증언하였다. 구랭이를 제외한 많은 증인들이 사십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대

로 증언하는 인물들의 형상은 소송사건을 취급한 중세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재판관인 심진별장을 실무에 능숙하고 사건을 공정하고 실속있게 처리하는 인물로 형상한것은 다른 의인소설들에서의 재판관(《재판받는 쥐》에서 창고신, 《서씨전》에서 백호, 《서대취전》에서 고을원)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으로 된다.

《재판받는 구랭이》는 구전설화들을 적절히 삽입하여 주제사상을 밝힐뿐아니라 예술적흥미도 보장하고있다.

구전설화 《토끼와 거북이》는 자라의 진술과정에 삽입되어있는데 눈병을 앓고있는 룡왕이 토끼간이 특효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라로 하여금 토끼를 꼬여오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토끼에게 속아서 놓쳐버리며 자라와 토끼가 서로 공모했다는 상어의 말을 듣고 룡왕은 자라를 룡궁에서 내쫓는것으로 꾸며져있다.

이외에도 문장서술에서 다른 고전소설과 구별되는것은 한문과 리두어를 적절하게 결합시킨것이다.

의인소설 《재판받는 구랭이》는 살인사건으로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지 못하고 대화형식으로 이야기를 꾸민 제한성이 있으나 우리 나라 중세 의인소설 특히 재판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꾸민 의인소설의 일반적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류윤화

유모아

똑같은 규정

마크 트웨인(미국작가, 1835.11—1910.4)이 이 옷에 사는 한 은행가의 집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하였다.

《우리 집에서 보시지요. 난 책을 절대로 집밖으로 내여가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놓았습시다.》 은행가의 말이였다.

그다음날 은행가가 마크 트웨인의 집에 찾아와

서 잔디깎는 기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마크 트웨인은 어서 쓰라고 하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한데 나도 당신처럼 한가지 규정을 만들어놓았지요. 잔디깎는 기계는 우리 집 잔디밭에서만 쓸수 있습니다.》